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학박사 학위논문

도시농업 활동에 따른 취약계층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관한 연구
- 영구임대주택 텃밭 이용자를 대상으로 -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임 정 언

도시농업 활동에 따른
취약계층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관한 연구

-영구임대주택 텃밭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교수 성 종 상

이 논문을 공학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임 정 언

임정언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7월

위 원 장

이종훈



부 위 원 장

유승현



위 원

이양주



위 원

박명관



위 원

이종상



국문초록

최근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 저성장, 소득 양극화로 인하여 한국사회의 노인, 빈곤층과 같은 취약계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이 빈약한 상황에서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소외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의 건강과 삶의 질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임대주택보급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임대주택의 폐쇄적인 공간구조는 거주민 간의 소외, 불신 등을 야기하고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가지는 심리적 우울감과 고립감은 높은 수준의 자살률과 고독사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주거환경을 개방적이고 상호교환적인 공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소모임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환경정비를 통한 위생증진과 같은 노력 외에도, 취약계층에게 강한 활동 동기(activity motivation)를 부여하고 협력을 통한 공동체 기반 형성, 개인 건강의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교류 증진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기여하는 도시농업 활동에 주목하였다. 도시농업은 생산 공간으로서 접근 용이성, 반복적인 옥외 활동 유도, 꾸준한 대면 접촉과 적극적인 정보공유, 자발적인 활동 유도 등의 효과를 통해 참여자 간의 상호관계를 촉진한다. 임대주택정책에 도시농업을 접목한다면 임대주택 거주민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공동체 형성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연구의 목적은 도시농업 활동이 취약계층의 교류 증진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공간계획과 운영·관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의 특성과 도시농업 활동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의 유형과 건강상태, 이용목적, 만족도 등을 파악하였다. 둘째,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을 분석하였다. 교류하는 이웃의 수, 교류빈도, 관계의 만족도 등을 조사한 후 ‘사회연결망분석기법(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개개인의 교류 수준과 전체 관계망의 구조 및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로 취약계층 유형별 네트워크의 규모, 텃밭 이용자 간의 연계, 교류, 응집 정도 등을 도출하였다. 셋째, 도시농업 활동의 어떠한 특성이 취약계층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기여하는가를 알아보았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데이터를 근거로 교류와 공동 활동의 장 제공, 협력관계 형성과 조직화,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공동 이익과 나눔의 가치 형성과 같은 세부 활동이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지인 영구임대주택은 장애인, 노인 등 신체부자유자의 비율이 높고 치매, 정신지체, 알코올 중독 등 만성질환자가 다수 거주한다. 지속된 빈곤, 일탈과 반사회적 행위, 개인의 건강 문제 및 동반자 간병 등에 의해 외부 활동이 제한적이다. 특히 1~2인 가구의 저소득 노인 거주 비율이 높아 가족보다 이웃 관계를 통해 서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텃밭을 이용하는 그룹 중 가장 취약한 대상인 장애인 그룹은 노원구 A단지 외곽에 위치한 텃밭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약 3년간 도시농업 활동을 지속해 오면서 외부 활동 빈도가 높아지고 그룹 내 관계의 질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관계망의 형태는 그룹 내 이용자 간의 교류 빈

도가 높아 장애인 그룹 내부 결속력이 강화된 구조이다. 아파트 관계자와 주민, 외부 봉사자들과 새로운 관계망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교류의 빈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도시농업을 통해 그룹의 결속과 개인의 건강 만족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바꾸고, 주민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누군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존재로서 자긍심과 자신감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A단지 복지관 옥상 텃밭의 경우 여성노인 그룹이 이용하고 있다. 초기 치매, 간병 가족에 의해 외부 활동이 제약된 75세 이상의 거주민들로 이용자가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 외부 활동이 전혀 없거나 사람들과의 교류가 단절되어 외롭게 거주하던 사람들이 도시농업 활동을 계기로 새로운 관계망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관이 운영뿐만 아니라 텃밭 관리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관계망이 복지관 관계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이웃 간 교류 범위는 1~2인으로 한정되어 관계망의 크기와 밀도가 다소 약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도시농업 활동을 일상에서 유일하게 이웃을 만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주요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이웃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생산물을 가꾸고 나누는 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었다. 무엇보다 당초 복지관 관계자에 의해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된 거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참가자 간의 관계망이 긴밀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거주민 전체를 이용 대상으로 하는 노원구 B단지 주민 공동 텃밭은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 개인의 관계망 뿐 아니라 단지 내 조직 간 관계망도 긴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텃밭을 분양하고 그 수입으로 아파트 전체의 관리비를 절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때문에 노인회, 임차인 대표, 통장

단, 관리사무소 등 개별로 나뉘져 있는 단지 내 조직들이 도시농업 활동을 계기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텃밭의 배분 방식, 분양 및 관리 기준, 수익의 활용 등 도시농업 활동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결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활동 의지가 강한 거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텃밭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관계망이 형성되고 상호 간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전체 관계망의 크기가 확장되었다. 이용자 간의 상호 연결 정도가 높아 향후 결속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공통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거주민들 내 핵심인물(key person)의 역할과 영향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도시농업활동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로서 사회적 관계망 분석 결과에서 중심성이 강한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텃밭의 운영·관리를 주도하고 경작활동을 비롯해 크고 작은 행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적 관계가 긴밀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핵심인물을 중심으로 텃밭 공간과 그 주변 환경이 정비되면서 아파트 전체 환경 개선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텃밭공간의 입지와 개방성 역시 관계망을 확장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텃밭 공간이 시각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접근성이 양호할수록 비이용자의 적극적인 호기심(active curiosity)을 유발하고 참여 욕구를 높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텃밭 공간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대외 이미지가 개선됨에 따라 아파트 환경 정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펜스를 낮춰 시각적으로 개방성을 확보하거나 주변 시설을 정비하고 활용되지 않은 땅에 식물을 심는 등 환경 개선의 의지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도시농업이 거주지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활동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수준과 영향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도시농업의 활용 가능성과 방향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도시 거주자들의 도시농업활동이 취미, 여가, 학습, 체험 등에 목적이 있다면, 취약계층에게 있어서 도시농업활동은 주거복지의 수단으로서 교류, 협력, 상호 부조관계 형성을 통한 소외와 불신의 제거, 개인의 건강증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주요어: 취약계층, 주거복지, 생활환경, 도시농업, 커뮤니티 가든, 사회 통합, 공동체 형성, 결속력, 공동체 공간, 지역 역량 강화, 사회적 건강

학번: 2011-31230

목 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6
제 2절 연구의 범위	7

제 2장 이론 연구

제 1절 취약계층과 사회적 관계망	9
1.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	9
2. 사회적 관계망의 개념과 특성	12
3.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16
제 2절 사회적 관계망 형성 관점에서 도시농업	19
1. 도시농업의 개념과 기능	19
2. 영구임대주택에서 도시농업의 의미	20
3. 사회적 관계망 형성 관점에서 도시농업의 효용	22
제 3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선행연구의 고찰	27
1. 국내 연구 동향	28
2. 해외 연구 동향	32

제 3 장 연구방법

제 1절 연구 대상지 선정	35
제 2절 연구 대상지의 현황	37

1. 노원구 A단지	37
2. 노원구 B단지	40
제 3절 분석의 틀	43
1. 분석의 틀 설정	43
2. 지표 선정 및 자료의 구축	45
3. 분석방법	55

제 4장 도시농업 참여 취약계층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

제 1절 도시농업 이용행태 및 만족도 분석	57
1. 노원구 A단지	60
2. 노원구 B단지	67
3. 분석의 종합	71
제 2절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 분석	74
1. 노원구 A단지	75
2. 노원구 B단지	90
제 3절 소결	98

제 5장 취약계층의 사회적 관계망에 기여하는 도시농업 활동의 역할

제 1절 사회적 접촉 및 공동 활동의 장 제공	102
1. 위치와 규모, 접근성 증진과 개방성 확보	102
2.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 변화와 화합을 위한 장소	115
제 2절 협력관계 형성과 조직화	118
1. 주민의 자발적 운영·관리 지원	120
2. 단지 내 조직 간 결속력 강화	122
제 3절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공동 이익과 나눔의 가치 형성	126
1. 생명 돌봄의 장소, 건강한 먹거리와 공동의 건강 증진	126

2. 공동학습, 나눔의 장소	128
3. 협동촉진, 서로 돕는 가치관 형성	130
제 4절 소결	132

제 6장 결 론

제 1절 요약 및 시사점	133
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38

인용문헌	140
[부록1]	145
[부록2]	150
Abstract	151

표 목 차

[표2-1] 공동주택 도시농업 활동의 특징	26
[표3-1] 노원구 A단지 개요	38
[표3-2] 노원구 B단지 개요	41
[표3-3] 사회적 관계망 관련 지표 항목	47
[표3-4] 연구에 사용된 분석 지표의 종합	50
[표3-5] 조사 과정 및 내용	53
[표3-6] 조사 대상자 현황	54
[표3-7] 사회적 관계망 분석 데이터 수집 방법	55
[표4-1] 노원구 A단지, B단지의 도시농업 조성 및 관리 현황	57
[표4-2] 노원구 A단지 텃밭 이용자 일반현황	60
[표4-3] 노원구 A단지 텃밭 이용자 건강상태	62
[표4-4] 노원구 A단지 텃밭 이용자 건강 관련 전문기관 상담 유무	62
[표4-5] 노원구 A단지 텃밭 이용행태	64
[표4-6] 노원구 A단지 텃밭 공간 및 프로그램 만족도	65
[표4-7] 노원구 A단지 텃밭 공간 및 프로그램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형성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66
[표4-8] 노원구 B단지 텃밭 이용자 일반현황	67
[표4-9] 노원구 B단지 텃밭 이용자 건강상태	69
[표4-10] 노원구 B단지 텃밭 이용자 건강 관련 전문기관 상담 유무	69
[표4-11] 노원구 B단지 텃밭 이용행태	70
[표4-12] 노원구 B단지 텃밭 공간 및 프로그램 만족도	71
[표4-13]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특성 분석 내용	75
[표4-14] 노원구 A단지 텃밭 이용자 이웃과의 교류빈도	76
[표4-15] 노원구 A단지 장애인 텃밭 조사 대상자 특성	79
[표4-16] 노원구 A단지 복지관 옥상 텃밭 조사대상자 특성	83
[표4-17] 노원구 A단지 텃밭활동을 통한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 수준	89

[표4-18] 노원구 A단지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수준	90
[표4-19] 노원구 B단지 텃밭 이용자 이웃과의 교류빈도	91
[표4-20] 노원구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조사대상자 특성	93
[표4-21] 노원구 B단지 텃밭활동을 통한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 수준	96
[표4-22] 노원구B단지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수준	97
[표5-1] 노원구 A단지 도시농업 운영·관리 현황	121
[표5-2] 노원구 B단지 도시농업 운영·관리 현황	122
[표5-3] 노원구 A단지 도시농업 활동 관련 조직 간의 협력체계 변화	123
[표5-4] 노원구 B단지 도시농업 활동 관련 조직 간의 협력체계 변화	125

그림 목차

[그림2-1]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의 특징	11
[그림2-2] 사회적 관계망과 건강과의 관계 모형	17
[그림2-3] 건강의 결정 요인	19
[그림2-4] 국내 도시농업 연구 빈도	28
[그림2-5] 국내 도시농업 관련 주요 연구 키워드 네트워크	29
[그림2-6] 해외 도시농업 관련 주요 연구 키워드 네트워크	34
[그림3-1] SH 임대주택 텃밭 공간 활용 현황	35
[그림3-2] 노원구 A단지 입지적 특성	37
[그림3-3] 노원구 A단지 내부 시설 현황	39
[그림3-4] 노원구 B단지 입지적 특징	40
[그림3-5] 노원구 B단지 내부 시설 현황	42
[그림3-6] 분석의 틀	44
[그림3-7] 지표의 선정과 구성	50
[그림4-1] 도시농업 공간의 입지적 특징	59

[그림4-2] 노원구 A단지 장애인 텃밭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망 중심 구조 분석	78
[그림4-3] 노원구 A단지 장애인 텃밭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망 응집구조 분석	80
[그림4-4] 노원구 A단지 복지관 옥상 텃밭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망 중심구조 분석	82
[그림4-5] 노원구 A단지 장애인 텃밭 이용자들의 사회적 관계망 응집구조 분석 ..	85
[그림4-6] 노원구 A단지 전체 텃밭 이용자의 중심 구조와 영향력	86
[그림4-7] 노원구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망 중심구조 분석 ..	92
[그림4-8] 노원구 A단지 장애인 텃밭 이용자들의 사회적 관계망 응집구조 분석 ..	94
[그림4-9] 대상지별 사회적 관계망 범위	99
[그림4-10] 노원구 A와 B단지 사회적 관계망 구조 비교	101
[그림5-1] 노원구 A단지 도시농업의 물리적 현황	104
[그림5-2] 노원구 A단지 장애인 텃밭	106
[그림5-3] 노원구 A단지 복지관 옥상 텃밭 내부 평면도	107
[그림5-4] 노원구 A단지 복지관 옥상 텃밭 환경	108
[그림5-5] 노원구 B단지 도시농업의 물리적 현황	110
[그림5-6] 노원구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환경	111
[그림5-7] 노원구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주변과 관련 시설	114
[그림5-8] 노원구 A단지와 B단지 도시농업 활동 운영·관리 체계	118
[그림5-9] 노원구 A단지 도시농업 활동 운영 체계의 변화	123
[그림5-10] 노원구 B단지 도시농업 활동 운영 체계의 변화	125
[그림5-11] 노원구 A단지 장애인 텃밭 배추 나눔 행사	131
[그림5-12] 노원구 A단지 복지관 옥상텃밭 배추 담그기 행사	131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최근 도시 분야의 미래 키워드로 건강도시, 고령친화도시, 안전도시 등이 강조되고 있다.¹⁾ 세계적으로 도시 정책은 주민들의 신체활동을 유도하고 주거지의 그린 인프라를 향상시키는 등 건강한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통합과 포용 도시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²⁾ 이를 통해 많은 도시들은 소득 수준과 연령대를 고려한 주거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저성장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견이 늦춰지면서 2%대의 경제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고, 빈부 격차에 따른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과 배제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고령사회의 도래를 앞두고 있다.³⁾ 사회적 안정망이 빈약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소외로 연결되고, 사회적 격리로

1) 미래라이프 트렌드 보고서(2013)에 따르면 2030년 서울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2.3%를 차지하는 고령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소비패턴, 복지서비스 및 라이프 스타일 등 전반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건강이 중요한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2016년 10월 에콰도르에서 개최된 유엔 해비타트 세 번째 회의에서는 유엔 해비타트Ⅲ 新도시의제(new urban agenda)로서 '도시에 대한 권리와 모두를 위한 도시(The Right to the City and Cities for all)'가 강조되었다. 모든 거주민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필요한 공유재로서 도시의 점유, 향유, 생산 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었다.

3) 국제연합(UN)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2018년에 고령사회(14%), 2026년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약 4배인 49.6%로 노인자살율과 함께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OECD, 2015).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응한 도시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 특히 저소득 노인 계층은 사회구조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이므로 정부의 복지 정책이 집중될 필요성이 있다. 정부 복지정책 가운데 주거복지는 주거가 삶의 기본을 이루는 요소이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영역이다. 현 정부는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영구임대주택 정책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거주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복지 대상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주택 유형이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고 비정기적인 저소득 노인계층에게 있어서 영구임대주택은 매우 중요한 복지정책 수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이 밀집한 영구임대주택은 65~7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약 70% 이상을 차지한다.

최근 영구임대주택 거주민들의 건강과 주거환경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⁴⁾. 임대주택 거주자 대다수는 신체기능 저하, 사회적 역할 축소, 부족한 경제력으로 인해 불신과 소외, 주변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정유진, 이세규, 2015)⁵⁾. 영구임대주택의 격리된 공간구조는 거주자에 대한 지역사회적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고, 거주자 간 낮은 사회적 관계망의 원인이 되고 있다.⁶⁾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연간 자살자수

4) 영구임대주택은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 양식인 공동주택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공동주택은 연간 이주율이 20%를 넘나들 정도로 정주성이 부족하고 사회와 이웃에 대해 폐쇄적인 사적공간의 기능을 하고 있다(장세훈, 2009). 다른 주거형태 보다 내부지향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사람들이 이웃으로부터 고립감을 느끼고 친밀감이 결여되는 문제를 갖는다(Madge, 1965; 우룡, 1994). 거주자들 간 접촉이 없는 고립된 삶과(한상복, 1978) 개인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생활환경은 인간소외, 공동체 의식 부족의 이웃 관계가 해체되는 문제를 발생 시킨다(강준수 외, 2014).

5) 스트레스와 우울증 경험률은 각각 31.5%, 16.3%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각각 28.6%, 11.5%)에 비해 높다.

6) 2045 서울 미래보고서(2016)는 향후 20~30년 내 환경오염(62.7%), 주거비(35.1%), 살인율(42.2%) 및 폭행률(46.0%)의 증가, 사회적 유대(-40.0%)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연결망의 약화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3)가 발간한 How's Life?(Measuring well-being)

39.21명)이 판자촌 주민(29.84명) 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옥, 김주영, 2016). 자살률이 높은 주거 유형은 이웃 거주 공간과의 단절, 교류 공간 부족과 상관성이 있으며, 내·외부 공간 네트워크의 연결성 여부가 자살률을 결정짓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옥, 김주영, 2015). 주거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거주민의 사회적 관계망과 같은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주거 공간을 개방적이고 상호교환적인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관계망은 소속감, 사회성이라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해 줌으로써 개인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Bloom, 1990). 그러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일반적으로 이동하기 어렵고, 제한된 활동공간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노년층은 사회 및 건강과 관련된 변화로 인해 작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Kemperman, A. and Timmermans, H., 2014).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하고,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사람들은 정신 및 신체적 건강상의 문제가 크다(Seeman, 1996). 국가인권위원회(2003)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된 빈곤층에게는 주거지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상호부조를 통한 빈곤 적응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관계는 교제 및 정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비상시에 지원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사회자본이라는 것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어려움이 닦혔을 때 의존할 친척, 친구, 이웃이 있는가?”라는 질문(Social support 부문)에 한국인은 72%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OECD평균인 9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사회관계망 지수는 10점 만점에 0점으로 조사대상 34개국 가운데 꼴지를 차지하였고 건강 31위, 환경 30위, 생활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점으로 29위에 머물고 있다. ‘OECD Health Data 2014’에서 한국의 자살률은 조사대상국들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인 노인 10만 명 당 자살비중은 79.7명으로 사회와 가족의 외면 속에 빈곤과 소외감 등이 주원인이다.

(이정숙, 이인수, 2005). 실제로 1~2인 가구 비율이 높고 신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거주민에게 이웃관계는 건강 및 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정유진, 2014)⁷⁾. 저소득층의 커뮤니티 결속력은 주거지 내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하고 빈곤으로 인한 결핍을 상호부조(mutual aid)를 통해 보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의 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Seo and Chiu, 2014, Forest and Kearns, 2001; Galabuzi and Teelucksingh, 2010; 서보경, 2010). 따라서 취약계층은 서로 돕는 협력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은 개인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의 협소한 주거공간과 노후화된 시설은 취약계층의 활동성을 높이기엔 한계가 있다.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인 놀이터, 운동시설 등은 연령대가 높은 거주민에게 활용률이 낮은 공간이다. 휴식 공간, 산책로, 공원 등은 이웃 간의 접촉과 교류를 위한 공동체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기에 미흡하다.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으나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시설과 교류를 위한 활동 공간이 부족하고, 다수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관, 주거복지센터, 건강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나 실내 활동 위주의 교육과 치유 목적이 강한 프로그램으로 주민의 참여도가 다소 낮고 수동적이다⁸⁾. 또한 개인의 건강 이상 또는 동반자 간병에 의해 외부 활동이 제약되거나 신체부자유자 및 만성질환자의 거주 비율이 높아 단지 내 반

7) 경제적 또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일반 가구(6.36%)에 비해 취약계층(16.97%)이 이웃에게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한국복지패널, 2014)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은 친구나 이웃관계가 건강 및 생활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정유진, 2014).

8) 서울시 노원구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지원 활동의 실태를 파악한 내용이다. (인터뷰: 2016년 11월 25일)

사회적 현상에 대한 불안으로 외부 활동 의지가 매우 낮은 구성원이다. 때문에 주거단지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접촉, 교류, 협력 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단순히 소모임의 공간을 조성하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이 아닌 강한 활동 동기부여(activity motivation)가 가능하고 공동의 기반 형성과 협동 촉진, 개인의 건강 만족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적 기능의 공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교류 증진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기여하는 도시농업에 주목하였다. 도시농업은 지역 외부의 조직이나 단체, 개인 등 지역 내 거주민과 지역 외부의 도시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공의 장소를 제공해주고 ‘사회연결망’을 향상시키며 지역민들을 조직화하는데 기여한다(Glover, 2005; 노희경, 2012). Donna(2000)는 커뮤니티 가든이 이웃 간 사회적 상호작용과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유용한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고, Flachs 외(2010)는 공동체 텃밭이 사람들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회적 장소로 이웃들 간의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며 감시효과가 있어 여러 가지 유해환경으로 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고 교육적 효과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텃밭에서의 원예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고 사회적 유대감을 갖게 하며 경험이 많은 주민이 다른 주민을 도와줌으로서 지역에서 그들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김재연 외, 2013). 무엇보다 생산 활동으로 반복적인 옥외활동을 유도하고 생명 돌봄 및 나눔의 공간으로서 교류와 협력에 강한 동기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다른 커뮤니티 활동과 차별된다. 실제로 최근 영구임대주택에서 마을 공동체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농업 활동이 장려되고 있다. 서울시와 구청,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로 칭함)가 협력하여 영구임대주택에 ‘주민 공동체 활성화 텃밭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공공차원에서의 환경개선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 사

업의 취지이다. 노후화된 단지에 입주민의 연령이 높아지고 협소한 외부공간의 활용과 제한된 커뮤니티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주민들이 함께 식물을 가꿀 수 있는 텃밭 공간을 제공한다. 텃밭이 조성된 이후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거주민들이 운영을 전담하는 체계이다.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이지만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의 텃밭 수요⁹⁾를 고려할 때 향후 확산 가능성이 있으며 특수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회와 제약 요인 등을 현 시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도시농업활동이 취미, 여가, 학습, 체험 등에 목적이 있다면 취약계층에게 있어서 도시농업활동은 주거복지의 수단으로서 교류, 협력 및 최소한의 건강 유지와 상호 부조 관계 형성을 통한 소외와 불신 제거, 개인의 건강증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도시농업의 활용 방향을 모색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농업 활동이 취약계층의 교류 증진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농업을 활용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9) 영구임대주택 거주민들의 텃밭 수요는 관에 의한 공식적인 지원 외에도 확인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보면 불법경작이지만 주민 주도로 비공식적인 그룹을 형성해 단지 내 조경용지, 자투리땅, 인근 공원 및 산림 등에 텃밭을 가꾸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제 2절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도시농업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노원구 영구임대주택단지 2곳(이하 ‘A단지’, ‘B단지’로 칭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세대수와 주변 입지조건이 다르나 거주자의 소득수준과 유형, 아파트 시설과 지원되는 활동이 유사하며 영구임대주택의 불신, 소외, 고립적인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다. 연구대상지의 텃밭은 규모와 이용기간, 운영주체와 운영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위치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공동체의식 함량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특히 A단지의 장애인 텃밭과 B단지의 주민 공동 텃밭은 2015년 SH공사에서 ‘주민공동체활성화 텃밭지원 사업’에 의해 임대주택의 주민 소통을 위해 단지 내 유휴공간을 텃밭으로 조성되었다. 또한 A단지의 복지관 텃밭은 외부활동이 매우 낮은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원예치유와 건강증진, 공동체 형성을 위해 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시간적 범위

아파트 단지에 도시농업이 도입된 시기부터 2017년 현재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도시농업 활동 현황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인터뷰조사, 설문조사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8차례 이상 실시하였다. 기타 연구에 필요한 기초통계 자료, 조사대상지 현황 자료는 2017년 기준의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3. 내용적 범위

첫째, 취약계층의 특징과 도시농업 활동을 통한 이웃 간의 교류 빈도와 목적 등 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둘째, 도시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수준을 분석하였다. ‘사회연결망분석기법(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단지 내 이웃과의 교류 범위와 규모 등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새로운 관계망의 형성, 기존 관계망의 강화 또는 확장 측면에서 특성을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교류수준, 신뢰형성정도, 사회참여의식 등 개인이 체감하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하였다. 셋째,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농업의 속성을 해석하였다. 크게 물리적 측면, 운영·관리적 측면, 활동적 측면에서 도시농업의 어떠한 요인이 취약계층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도시농업을 활용한 사회적 관계망 제고 방향을 모색하였다.

제 2장 이론 연구

제 1절 취약계층과 사회적 관계망

1.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

취약계층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거나 이러한 위치에 처할 위험이 높은 층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미숙 외, 2010). 주로 신체적·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을 포함한다. 이 외에도 재소자나 군인 등 특정 상황에 처해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적 혜택을 향유할 수 없는 계층들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규정할 수 있다(신선정, 2008). 취약계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대략 ① 소득을 고려하여 빈곤계층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는 견해, ② 취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계층(청년, 장애인, 노령자 등)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는 견해, ③ 인적 속성을 바탕으로 여성, 여성가구주, 고령층, 저학력층, 장애인, 소수인종자,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교도소 출소(예정)자 등의 인구학적 집단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는 견해 등 세 가지의 입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준섭, 2012). 이들 계층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공공 정책의 관심과 지원 없이는 사회 활동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계층이며, 문화 활동의 영역에서도 참여가 매우 취약하다(김세훈 외, 2005).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 2조에서는 취약계층의 기준을 가구 월평균 소득이 가구 전국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사람,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 등으로 정의한다. 우리나라 기초생

할수급자는 2016년 기준 약 153만 명, 이 중 65세 이상 노년기 수급자 수 약 42만 명(27.3%)에 이르고 2015년 기준 장애인 약 249만 명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약 65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를 차지한다.¹⁰⁾

본 연구에서 취약계층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를 지칭한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¹¹⁾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법 제 60조에 따른 국민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거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등이다.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노약자·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무장애화 사업, 노후시설·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장애인, 알콜중독자, 자살예방 등을 위한 복지 서비스 강화 등이다. 무엇보다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활동,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은 신체부자유자의 비율이 높고 치매, 정신지체 등 만성질환자가 다수 거주한다. 지속된 빈곤, 일탈과 반사회적 행위 때문에 외부 활동이 제한적이고 거주민 간 소외, 불신 문제 등에 의해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이 낮다. 주민자치조직 또한 침체되어 활성화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단지의 노인 1인 가구

10) 통계청 보도자료 2016년 고령자 통계와 보건복지부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눈에 보는 2016 장애인 통계 자료의 내용을 근거로 하였다.

자료: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11)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주택을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공공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 중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부터 50년을 임대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와 장애인 1인 가구는 심각한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자살률과 고독사가 심각한 문제이다. 무엇보다 삶의 질과 건강 측면에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열악한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협소한 주거공간과 거주민의 연령대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간 구성으로 외부활동이 제한적이다. 단지 내 시설은 놀이터,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 대다수의 노인과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연결성이 낮고 상호 격리된 공간 구조, 주변 지역으로부터 겪는 편견과 사회적 배제, 제한된 옥외활동 시설과 공간 등의 문제는 취약계층의 활동성을 더욱 위축시킨다. 이러한 문제는 이웃 간 신뢰도 약화, 주거 공동체에 대한 낮은 자부심, 낮은 자존감과 약한 사회참여를 비롯해 소외감과 우울 등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단지 내 공공장소에서 음주, 비행, 자살과 같은 일탈과 반사회적 행동이 비교적 자주 발생한다(서보경, 2014).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은 주거 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외부활동이 낮아지면서 이웃 주민들 간 교류 및 신뢰 역시 약화된다.



〈그림 2-1〉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의 특징

2. 사회적 관계망의 개념과 특성

(1) 사회적 관계망의 개념

인간은 삶과 죽음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1950년대 사회인류학 분야를 시작으로 사회복지학, 경영학 등의 분야에서 인간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합의된 개념은 없다.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일련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itchell(1969)은 사회적 관계망을 ‘한정된 일군의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특정한 연계의 집합이며, 전체로서 이러한 연계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은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을 해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라고 정의한다(이정희, 2006). Wellman(1981)은 사회적 관계망을 특정 유대를 지닌 관계들의 집합체라고 하였고, Antonucci(1985)는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들의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적 관계망은 개인의 삶에서 맺는 모든 사회적 대인 접촉을 포함한다. 즉, 가족, 친구, 친척, 이웃 등 비공식 사회 관계망과 종교단체, 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공식 사회 관계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박윤희, 2016). 사회적 관계망은 개인이나 가정의 생활공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친족, 친구, 이웃, 동료, 자조집단 등과의 관계를 포함하며, 자원의 교환, 정보제공, 그리고 대처기술의 터득 등 도구적 기능과 정서적 지지, 자아동정과 가치가 있음을 느끼도록 하는 정서적 기능을 제공한다(장연진, 2001).

한편 사회적 관계망을 사회적 지지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 학자들도 존재한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들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하는 구조가 ‘사

회적지지'라고 하는 비교적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탐색해왔다(박영란 외, 2013).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얻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도구적 지지를 통칭하여 사회적 지지라고 하며, 사회적 관계망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사회적 지지를 주요 경로로 설명하고 있다(Berkman et al., 2000). 정서적 지지는 신뢰, 애정, 감정이입, 친밀감 등을 포함하며(박영란, 2013), 평가적 지지는 수용, 긍정적 피드백, 긍정적 평가를 포함한다. 정보적 지지는 사회적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며, 도구적 지지는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설명된다(House, 1981). 저소득 계층은 정서적 및 도구 지원의 주요 원천인 소규모 지역 기반 네트워크를 보유한다(Campbell and Lee, 1992; Fischer, 1982; Stack, 1974; Elyzabeth Gaumer and Ahuva Jacobowitz, 2014). Morgan(1989)은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둘 경우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은 그것이 지지의 원인으로 작용할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왜곡될 수 있다고 말한다. Rounds(1987) 역시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망을 동일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망이 제공할 수도 혹은 못 할 수도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적 특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적 지지라는 긍정적 성격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부정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는 것이다(박수진 외, 2011).

분석도구로서의 사회적 관계망은 '특정 인구집단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전체적 관계망(whole network)과 '개인이 직접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사적 관계망(personal network)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체적 관계망은 특정 사회적 구조가 사회적 체계를 연결 혹은 단절시키거나, 질병과 정보의 유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연구에 주로 사용된다. 반면, 사적 관계망은 개인의 행동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을 평가하는 연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을 사적 관계망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영구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단지 내 텃밭에서의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 타인들과 맺는 사회적 관계의 집합’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

사회적 관계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을 구분해 분석요소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관계망 개념과 같이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다른 해석을 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을 주로 양적 차원의 구조적 특성과 질적 차원의 기능적 특성으로 구분한다(허선영, 2003). 구조적 특성은 사회적 관계망의 전체적인 양상을 의미하며, 개인의 사회적 환경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틀로서 활용된다. 구조적 특성은 주로 크기, 밀도, 유형, 거리, 빈도를 활용해 측정된다.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는 구성원들이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의미한다. 사회적 관계망의 밀도는 존재할 수 있는 구성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제 관계의 비율을 말한다(Gallo, 1982). 사회적 관계망의 유형은 사회적 관계망의 다양성 또는 동질성을 의미한다. 사회적 관계망의 거리는 시간이나 공간 차원에서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들 간의 위치와 관련된 것으로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용이성을 의미한다(김용진, 2012). 사회적 관계망의 빈도는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 횟수를 뜻한다(김아름, 2015). 기능적 특성은 관계의 질과 내용을 의미한다(Kef et al., 2000). 기능적 특성은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들이 개인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밝혀내는 것에 초점을 둔다(허선영, 2003).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들은 개인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

각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의 긍정적 기능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 개념으로 정의된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 간 또는 개인과 집단 간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집합체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위기 시 심리적 자원을 동원하여 정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과업을 부담해주며, 금전·물질·도구·기술 및 인지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원숙, 1995).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젊은 시절에는 주로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얻을 수 있으나 노년기에는 은퇴와 함께 가족 및 이웃과의 관계나 보행 가능한 생활권 내에서의 활동을 통해 얻는다는 특징이 있다(박성복, 2012). 사회적 지지의 구분은 정서적 지지(신뢰, 애정, 감정이입, 친밀감 등), 도구적 지지(실질적 도움의 교환, 욕구 충족의 효과를 갖는 실제적 도움 등), 평가적 지지(수용, 긍정적 환류, 긍정적 자기 평가 등), 정보적 지지(사람들이 스스로 돕도록 돕는 것), 사회활동적 지지 등 학자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치한다. 사회적 관계망과 취약계층 복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직접적으로 개인의 건강과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요 효과(main effect) 가설과 사회적 관계망은 스트레스가 개인의 건강과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한다는 완충 효과(buffering effect) 가설을 입증하는 연구로 양분된다(박영란 외, 2013). 완충효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충분할 경우 사회적 지지를 통해 이를 보다 쉽게 극복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한명순, 2011). 한편 주효과는 개인의 웰빙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안정적인 대인관계 그 자체이며, 개인에게 제공되는 자원은 지속적 역할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오미영, 2014).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대인관계의 질적 또는 양적 증가와 감소는 개인의 자아정체감,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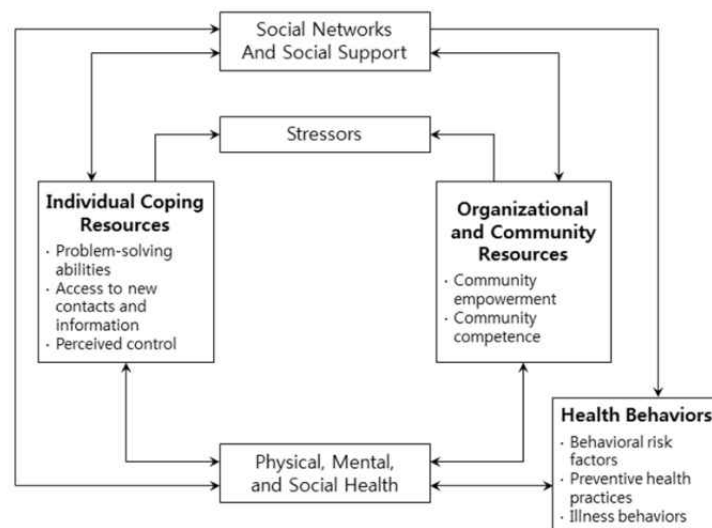
정감, 통제감 등에 영향을 미친다(김아름, 2015).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건강하며(Kaplan, 1993), 특히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사회적 관계망은 부정적 기능을 미치기도 한다. 사회적 관계망은 항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은 경우에 따라 보다 심한 스트레스를 제공하고,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Germain and Gitterman, 1980). 사회적 관계망의 부정적 기능은 사회적 간섭, 사회적 방해, 사회적 갈등, 사회적 비난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비난 대상에 대한 혐오 등의 부정적인 정서의 표출, 성격이나 행동, 노력에 대한 비난, 도구적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행동 등으로 정의한다(Rook, 1984).

3.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망 연구는 저소득층 노인과 여성 노인, 도시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다수이다. 사회적 관계망은 소속감, 사회성 등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고,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Bloom, Joan, 1990). 사회적 관계망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경로는 다음과 같다(Berkman and Glass, 2000; Cohen, 2004; Heaney and Israel, 2008; Umberson and Montez, 2010). 첫째, 건강행위는 건강, 이환률,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데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건강정보가 쉽게 전파될 수 있고, 건강과 관련된 사회규범이 공유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강 지향적인 행위들은 지지를 받고, 규범에 어긋난 행위들은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사회 심리적 경로로 사회적 관계망이 개인의 대처 능력이나 조직과 지역사회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 셋째, 생리적 경로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관계망이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내왔다. 신체적·정신적 차원에서의 건강한 노화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친구들과의 접촉빈도가 높을 때 사회적 네트워크는 건강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Smith et al., 2002). 초고령자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는 네트워크 자원이 결여되기 쉬우므로 사회적 네트워크의 규모는 연령과 상관성을 가진다고 분석하였다(Keating et al., 2005).



〈그림2-2〉 사회적 관계망과 건강과의 관계 모형

출처: Heaney & Israel(2008)

사회적 관계망이 낮은 사람일수록 조기에 사망할 확률이 높으며, 심혈관질환과 전염성질환의 발생률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Seeman, 1996; Berkman and Glass, 2000; Cohen, 2004). 또한

소규모 사회적 네트워크, 긴밀한 관계 및 사회적지지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은 모두 우울한 증상과 관련되어있다(Ichiro Kawachi and Lisa F. Berkman, 2001) 가족, 친구, 사회단체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망은 그 자체로서 개인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 안정감의 원천을 제공하게 되어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이미숙, 2010). 사회적 관계망은 노인, 저소득층, 한부모 여성 등 취약계층의 우울감과 행복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현정, 2003; 이정영, 2007; 오인근 외, 2009; 김미영, 2010). 그러나 관련 연구에 따르면 같은 동네에 살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좁고 약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영아, 2016).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 또는 확대하는 것은 일반계층에 비해 취약계층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육체적,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은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주거, 복지, 환경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성이 크다.

최근 보건 분야에서는 건강 지원과 관련하여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공원녹지, 정원, 텃밭, 경관, 보행로와 산책로 등)은 주민들의 건강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최은진 외, 2012).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이 정주환경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에서는 취약계층이 공동체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돕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실내 모임공간을 만들어 상시성을 확보하면서 평상, 텃밭 등과 같은 실외 시설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오현주, 2015). 세계보건기구가 ‘모두를 위한 건강(health for all)’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요소로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

다. 건강은 개인 행태와 의료 서비스 차원을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의 생활 환경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그림2-3〉 건강의 결정 요인

자료: Braveman, Egerter와 Williams, 2011; p.383

제 2절 사회적 관계망 형성 관점에서 도시농업

1. 도시농업의 개념과 기능

도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 행위로 작물재배와 동물 사육의 과정에서 농산물의 생산과 건강증진,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대기환경 개선 등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이득까지 포함된 농업활동을 말한다(오제남, 2015). 건물 옥상텃밭, 상자텃밭, 정원텃밭, 주말농장 등의 도심 농사와 도시 근교의 1 ha 규모의 소농업, 자급농업, 가족농업을 통칭해 도시농업이라 일컫는다(Bir research group, 2011; 오제남, 박혜선, 2015). 유사한 용어로 통용되는 커뮤니티 가든은 커뮤니티(communitiy)와 가든(garden)의 합성어로 다양한 규모의 자연형 오픈스페이스를 개인이

아닌 공공이 영위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한주형, 장동민, 2014).

도시농업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주형, 장동민, 2014). 첫째, 도시민의 자급자족 취미활동과 농업인의 상업적인 농업 형태이다. 둘째, 유휴지나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농업 활동이다. 셋째, 도시행정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농업의 행태로서 지속가능한 생태공동체로서의 다원적 활동이다. 넷째, 도시와 인근지역에서 생태적이고 유기적인 방법의 농업활동이다. 다섯째, 도시에서 농업을 복합 산업 요소로 정의하고 농업생산을 위해 보존하는 활동이다. 도시농업은 초기 도시 내 자투리 공간 활용과 소규모 농업 활동에서 시작하여 점차 전문화된 사업과 연구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도시농업의 역할과 기능은 점차 확장하고 있다. 식량자원의 확보와 안전한 먹거리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부터 시작된 도시농업은 심신치유, 여가·보건·휴양,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형성 및 사회복지, 친환경공간조성, 도농 균형발전 등 다기능적(multi-functional)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Choi and Oh, 2006).

2. 영구임대주택에서 도시농업의 의미

한편 도시농업은 입지조건에 따라 옥상텃밭, 주말농장, 상자텃밭, 자투리텃밭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 주거 유형인 공동주택¹²⁾은 넉넉한 조경 면적, 유휴지, 옥상 및 베란다 등 도시농업의 적용에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다(오주석, 김세용, 2014). 조경설계기준에서도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일상생활을 통해 접근하고 도시 영농행위를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도시농업의 적지로 강조하고 있다(조경설계기준, 2013). 서

12) 통계청 「2014년 개인별 주택소유통계」 보도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파악된 주택 총 수는 1,592만 1천호이며, 이 중 아파트의 총 수는 944만 9천 호(약 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울시는 2016년 건축 조례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건축조례 개정안)에서 현행 5,000㎡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허용한 텃밭 산입 기준을 1,000㎡로 낮추고, 조경면적에 산입하는 텃밭의 비율도 절반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는 것을 입법예고 했다. 텃밭 조성을 확대할 경우 우려되는 상시적인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 관리체계 미흡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공동주택단지 거주민 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매년 친환경 실천·체험으로서 텃밭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도시농업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텃밭의 위치, 운영방식 등 시민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도보 10분 거리 주거생활권 주변에 도심텃밭을 지원하고 있다. 아파트 베란다, 옥상, 자투리 공간을 이용한 이동형 텃밭으로 상자텃밭, 틈새텃밭, 옥상텃밭, 도심형 비닐하우스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활동 목적은 기존에 취미·여가형 도시농업에서 공동체문화 활성화와 수익창출을 도모하는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다. 재배작물 역시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는 약용작물과 미니과실수, 화훼류 등으로 다양하게 선호되는 추세이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주민들의 약 72.6%가 도시농업 활동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임주호 외, 2012). 소비자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반영해 건설사는 아파트 조경 계획과 커뮤니티 시설 계획에 공용 텃밭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김민선, 김세용, 2013). 건설 및 분양 단계에서 도시농업을 도입한 아파트는 주민의 인지도와 참여율이 높아 아파트 건설사의 도시농업 도입이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한편 최근 도시농업은 신체활동 증진, 영양개선 등 노인요양과 장애인 재활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 대상 방과 후 옥상텃밭, 학교폭력 관련 치유테밭, 어르신 원예치유 프로그램 등 민

간단체와 협업하여 도시농업 활동을 통한 정신적·육체적 건강 회복의 기능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개인·가족·이웃 간 화합을 통해 주변인과 소통하는 방식을 교육하고 심리적 안정과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의 사회 적응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취약계층이 밀집한 영구임대주택은 노후화된 공동주택단지로 공간의 활용이 어려워 조경용지 및 자투리땅을 활용하거나 주변 녹지에 허가 받지 않은 텃밭을 조성하기도 한다. 이에 서울시와 구청, SH공사가 협력하여 영구임대주택에 ‘주민공동체 활성화 텃밭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공공차원에서 환경개선과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다. 연령대가 높은 입주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노후화된 외부공간의 활용과 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함께 가꿀 수 있는 텃밭 공간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주민 자치조직의 운영·관리를 통해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3. 사회적 관계망 형성 관점에서 도시농업의 효용

공동체 의식은 소속감 형성, 정체성 표현, 정서적 안정, 신체적·정신적 질병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Pretty, Bishop, Fisher and Sonn, 2007). 또한 사회적 활동의 수준, 사회적 접촉, 이웃 사람과의 상호작용 등은 개인의 만족감과 삶의 질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Chapman, Beaudet, 1983; 임은실, 이경자, 2003). 장소에 함께 있으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서로 교환하고 공유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친밀감을 가지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어떤 특정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김희태, 2015). 이렇게 형성된 타인과의 유대는 건강과 건강 행동, 삶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우울감, 고독감, 소외감 등 개인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이보람, 2015). 특히 옥외공간에서의 사회적 관계 형성이 개인의 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근린환경 녹지(공원 등)와 건강의 영향을 분석한 다수의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녹지 또는 자연환경과의 접촉과 사람들이 인지하는 건강수준, 정신건강, 장수, 신체건강, 그리고 사회적 건강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Thompson, C, A., Roe, J., Aspinall, P., and Mitchell, R., 2012). 이미 신체적 활동이 기분이나 스트레스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Baron and Pretty, 2010; Penedo and Dahn, 2005). 그리고 이러한 상관관계는 일상생활 속에서 저소득 집단들에게 더 큰 관계를 나타내며(Mitchell and Popham, 2008), 특히 자연환경 체험과 정신건강 사이에서의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 사람들은 녹지를 체험할 때 의도하거나 계획한 바와 관계없이 자주 특정한 사회적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최근에는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응집력에 해당되는 지역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건강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ollero and Depiccoli, 2010; 김정희, 2014). 특히 주거환경 녹지는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과 지역 유대감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Kemperman, A. and Timmermans, H. (2014)는 주거환경의 인지된 녹지수준(greenness)(수목이나 잔디의 이용가능성)은 근린환경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만남(contacts)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녹지의 유지관리 상태는 주거환경의 안전성과도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노인들의 사회 인구통계학적 자료(성별, 나이, 사회경제적 지위, 인지된 건강수준, 심장질환 및 장애여부)와 옥외 활동(휴식활동, 신체적 활동), 사회적 접촉(이웃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가족과의 만남), 물리적·사회적 주거환경(근린환경 유형, 정원 유무, 인지된 녹지 수준, 잔디 이용가능성, 공원 이용가능성, 나무 이용가능

성, 커뮤니티 가든의 이용가능성, 녹지의 인지된 유지관리 상태, 안전성) 등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된 결과이다. 또한 인지된 녹지 수준과 주거환경에서 이웃과의 만남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거단지 내 자연친화적 조경 공간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보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이끄는 것으로 분석되었다(Coley et al., 1997). Kaźmierczak, A.(2012)는 사회적 만남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도시녹지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녔거나 실업자 및 저소득 계층 비중이 높은 동네들이 있는 도심 지역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만남은 정보가 전파되는 것을 용이하게 하며, 이를 통해 고용기회나 자원에 대한 보다 나은 인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실직자 비율이 높거나 물질적으로 결핍된 지역, 그리고 이동성(mobility)이 낮은 지역일수록 사회적 만남(social contact) 기회의 증진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농업은 대표적인 생활권 도시녹지로서 사회관계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건강 증진의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텃밭활동은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와해된 도시 공동체를 복원하고 활성화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박태호, 이인성, 2012).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접촉과 이웃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만족감과 삶의 질과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파트의 특성상 텃밭이 도입될 경우 거주 위치로부터 접근성이 높아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이용자들이 출현하여 접촉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 텃밭에 관한 지식 전달과 유용한 정보 교환을 통해 친밀감이 형성되면서 자체적으로 공동텃밭을 운영하거나 바베큐장, 쉼터 등 주변 부대·복리 시설에서 크고 작은 커뮤니티 활동과 여가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해 이웃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웃 간의 만남은 농사정보를 교류하거나 공동 작업을 함께 하는 등의 사회적 접촉으로 이어진다(이유리, 2013). 이러한 점에서 도

시농업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가족·이웃 관계의 해체 현상, 노인소외, 세대갈등, 유대감 감소와 그로 인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악화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의 지역 네트워크 강화, 이웃 간 교류 증진과 같은 사회적 기능이 주목받고 있으며(김재연 외, 2013), 공동체 형성과 건강 효용성을 밝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농업은 사람을 함께 모이게 하는 장소이다.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식과 기술을 나누고 이웃과의 접촉을 활성화하는 곳이며, 지역사회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지역 활성화의 또 다른 요소들을 키워내는 곳이다(Hou, J., Johnson, J. M. and Lawson, L. J., 2013).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결속력(social cohesion)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 교류, 가치공유와 같은 무형적인 것이 물리적인 형태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Hester(2010)는 현대도시에서 협력, 교류, 가치공유와 같은 무형적인 것이 물리적인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지식을 교류하고 발전시키는 좋은 중심 장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좋은 중심 장소란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통의 관심사로서 원하는 가치와 행위가 부합되는 장소를 의미하며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easy accessibility)을 갖추고 지속적이고 빈번한 활용(frequent use)이 가능한 곳이다. 복합적이고 융통성 있는 이용(multiple and flexible uses)이 가능함은 물론 생각이 교류되고 발전 될 수 있는 공간(source of local knowledge), 귀속감(sense of orientation)과 일체감(sense of wholeness)이 느껴지는 생태적인 특성(ecological context)이 반영된 공간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도시농업의 활동 요소를 살펴보면 텃밭이 옥외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서 취약계층에게 유용한 몇 가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도시농업은 생산 활동과 정원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반복적인 옥외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주거단지 내에 옥상, 유휴지, 조경용지 등을 활용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

반을 갖출 수 있다. 이는 지속적인 이용자들의 출연과 이웃 간에 꾸준한 대면 접촉을 유도한다. 셋째, 도시농업 활동은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생각이 교류되고 공간으로 발전 가능하다. 넷째, 협력, 나눔, 봉사 활동 과정에서 서로 돕는 가치관이 형성되고 내외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수동적인 참여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커뮤니티를 지속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도시농업의 이러한 특징은 결속력을 높이는 좋은 중심 장소로서 취약 계층에게 강한 활동 동기(activity motivation)를 부여하고 협력을 통한 공동체 기반 형성, 개인 건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표2-1〉 사회적 관계망 형성 관점에서 공동주택 도시농업의 특징

도시농업 공간의 기능	도시농업 활동 요소
반복적 옥외활동 유도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증진	생산(production of fruit and vegetables)
	정원활동과 관리(garden and project management)
사회적 접촉(social contact)	손쉬운 접근성(easy accessibility)
	지속적이고 빈번한 활용(frequent use)
	꾸준한 대면접촉(Steady-to-face contact)
생각이 교류되고 발전 되는 공간 (source of local knowledge)	교육(training and educational)
	정보 공유(share of information)
서로 돕는 가치관 형성, 자발적 커뮤니티 형성 및 지속	협력과 공동이익(Cooperation and co-benefits)
	나눔(share)
	봉사활동 (voluntary activity)
	판매(selling/distributing produ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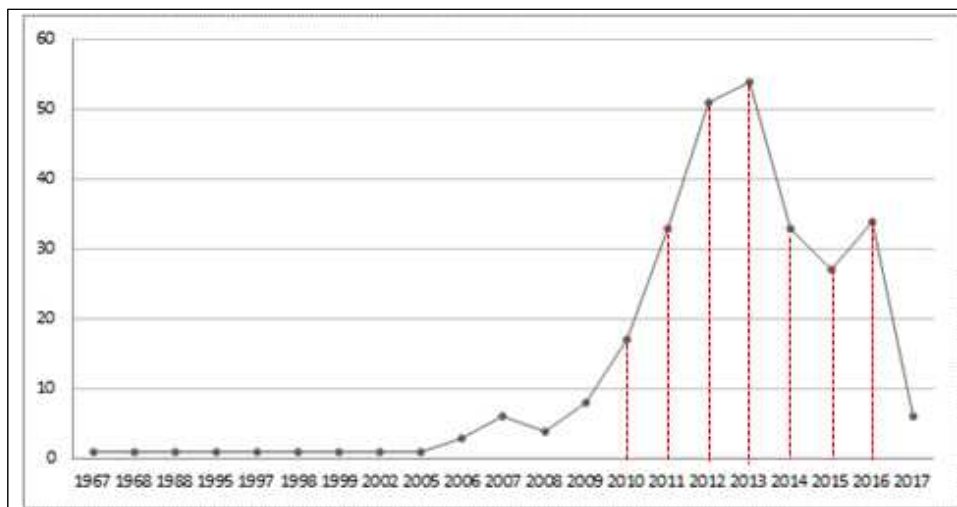
자료: Hester(2010)와 Rebecca et al.(2014)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제 3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선행연구의 고찰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도시농업’이 어떠한 주제와 함께 연구되어 왔는지 동향을 파악하였다. 도시농업 학술논문에 등장하는 키워드를 추출하여 동시출현 빈도를 분석한 것이다. 다른 연구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연구의 핵심키워드를 발견하고 그 키워드와 관련된 세부 주제를 확인할 수 있다. 각 노드(node)는 키워드의 출현빈도를 나타내고 링크(link)의 굵기는 키워드 간 연관된 수준을 의미하는데 동시출현 빈도(함께 등장한 논문 수)를 나타낸다.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많은 키워드들과 함께 자주 등장한다는 의미이다. 분석 결과에서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이 높은 것은 직접 연관된 키워드가 많다는 의미이다.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 높은 것은 여러 주제의 방향으로 확장성이 높아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주제어라는 의미로 판단할 수 있다. 키워드 중에는 출현빈도가 낮아도 연결중심성 또는 매개중심성이 높아 다른 주제와의 연결성이 강한 것이 있을 수 있다. 데이터 수집은 최근 10년 이내 ‘도시농업’과 관련된 연구의 주제어를 연도별로 정리하여 자주 등장한 핵심 키워드와 연결된 매개 키워드를 확인하였다. 분석에 앞서 국내 연구는 유사한 용어로 통용되는 ‘도시텃밭’, ‘커뮤니티가든’, ‘공동체정원’ 등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285편의 논문과 199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해외 연구는 공동체 형성과 건강에 관한 주제어와 ‘community garden’, ‘urban agriculture’, ‘urban garden’, ‘urban farm’, ‘city farm’ 등의 용어를 함께 검색하여 총 76개 논문과 163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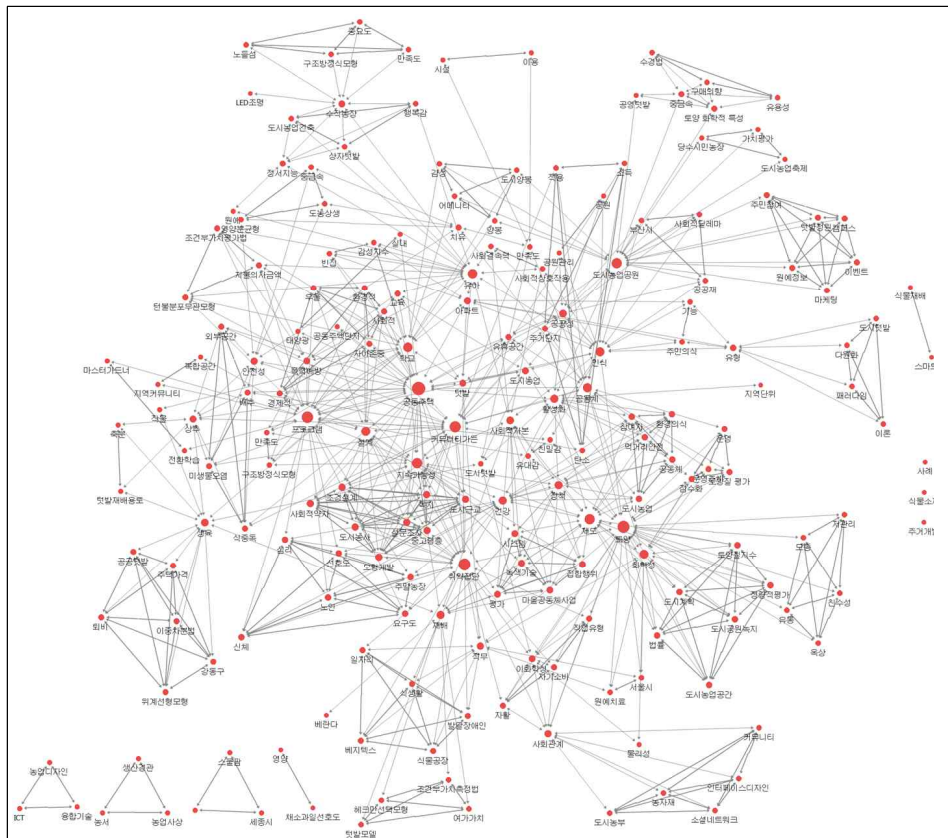
1. 국내 연구 동향

국내에서 도시농업 연구는 1967년도에서 2009년까지 ‘공동체’, ‘활성화’, ‘텃밭’, ‘옥상’ 등의 주제로 연구의 빈도가 다소 낮았다. 그러다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주민참여, 녹색성장, 사회 통합 등의 주제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가장 연구 빈도가 높았던 2012년에서 2013년도에는 건강도시, 고령화, 사회적 관계, 치유, 쇠퇴지역, 라이프 스타일, 근린재생, 스트레스, 우울 등 다양한 사회 이슈로 주제가 확장 되었다¹³⁾. 그리고 최근 2014년에서 2017년까지 공동주택, 취약집단, 건강, 사회적 자본, 복지, 사회적 약자, 안전성, 폭력 예방 등의 주제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그림 2-5).



〈그림2-4〉 국내 도시농업 연구 빈도

13) 1967년부터 2013년 까지 키워드 분석은 총 198편의 논문의 주제어를 분석한 결과이다.



NETWORK DEGREE CENTRALIZATION INDEX 14.726%

주요키워드	빈도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주요키워드	빈도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공동주택	7	0.181818	건강	2	0.080808
취약집단	4	0.161616	재배	4	0.075758
토양	6	0.156566	공공성	3	0.065657
프로그램	9	0.151515	생육	4	0.065657
커뮤니티가든	5	0.141414	사회적 자본	2	0.065657
자숙가능성	3	0.126263	도시근교	1	0.060606
도시농업공원	7	0.121212	복지	1	0.060606
제도	3	0.121212	모형개발	1	0.060606
유아	5	0.10101	사회적약자	1	0.060606
학교	5	0.10101	중고령층	1	0.060606
인식	5	0.09596	사회관계	2	0.055556
설계	2	0.090909	폭력예방	2	0.055556
공동체	4	0.090909	안전성	2	0.055556

<그림2-5> 국내 2014-2017년 도시농업 관련 주요 연구 키워드 네트워크

국내 도시농업과 공동체 관련 연구는 도시농업의 공동체 의식 형성 효과에 관한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대부분 주말농장이나 도시농업공원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프로그램 및 운영 방식에 따른 공동체 회복 효과를 밝히고 있다. 박태호와 이인성(2012)은 도시농업 프로그램의 운영과 공동체 의식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이차희, 손용훈(2014)는 도시텃밭 운영주체와 방식에 따른 공동체 형성 효과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밖에 도시농업의 치유기능(농촌경제연구원, 2014), 도시농업의 참여 만족도와 지속가능성의 관계(최은영, 정운남, 김세용, 2014), 도시농업 다원적 기능의 가치 평가(허주녕, 권혁현 2014)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도시농업이 정착됨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나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최근 경기연구원 이양주, 오강임(2015)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의 관점에서 도시농업 공간이 공공의 장으로서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활동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의사로 구성된 공동체를 형성시키며, 내부 지역민 뿐 아니라 외부의 개인들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밝히기도 했다. 오제남 외(2015)는 도시농업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고 텃밭을 이용한 커뮤니티 활성화 요인과 프로그램 및 공간 특성을 분석하여 도시농업 복합 공간을 제안하였다. 주혜선 외(2015)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이 가족의 유대감과 친밀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프로그램 만족도 및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정남식 외(2016)은 도시농업이 청소년들의 인성 형성 및 행동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완화 하는 도시농업의 기능을 실증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도시농업 연구는 도시농업 공간 확보, 적용 및 활성화 방안, 이용행태 및 인식분석,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에 따른 공동체 형성 효과에 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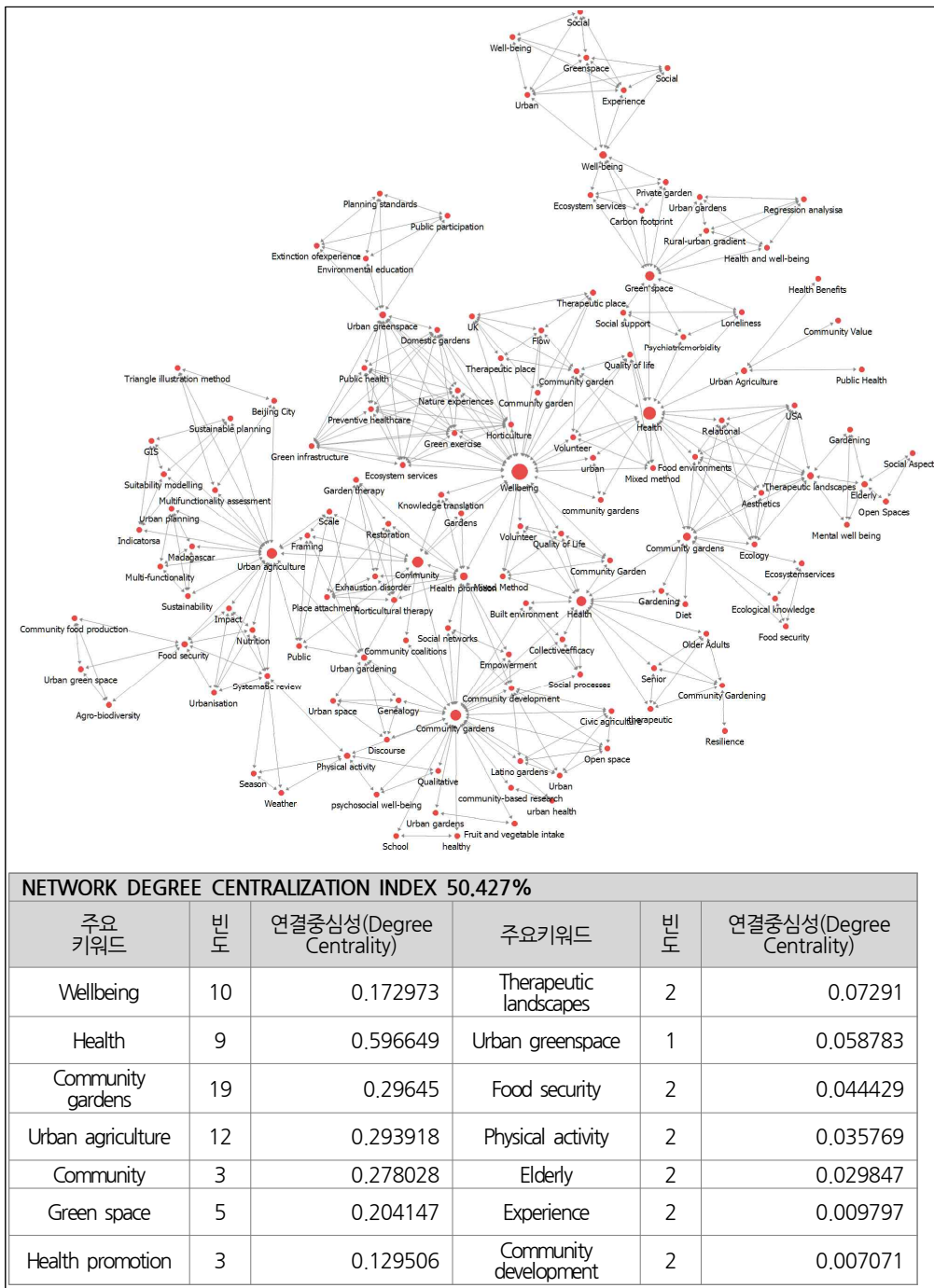
공동주택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는 공동주택에 도시농업을 도입하기 위한 계획 지표 도출과 설계 반영 및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가 다수 확인되었다. 박은지와 이연숙(2011)은 주민참여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커뮤니티가든 계획의 전략을 제시하였고, 김미향과 조동범(2010)은 일상의 주거 공간에서 텃밭 이용자들 간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정원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최병덕(2009)은 아파트에서 교육 공간, 여가활동 장소, 커뮤니티 공간의 기능을 하는 텃밭의 가치와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작활동의 효익에 대해 분석하였다. 김재연 외(2013)는 공동체 텃밭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을 도출하여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건축·조경 계획적 접근으로 도시농업의 조성 및 계획 방법론을 도출(오주석, 김세용, 2014)하고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방안(김세용, 2014)과 도시농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박인권, 이민주, 2014), 도시농업의 공간적 특성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 연구(박세준, 2014)와 아파트 텃밭 설계의 구성 요소 분석(김이선, 2015), 텃밭 운영 현황 및 시사점 도출(김민석, 정운남, 김세용, 2016)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대부분 실태조사와 계획요소 및 지표 도출, 적용과 활성화 방안, 사례 분석 등에 관한 연구이다. 반면 실제 도시농업이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규명한 연구는 미흡하다. 특히 최근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삶의 질과 건강증진 측면에서 거주민의 신체활동과 심리적 영향,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도시농업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주거복지 측면에서 노인, 저소득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의 도입과 활용 가능성, 효과를 규명한 연구가 미비하다.

2. 해외 연구 동향

해외에서 도시농업 연구는 사회소통 및 교류 증진과 함께 건강 이슈가 핵심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Imas Agustina, Ruth Beilin(2012)는 영국 공공지원 주택(social housing)의 커뮤니티 정원 프로그램이 이민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의 공간으로써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이민자계층, 청소년, 저소득층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와 소득 창출을 유도하는 커뮤니티정원이 발전해 왔다. Marco Clausen, 2016은 독일의 경우 버려진 도시 공간에 사회적이며 생태적인 정원을 가꾸는 것, 도시와 농촌의 지식 공유와 예술가 및 활동가들의 협업을 통한 문화적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Toshiya Kotani(2016)는 일본에서 매년 긴급 재난 방지 훈련을 실시하는데 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농지의 활용이 하나의 이슈라고 소개하였다. 시민들에게 개방된 농지를 활용함으로써 긴급 식량 서비스 훈련을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공동체는 재난이 발생할 때 서로 돕도록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16년 재난 피해 감소를 위한 도시 지역 내의 농지를 활용하는 공동체 지원 프로젝트를 착수하기도 하였다. Andrew Tsuiika(2016)는 홍콩, 싱가포르,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외부적인 변화 뿐 아니라 내부적 변화를 일으키는 노력 등 다양한 목적의 도시농업 활동이 시도되고 있다고 하였다¹⁴⁾. 또한 해외 연구는 사회적 기능과 더불어 개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정원(community garden)에 주목하고 있다. Jonathan Yotti Kingsley, Mardie Townsend and Claire Henderson-Wilson(2009)은 커뮤니티 정원이 건강과 웰빙에 기

14) Marco Clausen(2016), Toshiya Kotani(2016), Andrew Tsuiika(2016)의 내용은 제5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국제컨퍼런스 자료집의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다.

여하는 효과에 대해 10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소속감, 사회적지지, 가치공유, 정신적·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었다. Ohmer ML, Meadowcroft P, Freed K, Lewis E(2009)는 커뮤니티 정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은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고, Imas Agustina, Ruth Beilin(2012)은 커뮤니티 정원이 더 나은 건강과 웰빙을 촉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구성원들 간의 일반적인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사회적 유대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owler D(2010) 역시 자연환경과의 접촉은 정신과 스트레스 회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과 웰빙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주거환경에서 커뮤니티 정원은 지역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만남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녹지의 주거환경의 안전성과도 관련이 있다. Ohly H et al.(2014)은 공동체 정원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인 영향 요인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공동체 정원의 주요 활동인 봉사활동(voluntary activity), 정원과 프로젝트 관리(garden and project management), 사회적 접촉(social contact),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생산(production of fruit and vegetables), 판매(selling/distributing produce), 교육(training and educational) 등이 지역의 커뮤니티(community),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형성,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증진, 치유(therapeutic), 영양(nutritional) 개선, 금융과 경제(financial and Economic)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이는 곧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어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해 ‘community garden’, ‘urban garden’, ‘urban agriculture’와 공동체 형성 및 건강에 관한 최근 주제를 파악한 것이다(그림 2-6).



〈그림2-6〉 해외 도시농업 관련 주요 연구 키워드 네트워크

3장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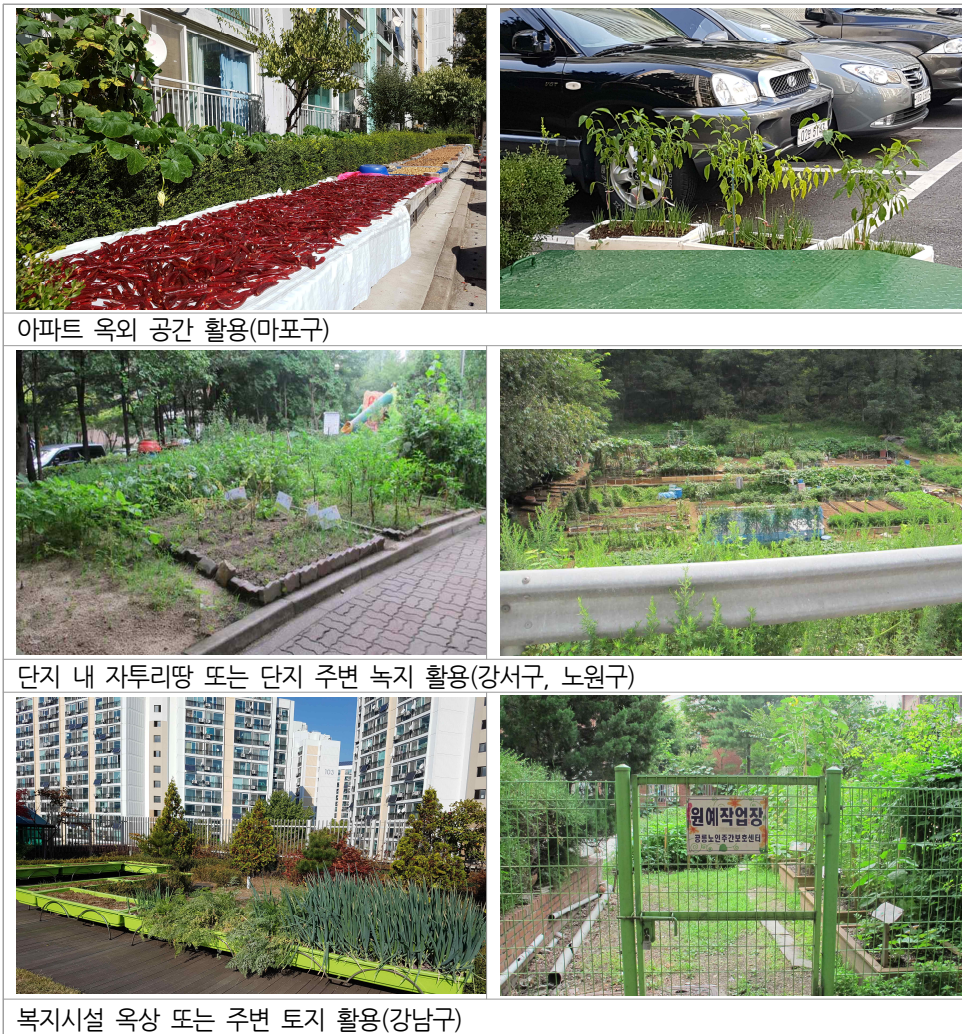
제 1절 연구 대상지의 선정

본 연구는 도시농업 활동이 취약계층의 교류 증진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대상지 선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이 밀집한 서울시 영구임대주택을 방문하여 도시농업 활동 현황을 파악하였다. 영구임대주택 총 20곳¹⁵⁾ 중 강남구, 강서구, 노원구, 마포구에 위치한 단지에서 도시농업 활동이 확인되었다. 활동은 주로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주민 센터, 관리사무소 등의 옥상 공간과 아파트 단지 내 조경용지, 유휴 공간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소규모로 공식적인 지원이 아닌 조경용지, 자투리땅을 무단 활용하거나 단지 주변 산 또는 공원 녹지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



단지 내 조경용지 활용(노원구)

15) 서울시에 SH공사 영구임대주택은 총 20곳이다. 강서구 5곳(가양4, 가양5, 방화11, 방화2-1, 방화6), 노원구 5곳(공릉1, 상계마들, 월계사슴1, 중계3, 하계5), 서초구 1곳(내곡보금자리6), 강남구 5곳(대치1, 세곡2보금자리3, 세곡2보금자리4, 수서1, 수서6), 중랑구 3곳(면목, 신내10, 신내12), 마포구 1곳(성산)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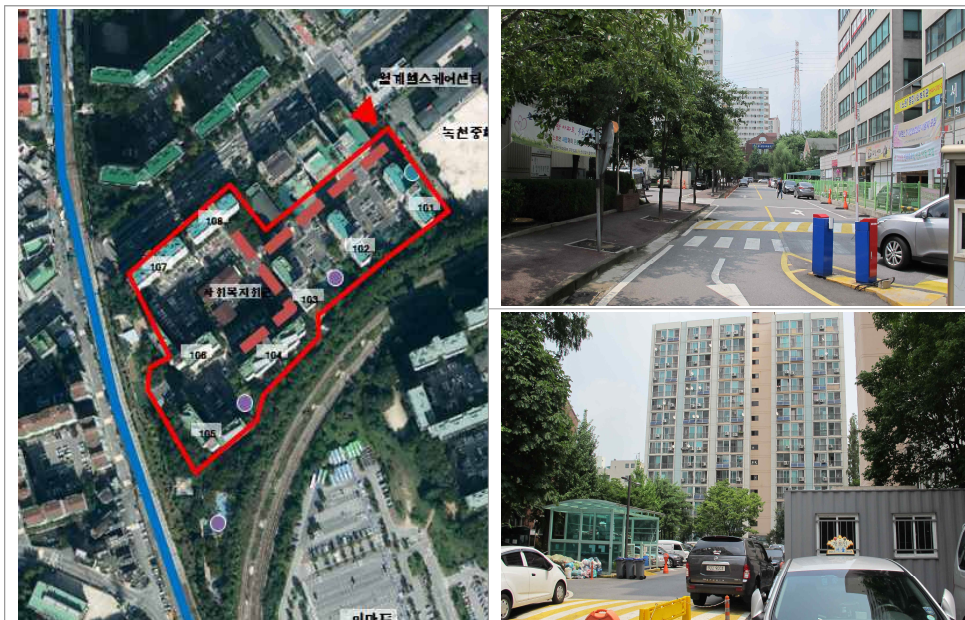
〈그림3-1〉 SH 임대주택 텃밭 공간 활용 현황(2016년 8월과 10월 현장 촬영 사진)

연구 대상지는 현장조사 내용을 근거로 텃밭의 유형과 규모, 활성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SH공사 담당자 면담을 통해 주민 참여 수준이 높은 2개 단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상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공식적인 지원 하에 기관 또는 주민 조직에 의해 조성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둘째, 텃밭 공간이 영구임대주택단지 내부에 위치하여 거주 동으로 부터 접근성이 원활

하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셋째, 취약계층의 교류와 소통, 커뮤니티 향상 및 재활, 치유 등의 건강증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장애인, 노인, 기초수급자 등 텃밭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도시농업 활동시간과 활동 빈도, 참여 가구 수가 높은 곳을 선정하였다.

제 2절 연구 대상지의 현황

1. 노원구 A단지 영구임대주택



〈그림3-2〉 노원구 A단지 입지적 특성(네이버 위성사진과 2016년 12월 현장 촬영 사진)

노원구 A단지는 강북생활권으로 수락산과 불암산이 있으며 인근에 노원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을지병원, 상계백병원 등 의료시설이 위치한다. 2004 년도에 노원구 문화예술회관 개관된 이래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의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교통 환경은 국철 월계역(남문 출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 인근에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이 있어 접근성이 좋다. 중랑천과 남측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 조성공사(3단계, 광운대역 연계사업) 예정지가 보행거리 내에 있으며 월계근린공원과 초암산 등 녹지가 풍부하다¹⁶⁾.

〈표3-1〉 노원구 A단지 개요

구분		내용			
위치		서울시 노원구 A단지			
규모		전용면적(㎡) 223,339/건물층수 15층			
단지유형		영구임대			
완공/준공일자		1994.7완공 / 1995.05.30준공			
입주대상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탈북자 등			
총 세대수		1,372			
입주자 유형별 세대수	장애인세대수	153	기초생활수급자	1060	
	모부자가정	33	국가유공	37	
	기타	89	-	-	
가구원 수	독거가구원수	611	2가구원수	411	
	3가구원수	210	4가구원수	65	
연령대(세대)	30세 이하	14	31-40세	52	
	41-50세	81	51-60세	339	
	61-65세	322	65세 이상	564	
주요 시설	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문화원			
	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3개소, 체육시설(배드민턴장) 1개소, 니팔꽃어린이공원			

자료 : SH공사 단지별 현황 및 입주민 기본 현황 자료(공가세대를 제외하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함)

16) 대상지의 기본 정보는 서울주택공사(SH) 영구임대주택 상세정보의 내용에서 발췌하였다.(<http://www.i-sh.co.kr>)



〈그림3-3〉노원구 A단지 내부 시설 현황(2016년 10월 현장 촬영 사진)

이곳은 총 1,382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 1,060세대, 장애인이 153세대로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다. 연령대는 65세 이상이 564세대로 고령층의 비율이 매우 높다. 이 중 독거 가구원 수는 611세대, 2가구원수 411세대로 1~2인의 가족 구성원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단지 내부에는 경로당, 관리사무소, 노원종합사회복지관, SH노원권역주거복지센터, 일촌나눔 사회적기업 등이 입지하고 있어 사회지원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그러나 병을 던지거나 음주행위로 인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여 대부분의 휴게시설이 펜스로 차단되어있고 단지 외곽을 두르는 산책로의 이용이 낮다. 거주민의 대다수가 노인층이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와 체육시설 역시 이용이 저조하다. 산책, 휴식 등 옥외활동은 단지 내 시설보다 단지 외곽에 인접해 있는 나팔공원과 경춘선 공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커뮤니티 활동은 대부분 단지 중앙에 위치한 복지관과 노인정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며, 아파트 외곽에 위치한 장애인 텃밭과 복지관 옥상텃밭이 유일한 옥외 커뮤니티 공간이다. 일부 아파트 조경 용지가 주민에 의해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다.

2. 노원구 B단지 영구임대주택



〈그림3-4〉 노원구 B단지 입지적 특징(네이버 위성사진과 2016년 12월 현장 촬영 사진)

A단지와 같이 중랑천 및 초안산, 불암산 등 자연과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과 을지병원, 세이브존 등이 인접해 있다. 교통 환경은 지하철 7호선(4번출구) 하계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서울순환 외관도로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하계와 공릉 중간 구간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 조성공사(2단계)를 진행 중이며 일부 무단 경작지로 확인된 텃밭이 조성되어 있다¹⁷⁾.

〈표3-2〉 노원구 B단지 개요

구분		내용			
위치		서울시 노원구 B단지			
규모		전용면적(㎡)38/건물층수 5층			
단지유형		영구임대			
완공/준공일자		1989.11완공/			
입주대상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탈북자 등			
총 세대수		640			
입주자 유형별 세대수	장애인세대수	111	기초생활수급자	477	
	모부자	26	국가유공	12	
	기타	14	-	-	
가구원 수	독거가구원수	133	2가구원수	209	
	3가구원수	159	4가구원수	102	
연령대(세대)	30세 이하	3	31-40세	11	
	41-50세	74	51-60세	120	
	61-65세	62	65세 이상	370	
주요 시설	복지시설	단지 내 없음			
	공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3개소, 경로당			

자료 : SH공사 단지별 현황 및 입주민 기본 현황 자료(국가세대를 제외하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함)

이곳은 SH공사의 최초 임대주택으로서 1989년 11월 15일 준공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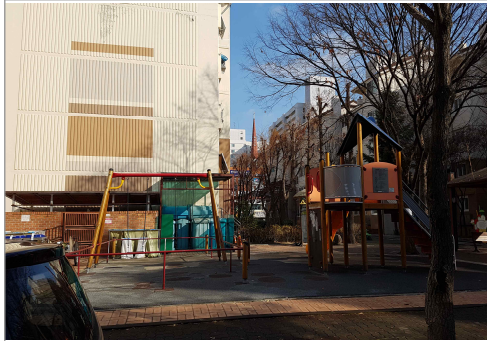
17) 서울주택공사(SH)의 영구임대주택 상세정보의 내용에서 발췌(<http://www.i-sh.co.kr>)



관리사무소와 복지관



임차인대표 사무실



어린이 놀이시설



휴게시설



단지 내 주민공동텃밭(야외 텃밭과 바이오 하우스)



<그림3-5> 노원구 B단지 내부 시설 현황(2016년 12월 현장 촬영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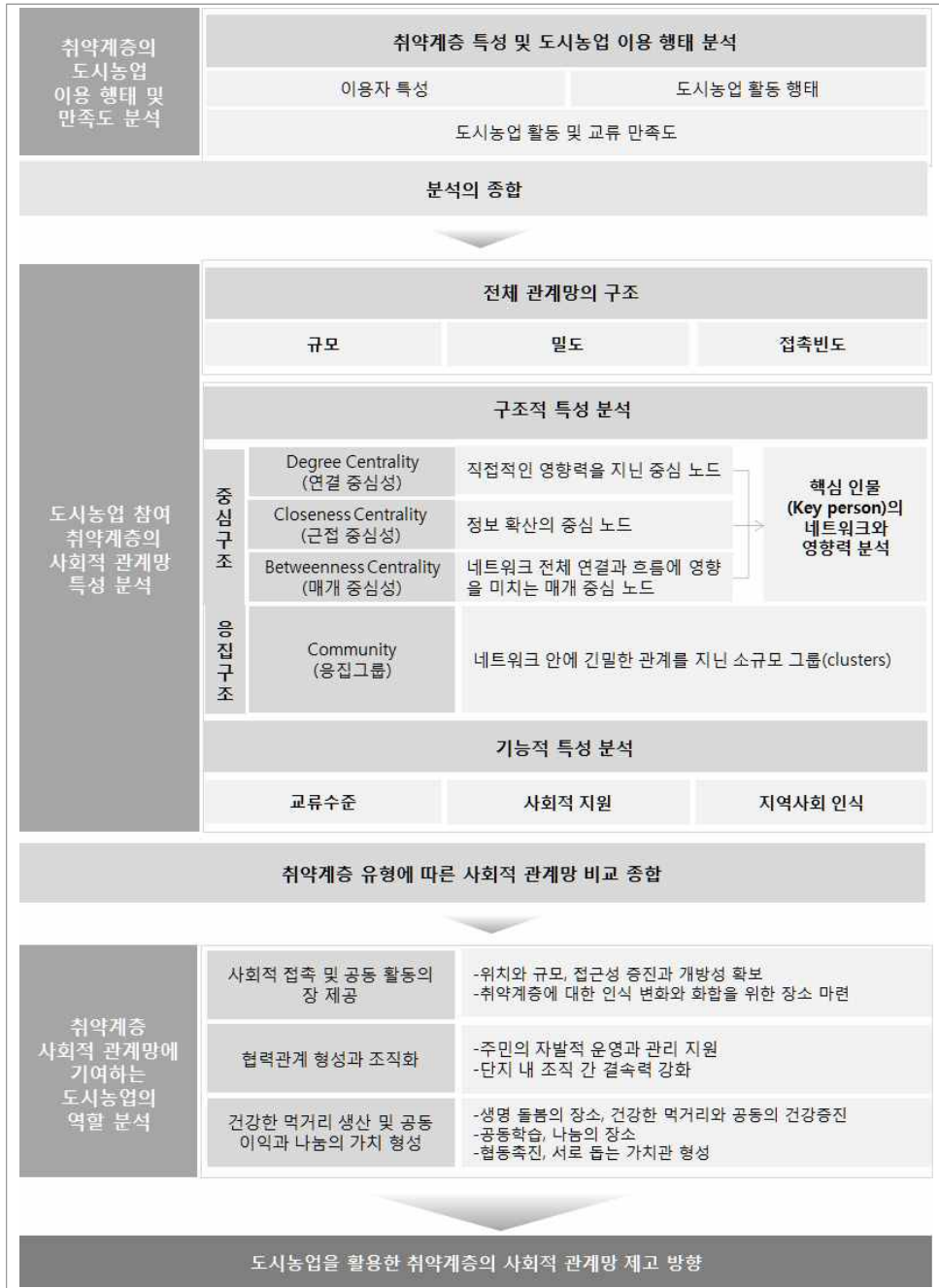
층 규모 아파트이다. 총 640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 477세대, 장애인이 111세대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는 65세 이상이 370세대로 A단지와 마찬가지로 고령층의 비율이 매우 높다. 이 중 독거 가구원 수는 133세대, 2가구원수 209세대. 3가구원수 159세대, 4가구원수 102세대로 A단

지에 비해 가족의 구성원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특징적인 것은 건물과 인접한 조경용지는 모두 1층과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 일부 정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내부에는 경로당과 관리사무소, 임차인 대표 사무실이 있다. 어린이 놀이터와 휴게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나 A단지와 같이 거주민의 대다수가 노인층이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의 이용이 저조하다. 커뮤니티 활동은 경로당과 거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는 주민 공동 텃밭이 활성화 되어있다.

제 3절 분석의 틀

1. 분석의 틀 설정

본 연구의 분석 과정은 크게 도시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과 그러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기여하는 도시농업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 이를 위해 첫째, 도시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의 특성과 텃밭 이용 행태를 분석하였다. SH공사 영구임대주택 중 공식적으로 텃밭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용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유형과 건강상태, 이용목적, 활동 빈도, 만족도 등을 파악하였다. 둘째, 도시농업 활동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교류하는 이웃, 이웃의 수, 교류빈도, 관계의 만족도 등을 조사한 후 ‘사회연결망분석기법(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개개인의 교류 수준과 전체 관계망의 구조 및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그림3-6〉 분석의 틀

구체적으로 중심구조 분석을 통해 전체 네트워크 구조와 집중화 정도를 파악하고 가장 많이 교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구성원의 특징과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응집구조 분석을 통해 전체 네트워크 안에서 형성된 크고 작은 그룹과 각 그룹의 밀도를 파악하였다. 셋째, 그룹 내 구성원들 간 관계의 만족도와 상호 역할 관계를 파악하였다. 도시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교류수준과 상호 간 사회적 지원 수준을 파악하고 생활환경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상지 별 결과 내용을 비교·고찰하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차이와 공통된 특징을 종합하였다. 넷째, 도시농업의 어떠한 특성이 취약계층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기여하는가를 알아보았다. 인터뷰를 통해 이용자들의 도시농업 활동에 대한 의견, 의미, 활동 이유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다.

2. 지표 선정 및 자료의 구축

(1) 지표의 선정

사회적 관계망의 측정도구는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학자 간에 공통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다(Shumaker and Brownell, 1984; House and Kahn, 1985; 임소영, 2013). 국내에서 사회적 관계망은 ‘Lubben Social network scale’을 연구 대상과 목적에 맞게 보완하여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저소득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여성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수준을 파악하고 건강과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과 관련된 지표로 사회적 관계망 측정도구와 지역사회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역량, 사회적 자본, 사회적 지지

에 관한 선행 연구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지표의 구성은 사회적 관계망의 대표적 측정도구인 ‘Lubben Social Network Scale-18(LSNS-18)’과 건강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사회적 네트워크 속성을 반영한 캐나다 ‘Social Capital index’와 ‘Canadian Community Health Survey’ 지표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Lubben(1988)의 지표는 노인이 가족(친척), 친구, 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고립감과 사회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항목이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자주 연락하는 사람의 수와 빈도, 개인의 문제를 털어 놓거나 도움을 요청할 만큼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정량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척도로 가중치 없이 단순 합산하여 총점을 비교한다. 이 도구는 병원, 지역사회와 주간 보호 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일반적인 노인 뿐 아닌, 암, 사회적 고립감, 심근경색, 우울 등이 있는 노인에게도 사용될 수 있다. 캐나다 공공정책연구소(PRI)와 지역사회건강조사(CCHS)의 지표는 이웃, 가족, 친구 등 주위의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되어 있다. 여기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structural properties of networks)이란 형성되어져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내재적 가치를 말하며, 기능적 속성(network dynamics)이란 네트워크 구성요소들이 실제로 기능하면서 발현되는 가치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정책 영역을 빈곤극복, 건강한 노화, 이민자들의 정착, 청년의 시민참여, 범죄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6가지로 제시하였다. 이민자, 실업자, 은퇴자, 싱글맘 등 사회적 약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영국 국가통계청(ONS)의 지역 환경 만족도와 시민참여에 관한 지표는 지역사회에 대한 견해(Views about the local area), 시민참여(Civic participation), 사회적 네트워크 및 지원(Social networks and support),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호혜 및 신뢰(Reciprocity and trust) 등의 항목으로 세분화 되어있다. 환경만족도, 지역문제 및 시설에 대한 의견, 지역에 대한 정보 획득과 지역 활동에 대한 관심 등 기본적으로 사회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고 봉사활동 빈도, 소속 그룹 및 관여 정도 등의 구체적인 근거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네트워크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교류하는 사람들과의 연락 또는 대화 빈도, 접촉빈도,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대상과 사람들에 대한 신뢰 수준을 조사하여 구조적인 범위와 기능적인 효과를 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접촉빈도, 네트워크의 크기, 구성원 간 연결성, 네트워크의 집중 또는 분산 정도, 클러스터링 정도 등 구조적인 측면과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관계망의 수준과 만족도 등 기능적인 측면을 함께 조사한다. 네트워크의 구조는 네트워크의 크기, 행위자의 연결성, 행위자의 집중 또는 분산, 네트워크의 접근성, 네트워크의 클러스터링 정도, 행위자의 이질성 또는 동질성을 포함한다(Wasserman and Faust, 1994). 기능적 특성은 정보 교환, 감정적 교감, 물리적·경제적 부조를 조사한다. 이는 질적인 측면에서 사회관계망의 구성원들이 개인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개인이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주관적 평가의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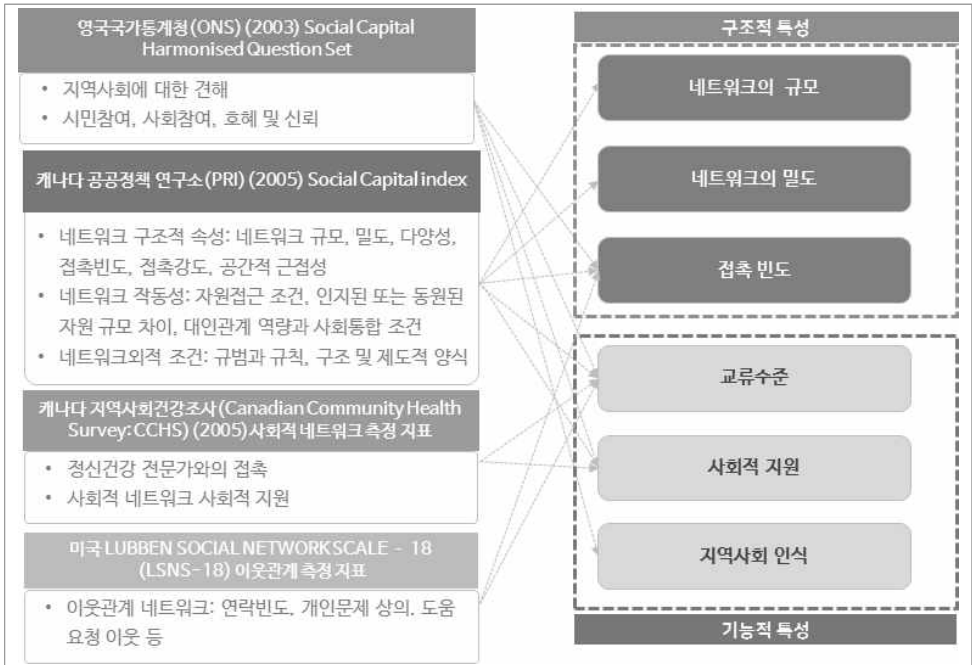
〈표3-3〉 사회적 관계망 관련 지표 항목

구분	항목		지표
미국 LUBBEN SOCIAL NETWORK SCALE - 18 (LSNS-18) 이웃관계 측정 지표	이웃관계 네트워크 (Neighbors)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하거나 만나는 이웃
			자주 연락하는 이웃과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연락
			개인 문제에 관해 털어놓을 만큼 편안하게 느끼는 이웃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가깝게 느끼는 이웃
			이웃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상의하는 이웃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상의하는 이웃
캐나다 공공정책 연구소(PRI) (2005) Social	네트워크 구조 적 속	규모	친하거나 덜 친한 친구/가족, 안면 있는 관계, 이웃, 동료 등
		밀도	구성원 간의 상호관련 정도(유대성 수준)
		다양성	구성원 간의 사회경제적 수준의 다양성

구분	항목		지표
Capital index	성	접촉빈도	구성원 간의 접촉 횟수와 기간
		접촉강도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 강도 및 관계
		공간적 근접성	정기적으로 대면 접촉하는 구성원
	네트워크 특성	자원접근 조건	대안적 해결책의 존재 여부, 의존성, 도움 요청 가능성
		인지된 또는 동원된 자원 규모 차이	기대되는 지원/자원, 실제로 활용 가능한 지원/자원
		대인관계 역량과 사회통합 조건	대인관계 기술과 일상생활 영향
	네트워크 외적 조건	규범과 규칙	문화적 윤리적 차원의 신뢰, 소속감, 통합, 관용 등
		구조 및 제도적 양식	사회적 관계성 강화 또는 저해하는 공식적/비공식적 구조
캐나다 지역사회 건강조사(Canadian Community Health Survey: CCHS)(2005)사회적 네트워크 측정 지표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지원 (이용성 및 활용가능성)		병석에 있을 때 도움을 받았다.
			아플 때, 의사에게 데려다 주었다.
			힘들 때, 식사를 차려주었다.
			아플 때, 허드렛일을 도와주었다.
			호의를 받았다. 나를 안아주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함께 여유를 즐겼다.
			일을 함께 하였다. 무언가 즐거운 일을 함께하였다.
			내 얘기를 들어주었다. 나에게 조언을 해 주었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날 믿어주었다. 나에게 충고해주었다.
			나의 걱정과 근심을 함께 해 주었다.
			제안을 해 도움을 주었다. 내 문제를 이해해 주었다.
	정신건강 전문가와의접촉		지난 12개월 동안, 고민하는 정신 및 감정상의 문제로 다음의 사람들을 만나거나 전화통화한 횟수는?(가정의-소아 정신과의사-심리학자-간호사-사회상담사-기타 등)
영국국가 통계청(ONS)(2003) Social Capital Harmonised Question Set	지역사회에 대한 견해(Views about the local area)		환경만족도, 지역문제 및 시설에 대한 의견 등(satisfaction with living in the area, problems in area)
	시민참여(Civic participation)		지역에 대한 정보 획득력, 지역 활동 및 관심 등(propensity to vote, action on local and national issues)
	사회적 네트워크 및 지원(Social networks and support)		연락 또는 대화 빈도, 접촉빈도, 아플 때 또는 돈이 필요할 때 도움 요청할 사람 등(contact with friends and relatives)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소속된 그룹, 봉사활동 등의 빈도 및 관여 정도 등 (involvement in groups and voluntary activities)
	호혜 및 신뢰(Reciprocity and trust)		본인과 같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정도, 도움을 주거나 받는 것, 공유된 가치에 대한 이해 등(trusting other people)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맞는 지표 선정을 위해 다음의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항목을 선별하였다. 첫째, 도시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의 특성과 도시농업 이용 행태는 어떠한가? 둘째, 도시농업 활동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은 무엇이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구성원 간 관계의 수준은 어떠한가? 신뢰감과 사회적 지원이 가능한 상호부조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셋째, 그렇다면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기여하는 도시농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에 최종 선정된 지표는 다음과 같다(표 3-4). 응답자 특성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문항을 참고하여 개인 기본 정보 문항과 건강상태, 스트레스 또는 우울 정도를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도시농업 이용행태 및 만족도에 관한 항목은 손용훈, 임정연(2014)의 텃밭 이용실태와 이용 주체 간 의식 차이를 조사한 실증 연구의 지표와 현장 조사 및 서비스 제공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주요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의 현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텃밭 환경과 기반 시설, 지원 사항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사회적 관계망 분석 항목은 구조적·기능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구조적 특성은 사회관계망의 크기와 이웃 간에 관계가 연결된 정도, 집중화 정도 및 접촉빈도,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이웃의 수 등에 관한 객관적 항목을 선정하였다. 기능적 특성은 이웃과의 교류 수준, 친밀감·신뢰감 수준, 사회참여 및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의견 등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평가 항목을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또한 도시농업 활동 과정에서 개인이 느끼고 경험한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 항목을 구성하였다. 인터뷰 항목은 SH공사 및 복지관 관계자, 텃밭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파악된 현장 상황을 근거로 구성하였다. 도시농업 활동 계기, 활동에서 느끼는 건강 상태와 이웃에 대한 감정, 활동 과정에서 도움을 청하거나 정보를 교류하는 구체적인 대

상과 그에 대한 평가 등 사회적 관계망 분석 결과와 도시농업의 역할을 해석하는데 근거로 활용될 내용을 조사하였다.



〈그림3-7〉 지표의 선정과 구성

〈표3-4〉 연구에 사용된 분석 지표의 종합

분석항목		내용	
응답자 특성		-이름, 거주동호수, 거주기간, 연령대, 성별, 종교유무, 가족구성, 취약계층유형, 월평균소득, 교육, 평소건강상태, 성격, 질병, 스트레스 또는 우울 정도와 전문기관상담여부 -도시농업 활동 이외에 평소에 참여하는 활동, 모임	선문조사
도시농업 이용행태 및 만족도 분석	도시농업 이용행태	-이용 장소, 기간, 시작계기, 이용목적, 작물의 활용, 텃밭 이용 동반자, 이용 빈도, 이용시간대 및 체류시간	선문조사
	활동 만족도	-텃밭의 경관(경치, 아름다움)에 만족한다. -텃밭의 위치, 형태, 이동에 만족한다. -텃밭까지의 접근성(거주 동에서 텃밭까지 거리)에 만족한다. -텃밭의 크기(공간)에 만족한다. -텃밭 수도, 장비 등 시설에 만족한다. -제공되는 씨앗, 모종, 비료 등에 만족한다. -농사교육, 행사 프로그램 등에 만족한다.	

	교류 만족도	-텃밭이 이웃주민과의 대화 및 교류에 도움을 준다 -텃밭이 지역공동체 강화에 도움을 준다.		
사회적 관계망 의 특성 분석	구조 적 인 측 면	네트워크 규모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의 수와 이름	설문 조사
		네트워크 밀도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의 비율, 상호관련 정도	
		접촉빈도	-구성원과의 교류 횟수	
	기능 적 인 측 면	교류 수준	-나와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고 느낀다. -친근감(친하고 가까운 느낌)을 느낀다. -종종 집에 초대해 식사를 한다. -아파트 아닌 다른 곳에서도 활동(여행, 쇼핑, 영화 등)한다.	설문 조사
		사회적 지원	-서로 도움 필요시 믿고 의지하며, 울적할 때 위로 된다. -개인 문제(건강, 가족갈등, 걱정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평소 도움이 되는 정보나 지식을 알려준다.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허드렛일 등을 도와준다. -돈이나 물건이 필요할 때 최대한 마련해 준다.	
		지역사회 인식	-우리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살기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파트 사람들은 서로 믿고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파트문제(시설보수·안전·주차 등)에 적극의견을 제시한다. -아파트 안전 환경(사고, 폭력, 범죄 예방)에 만족한다. -아파트 자연환경(꽃, 나무, 잔디밭 등)에 만족한다. -나는 계속 이곳에 살고 싶다. (이유는?) -나는 노원구 지역문제(교통·환경오염·정책 등)에 관심이 높다. -나는 노원구 지역 봉사활동(이웃돕기 행사 등)에 참여한다.	
도시농업 활동에 대한 경험적 인식		-도시농업활동을 하게 된 계기와 이유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 생활에서 달라진 점 -개인의 건강상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에 대한 내용) -텃밭 공간에서 느끼는 감정(긍정/부정) -도시농업 활동을 하면서 좋은 점과 불편한 점 -도시농업 활동을 하면서 함께하는 이웃에 대한 감정 -도시농업 활동 이후 이웃과 관계의 변화(긍정/부정) -도시농업 활동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하는 사람 -재배방법, 관리방법, 작물 등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		인터 뷰 조 사

(2) 자료의 구축

조사는 연령대와 교육 수준을 고려하여 1대1 설문조사와 함께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정보, 텃밭 이용행태, 빈도, 만족도, 교류 대상과 관계의 수준 등을 파악할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2차 인터뷰 조사를 통해 활동 동기와 활동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 이웃과의 관계 형성 여부와 계기, 개인 또는 이웃과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 등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취약계층은 위축된 심리상태,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과 불신 등으로 인해 조사 협조를 얻기가 어렵다. 저소득자, 노인, 장애인 등 특수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 조사에 앞서 실제 대화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가능한 조사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면접자와의 신뢰관계에 따라 정보의 깊이와 진실성이 좌우될 수 있다. 때문에 사전에 조사의 목적과 이유, 내용 등을 충분히 공유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얼굴을 익히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시도하였다. 가을 배추담그기 행사에 참여하여 도시농업 활동 과정을 체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자인 SH공사 관계자와 복지관 관계자를 만나 전반적인 활동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후 도시농업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주민 대표를 소개받아 조사를 위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충분히 조사 내용을 공유한 후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눈덩이 표집 방법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1대1 설문조사와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면접자가 설문지에 직접 내용을 기입할 수 없거나 질문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조사자가 질문의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고 응답한 내용을 기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인터뷰 조사의 경우 모든 대상자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공통 질문 항목을 준비하고 응답 내용에 따라 추가 질문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자 대부분이 장애인, 고령자이기 때문에 쉬운 표현과 이해를 돕는 부연 설명을 준비하고 대표자를 통해 응답자에 대한 정보와 주의해야 할 점을 미리 파악하였다. 또한 단답형으로 질문이 단절되지 않도록 질문지의 순서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고 해당 내용을 연구자가 기입하였다. 조사 목적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 작성, 녹음 가능 여부, 신원보호 및 보안 문제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여 동의를 얻고 시작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한 장소에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경우 대화에 개입하거나 이웃을 의식해 솔직한 의견을 내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1대1 대화가 가능한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표3-5〉 조사 과정 및 주의사항

☞ 조사과정 및 내용

1. 기초 현황 파악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 인터뷰, 텃밭 대표자 연결
 - SH공사 관계자와 복지관 관계자
2. 텃밭 대표자 사전 인터뷰 (텃밭 현장 시행)
 - 구체적인 물리적 현황과 조성 과정, 특징 실태 파악
3. 텃밭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눈덩이 표집 방법으로 표본을 선정 일부 텃밭 이용자 사전 조사(pilot interview) 실시
4. 텃밭 이용자 대상 1대1 설문과 반구조화 인터뷰 실시
 - (1차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텃밭 이용 행태, 만족도 및 이웃과의 교류 수준 등 파악
 - (2차 인터뷰조사) 정해진 질문과 캐어문기(probing)을 통해 응답자 경험(의견, 의미, 이유 등) 파악

☞ 주의사항

1. 연구에 대한 설명과 조사 동의서 기입, 녹음 사전 공지 및 동의, 신원보호와 보안문제 강조
2. 단답형으로 대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사전에 취약계층의 유형과 특징, 도시농업활동에 대한 충분한 지식 습득 필요
3. 응답자의 교류 대상에 대한 긍정/부정의 의견과 친밀도 수준에 대한 질문이므로 1대1 격리된 장소에서 진행
4. 직접 기입하지 못할 경우 조사자가 설명하고 응답한 내용을 대신 기입
5. 질문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었는지 재차 확인하고 쉬운 언어를 사용

〈표3-6〉 조사 대상자 현황

구분	대상	노원구 A단지		노원구 B단지
		장애인 텃밭	복지관 옥상 텃밭	주민 공동 텃밭
설문조사	텃밭 이용자	15/15	15/20	11/30
인터뷰	텃밭 이용자	장애인 7 봉사자 2	기초생활수급자 7 북한이탈주민 1	기초생활수급자 9 한부모가정1 장애인1
	서비스 제공자	SH공사 주거복지센터 과장 1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자살예방센터 과장 1		

영구임대주택에서 도시농업은 아직 참여를 유도하는 초기 단계이므로 이용자의 수가 적다. 때문에 이용자 동의하에 최대한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일부 장애가 있거나 연령대가 높아 소통이 어렵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꺼리는 사람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위한 데이터는 크게 노드(node) 데이터 수집과 링크(link) 데이터 수집으로 나뉘어진다. 노드 데이터 수집 범위는 전수조사이며, 최소 70~80% 이상 응답률이 넘어야 신뢰할 수 있다. 노원구 A단지 장애인 텃밭의 경우 설문조사 장애인 15명, 인터뷰 조사 장애인 7명과 봉사자 2명의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복지관 옥상 텃밭의 경우 설문조사 15명, 인터뷰 조사 8명으로 기초수급자 7명과 북한이탈주민1명을 면담 하였다. 노원구 B단지 주민 공동 텃밭은 설문조사와 인터뷰조사 각각 11명의 데이터가 수집되었고 인터뷰 조사에는 한부모가정 1인과 장애인1인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링크(link) 데이터는 교류하는 이웃과의 만남 빈도, 관계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NGO(Name Generator Question) 방식으로 응답자가 문항에 적합한 대상을 직접 지목하는 설문 방식을 적용하였고 실명 조사로 진행되었다. 자유회상형으로 지목대상을 제한하여 선택할 대상을 최대 10명까지 주관식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표 3-7).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이고 직접 메모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질문에 응답

하면 조사자가 대신 기입하였다.

〈표3-7〉 사회적 관계망 분석 데이터 수집 방법

구분		내용
지목방법	목록제시형	선택할 대상의 목록을 제시 덧발활동을 하면서 교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래 목록에서 선택해주세요
	자유회상형	선택할 대상을 주관식으로 입력 덧발활동을 하면서 교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목대상 제한 여부	선택제한형	선택할 대상이 최소/최대 수 제한 덧발활동을 하면서 교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최소1명이상 덧발활동을 하면서 교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최대7명까지
	선택개방형	선택할 수 제한 하지 않음 덧발활동을 하면서 교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떠오른 대로 적어주세요
링크 가중치 유무	링크강도	선택할 대상 및 링크 강도 정보를 함께 수집 덧발활동을 하면서 교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명목척도 또는 등간척도)
	순위	선택할 대상의 링크 강도를 입력순서로 수집 함께 영화보거 친구 제일 친한 순서대로 적어주세요.(서열척도)

자료: ㈜사이람의 NetMiner를 이용한 소셜네트워크 분석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3. 분석방법

결과 분석은 SPSS8.0과 Net-miner4.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과 사회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도구인 넷마이너(Net-miner4.0) 활용하여 도시농업 활동에 따른 사회적관계망 형성 수준을 분석하였다. 사회연결망분석은 개인 또는 단체 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양한 구조를 고려한 방법이다. 이 분석 기법을 통해 지역 사회 개발 사업의 프로세스, 영향 및 효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Ennis and West, 2010). 사회연결망은 연결되어있는 사람

들의 관계망으로 'social'과 'network'의 단어를 조합한 것이다. 행위자들 사이에 관계의 구조와 체계를 가시적으로 표현한다. 도식화 된 점(node)은 행위자를 나타내며, 선(line)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이주연 외, 2005). 점과 라인의 적절한 조합에 의하여 행위자간의 이해, 유대, 연계, 교류, 교환 등을 표현하고 분석 기법을 통해서 개인적(인맥, 활동력, 영향력, 정보 획득 능력 등), 네트워크(구속 및 자율성, 단결력, 하위네트워크(파당, 파벌), 계층구조 등)를 파악할 수 있다.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정보, 조직 등 주체의 의미를 나타내는 노드(node)와 노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링크(link)로 표현한다. 점(node)은 행위자를 나타내며, 라인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이영주 외, 2006). 사회 연결망 분석의 목적은 연결망 형태의 특징을 도출하고 관계성으로 체계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다(김용학, 김영진, 2016). 사회 연결망은 행위자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세트로서 그래프로 묘사할 수 있는 실증적 시스템이다. 따라서 사회구조나 지역구조의 분석, 갈등 관리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과학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기술, 시각화, 모델링 등을 통하여 연결망 구조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김용학, 2007).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사람들 사이 특정한 연결망의 특성으로 연결망에 포함된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개개인의 미시적인 상호 작용으로 형성되는 연결망 전체 구조는 그들의 의식, 행위, 효용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 자주 교류하는 이웃 간 네트워크의 범위와 연결정도(Degree) 및 밀도(Density)를 분석하여 가시적으로 표현했다. 관계망 분석 결과를 근거로 텃밭활동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이용자 및 관리자 간의 신뢰, 참여, 정보교류의 실태를 확인하였다.

제 4장 도시농업 참여 취약계층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

제 1절 도시농업 이용행태 및 만족도 분석

연구 대상지인 노원구 영구임대주택 A단지와 B단지에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텃밭 3개소가 조성되어 있다. A단지에는 단지 외곽 장애인 텃밭과 복지관 옥상을 활용한 여성노인 텃밭이 조성되어 있고, B단지에는 단지 유희공간을 활용한 주민공동텃밭이 조성되어 있다. 이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도시농업법) 제 8조(도시농업의 유형) ‘주택활용형 도시농업¹⁸⁾’ 유형에 해당되며 옥상과 건축물 인접 토지를 활용한 사례이다. 대상지 모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특정 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조성되어진 토지이다. 상시 접근이 수월한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텃밭의 규모와 위치적 특성, 개방성, 운영방식, 운영주체, 활동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의 유형 등에 차이가 있다.

〈표4-1〉 도시농업 조성 및 관리 현황(노원구 A단지, B단지)

구분	노원구 A단지		노원구 B단지
	장애인 텃밭	복지관 옥상 텃밭	주민 공동 텃밭
주이용자	장애인	여성노인	혼합
조성년도	2015	2014	2015
조성계기	공동체 활성화	여성 노인 원예 치유	공동체 활성화

18) 주택활용형 도시농업은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이다.

구분		노원구 A단지		노원구 B단지
		장애인 텃밭	복지관 옥상 텃밭	주민 공동 텃밭
구성주체		SH공사	복지관	SH공사
운영주체		장애인협회	복지관	주민봉사단
텃밭유형		자투리텃밭	옥상텃밭	자투리텃밭
텃밭위치		단지외곽	복지관 옥상	단지외곽
텃밭규모		약 300㎡(91평)	약 81㎡(25평)	야외텃밭 약 793㎡(240평)/ 바이오하우스 약 66㎡(20평)
관 련 시 설	텃밭 시설	야외 텃밭, 비닐하우스 텃밭	상자텃밭 (플랜트 13~15개)	야외 임대 텃밭, 바이오하우스 임대 텃밭, 경로당 상자텃밭, SH공사-주민봉사단 공동 텃밭
	교류 시설	-	교육실, 휴게테이블	-
	주변 시설	장애인협회 가건물	복지관	노인정과 관리사무소, 임차인대표 가건물
	기타	CCTV, 팬스	CCTV	CCTV, 팬스

A단지의 장애인 텃밭과 B단지의 주민 공동 텃밭은 2015년 SH공사 ‘주민 공동체 활성화 텃밭지원 사업’에 의해 조성되었다. 임대주택의 주민 소통을 위해 단지 내 유휴공간을 텃밭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SH공사 임대주택 시설보수 계획과 노원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구 공모사업 보조금을 활용하였다. 주민 커뮤니티를 통한 입주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이웃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마을 공동체 의식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이다. 텃밭이 조성된 이후 운영주체는 주민이다. 사업공모나 구청, 봉사단체 등을 통해 이용 주민들이 직접 운영비와 농업 용품 등을 조달받는다. 한편 A단지 여성 노인 텃밭의 경우 조성과 운영 주체가 모두 주민이 아닌 복지관이다. 2008년 복지관 자체 비용으로 옥상에 조성되었다. 2014년 노원구청에서 지원하는 싱싱텃밭 사업 보조금으로 플랜트와 기반시설을 재정비하여 현재까지 65세~75세 여성 노

인을 대상으로 한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성격이 다른 복지관 텃밭을 포함한 이유는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중에서도 외부 활동에 위축되어 사회적 교류가 거의 단절된 거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구임대주택에서는 외부 활동 의지가 전혀 없거나 홀로 거주하여 외롭고 위축된 거주민을 어떻게 밖으로 유도하고 활동을 지속시킬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때문에 도시농업 활동이 취약계층에게 강한 활동 동기(activity motivation)를 부여하고 새로운 관계망을 촉발시키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하기에 좋은 사례로 판단된다. 또한 복지관은 일반적으로 영구임대주택 인근에 입지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한다.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가용지가 부족한 땅에서는 단지 내 유휴 공간과 함께 텃밭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복지관의 옥상 공간은 적합한 장소이다.



〈그림4-1〉 도시농업 공간의 입지적 특징

주 이용자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유형 중 장애인과 여성 노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일부 한부모가족, 북한이탈 주민이 포함되어 있다. 운영기간은 2~3년 정도로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이지만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의 텃밭 수요¹⁹⁾를 고려할 때 향후 사업의 확산 가능성

19) 영구임대주택 거주민들의 텃밭 활동은 공공기관에 의한 공식적인 지원 이외에도 확인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보면 불법경작이지만 주민 주도로 비공식적인 그룹을 형성해 단지 내

이 있으며, 취약계층의 특성에 맞게 도시농업이 어떠한 기회요인과 제약요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 현 시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1. 노원구 A단지

(1) 이용자 특성

노원구 A단지에서 텃밭활동에 참여하는 30명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령대는 75세 이상(40.%) 계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거주기간은 대부분 20년 이상(7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텃밭 이용자들은 1인 가구(43.8%), 2인 가구(43.8%) 형태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직업은 대부분 없는 것(90.0%)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미만인 응답자(43.3%)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월평균 소득은 대부분 50만원 이하(93.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텃밭 이용자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43.3%)와 장애인(5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2〉 텃밭 이용자 일반현황(노원구 A단지)

구분		장애인 텃밭		복지관 옥상 텃밭	
		응답자(명)	비율(%)	응답자(명)	비율(%)
연령대	영유아(0~7세)	-	-	-	-
	청소년(8~19세)	-	-	-	-
	청년(20~29세)	-	-	-	-
	성인(30~44세)	-	-	-	-
	장년(45~64세)	9	60.0	1	6.7
	노년(65~74세)	4	26.7	4	26.7
	회년(75세 이상)	2	13.3	10	66.7
성별	남성	8	53.3	-	-
	여성	7	46.7	15	100.0

조경용지, 자투리땅, 인근 공원 및 산림 등에 텃밭을 가꾸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구분		장애인 텃밭		복지관 옥상 텃밭	
		응답자(명)	비율(%)	응답자(명)	비율(%)
거주 기간	5~10년 미만	-	-	2	13.3
	10~15년 미만	2	13.3	-	-
	15~20년 미만	3	20.0	2	13.3
	20년 이상	10	66.7	11	73.4
가족 구성	1인	5	33.3	8	53.3
	2인	6	40.0	7	46.7
	3인	1	6.7	-	-
	4인	3	20.0	-	-
	5인 이상	-	-	-	-
종교	있음	2	13.3	9	60.0
	없음	13	86.7	6	40.0
직업	있음	3	20.0	-	-
	없음	12	80.0	15	100.0
교육 수준	초등학교	4	26.7	9	60.0
	중학교	3	20.0	4	26.7
	고등학교	8	53.3	2	13.3
	대학교	-	-	-	-
	대학원 이상	-	-	-	-
	없음	-	-	-	-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하	14	93.3	14	93.3
	50~100만원	1	6.7	1	6.7
	100~200만원	-	-	-	-
	200~300만원	-	-	-	-
	기타	-	-	-	-
취약 계층 유 형*	기초생활수급자	-	-	14	93.3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	-	-
	한부모 가정	-	-	-	-
	북한이탈주민	-	-	1	6.7
	장애인	15	100.0	-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	-	-
	기타	-	-	-	-
소계		15	100.0	15	100.0

*취약계층 유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요건 기준

A단지의 장애인 텃밭을 이용하는 집단의 평균 아파트 거주기간은 18.87년(표준편차 4.19년), 복지관 옥상텃밭 이용자는 18.93년(표준편차 5.47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텃밭 이용자는 장년층 비중(9명, 60.0%)이 가장 높았고, 복지관 텃밭은 회년층(10명, 66.7%)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은 장애인 텃밭은 남녀 비중이 비슷했던 반면 복지관 텃밭은 모두 여성 이용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족구성의 경우 장애인 텃밭과 복지관 옥상텃밭 모두 1인 또는 2인 가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독거노인과 부부 단위의 가족이 대부분인 상태이다. 직업은 두 집단 모두 대부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교육수준은 복지관 옥상텃밭에 비해 장애인 텃밭 이용자들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장애인 텃밭과 복지관 옥상텃밭 이용자 모두 대부분 50만원 이하로 극빈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3〉 텃밭 이용자 건강상태(노원구 A단지)

구분	장애인 텃밭		복지관 옥상 텃밭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주관적 건강상태	2.73	1.03	2.00	.84
외향적 성격 및 사람들과의 교류 수준	3.73	.59	2.53	.64
평소 우울감 정도	2.26	.80	2.73	.59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정도	2.87	.83	1.87	.64

〈표4-4〉 텃밭 이용자 건강 관련 전문기관 상담 유무(노원구 A단지)

구분		장애인 텃밭		복지관 옥상 텃밭	
		응답자수(명)	비율(%)	응답자수(명)	비율(%)
우울증으로 인한 전문가 상담 유무	있다	-	-	-	-
	없다	15	100.0	15	100.0
스트레스로 인한 전문가 상담 유무	있다	-	-	1	6.7
	없다	15	100.0	14	93.3

A단지 텃밭 이용자들의 건강상태 및 성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장애인 텃밭과 복지관 옥상텃밭 이용자 모두 좋지 않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복지관 옥상텃밭 이용자들이 보다 나쁜

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향적 성격 및 사람들과의 교류 수준은 장애인 텃밭 이용자(3.73점)들이 복지관 옥상텃밭 이용자(2.53점)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평소 우울감에 시달리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두 집단 모두 일상생활에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텃밭 이용자 집단보다 복지관 옥상텃밭 이용자들의 다수가 당뇨, 심장병, 뇌졸중 등의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2) 도시농업 행태

A단지의 텃밭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지 내에서 텃밭 활동은 복지관 옥상(15명)과 아파트 외곽에 조성된 장애인 텃밭(15명)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텃밭을 이용하는 목적은 주로 이웃과의 교류와 친목 도모(장애인 텃밭 46.7%, 복지관 텃밭 66.7%)가 가장 높았고 취미활동(장애인 텃밭 26.7%, 복지관 텃밭 26.7%), 생산 활동(장애인 텃밭 20.0%, 복지관 텃밭 6.7%)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한 농작물은 장애인 텃밭의 경우 주로 지역봉사 또는 기부(40%)와 아파트 행사(60%)에 활용하였다. 반면 복지관 텃밭은 자가소비(40.0%), 친인척 및 이웃과 나눔(46.7%), 지역봉사 또는 아파트 행사(13.3%)의 순으로 개인이 활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텃밭은 주로 아파트 이웃과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용 빈도의 경우 장애인 텃밭은 주말 또는 휴일(40%)과 거의 매일(26.7%) 이용자가 많고 복지관 텃밭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주 중에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오전과 오후 시간에 이용하고 30분~120분, 길게는 2시간 이상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5〉텃밭 이용행태(노원구 A단지)

구분		장애인 텃밭		복지관 옥상 텃밭	
		응답자수(명)	비율(%)	응답자수(명)	비율(%)
텃밭 이용 기간	1년 미만	4	26.7	8	53.3
	1~2년 미만	-	-	3	20.0
	2~3년 미만	11	73.3	2	13.3
	3~4년 미만	-	-	-	-
	4~5년 미만	-	-	2	13.3
텃밭 이용 목적	건강 증진	-	-	-	-
	이웃과의 교류와 친목도모	7	46.7	10	66.7
	사회 봉사활동	1	6.7	-	-
	가족과 여가활동	-	-	-	-
	자녀교육과 학습	-	-	-	-
	농작물 생산활동	3	20.0	1	6.7
	취미활동	4	26.7	4	26.7
	기타	-	-	-	-
생산 농작물 활 용	자가 소비	-	-	6	40.0
	친인척 및 이웃과 나눔	-	-	7	46.7
	지역봉사 또는 기부	6	40.0	2	13.3
	아파트 행사 활용	9	60.0		
	기타	-	-	-	-
텃밭 활동 동반자 유 형	혼자서			1	6.7
	동네 주민(아파트 이웃)	12	80.0	10	66.7
	가족	-	-	-	-
	친구나 애인(다른 지역 거 주)	-	-	-	-
	관리사무소	-	-	4	26.7
	복지관 관계자	3	20.0	-	-
텃밭 이용 빈도	기타	1	6.7	-	-
	주말 또는 휴일	6	40.0		
	주 1~2회	3	20.0	15	100
	주 3~5회	1	6.7	-	-
	거의 매일	4	26.7	-	-
텃밭 이용 시간대	오전	13	86.7	4	26.7
	오후	2	13.3	11	73.3
	저녁	-	-	-	-
텃밭 이용	30 ~ 60분	5	33.3	10	66.7

구분		장애인 텃밭		복지관 옥상 텃밭	
		응답자수(명)	비율(%)	응답자수(명)	비율(%)
시 체류시간	90 ~ 120분	4	26.7	5	33.3
	150 ~ 180분	5	33.3	-	-
	210 ~ 240분	1	6.7	-	-
소계		15	100.0	15	100.0

(3) 도시농업 이용 만족도 분석

텃밭 공간과 프로그램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A단지 장애인 텃밭과 복지관 옥상텃밭 이용자 두 집단 모두 텃밭의 경관과 텃밭까지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 수준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텃밭 이용자 집단의 경우 텃밭 수도 및 장비 등 시설(2.40점), 농사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2.87점)에 대한 만족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6〉 텃밭 공간 및 프로그램 만족도(노원구 A단지)

구분		장애인 텃밭		복지관 옥상 텃밭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텃밭 공간 및 프로그램 만족도	텃밭의 경관(경치, 아름다움)에 만족한다.	4.20	.77	4.53	.52
	텃밭의 위치, 형태, 이동에 만족한다.	3.87	.64	3.20	.41
	텃밭까지의 접근성(거주하는 동에서 텃밭까지 가는 거리)에 만족한다.	4.00	.53	4.47	.52
	텃밭의 크기(공간)에 만족한다.	3.07	.88	2.47	.52
	텃밭 수도, 장비 등 시설에 만족한다.	2.40	1.12	4.33	.49
	제공되는 씨앗, 모종, 비료 등에 만족한다.	3.27	.96	4.33	.49
	농사교육, 행사 프로그램 등에 만족한다.	2.87	.74	4.33	.49
평균		3.38	-	3.95	-

텃밭 공간 및 프로그램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형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은 이웃 단위의 사회적 관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텃밭이 이웃주민과의 대화 및 교류에 도움을 준다.”와 지역사회 단위의 사회적 관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텃밭이 아파트 단합, 결속력, 신뢰감 형성 등 공동체 강화에 도움을 준다.”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이웃주민과의 사회적 관계 수준과 정(+)의 상관계수에 있는 텃밭 공간 및 프로그램 요소로는 ‘제공되는 씨앗, 모종, 비료 등 만족도’(상관계수: .630), ‘텃밭 관련 교육행사 등 만족도’(상관계수: .570), ‘텃밭 수도, 장비 등 시설 만족도’(상관계수: .486), ‘텃밭 접근성’(상관계수: .468)이 도출되었다. 지역사회 단위의 사회적 관계 수준과는 ‘텃밭 관련 교육행사 등 만족도’(상관계수: .781)가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그 밖에도 ‘텃밭 수도, 장비 등 시설 만족도’(상관계수: .627), ‘제공되는 씨앗, 모종, 비료 등 만족도’(상관계수: .612) 순으로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텃밭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고 이웃을 넘어 지역사회 차원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텃밭 공간 및 시설뿐만 아니라 도시농사 교육 및 각종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7〉 텃밭 공간 및 프로그램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형성의 상관계수 분석결과(노원구 A단지)

구분		텃밭 경관 만 족도	텃밭 위치/ 형태/이 동성선 만 족도	텃밭 접 근성	텃밭 크 기 만 족도	텃밭 수 도, 장비 등 시설 만족도	제공되는 씨앗, 모 종, 비료 등 만족도	텃밭 관련 교육행사 등 만족도	텃밭이 이 웃주민과 의 대화 및 교류에 도움을 준 다.	텃밭이 지 역공동체 강 화에 도움 을 준다
텃밭 경관 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1 30								
텃밭 위치/형태/ 이동성선 만족 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257 .170 30	1 30							
텃밭 접근성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221 .241 30	-.071 .710 30	1 30						
텃밭 크기 만족 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038 .843 30	.335 .070 30	.128 .500 30	1 30					
텃밭 수도, 장비 등 시설 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197 .296 30	-.459* .011 30	.347 .060 30	-.289 .121 30	1				

제공되는 씨앗, 모종, 비료 등 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346 .061 30	-.344 .063 30	.354 .055 30	-.019 .919 30	.465** .010 30	1 30			
텃밭 관련 교육 행사 등 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447* .013 30	-.147 .438 30	.614** .000 30	-.175 .355 30	.586** .001 30	.678** .000 30	1 30		
텃밭이 이웃주민과의 대화 및 교류에 도움을 준다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084 .659 30	-.358 .052 30	.468** .009 30	-.195 .302 30	.486** .007 30	.630** .000 30	.570** .001 30	1 30	
텃밭이 지역공동체 강화에 도움을 준다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183 .334 30	-.410* .024 30	.456* .011 30	-.372* .043 30	.627** .000 30	.612** .000 30	.781** .000 30	.794** .000 30	1 30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2. 노원구 B단지

(1) 이용자 특성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년 65세~74세(81.8%)와 회년 75세 이상(18.2%)의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가족구성은 1인 또는 2인이 가구가 대다수이다. 교육수준과 월평균소득은 낮은 수준이지만 A단지 텃밭 이용자 집단에 비해 다소 높다. 이용집단의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81.8%)이다.

<표4-8> 텃밭 이용자 일반현황(노원구 B단지)

구분		주민 공동 텃밭	
		응답자수(명)	비율(%)
연령대	영유아(0~7세)	-	-
	청소년(8~19세)	-	-
	청년(20~29세)	-	-
	성인(30~44세)	-	-
	장년(45~64세)	-	-
	노년(65~74세)	9	81.8

구분		주민 공동 텃밭	
		응답자수(명)	비율(%)
성별	회년(75세 이상)	2	18.2
	남성	2	18.2
	여성	9	81.8
거주기간	5년-10년미만	-	-
	10-15년미만	-	-
	15년-20년미만	-	-
	20년이상	11	100.0
가족구성	1인	5	45.5
	2인	5	45.5
	3인	1	9.1
	4인	-	-
	5인 이상	-	-
종교	있음	4	36.4
	없음	7	63.6
직업	있음	2	18.2
	없음	9	81.8
교육수준	초등학교	4	36.4
	중학교	2	18.2
	고등학교	2	18.2
	대학교	1	9.1
	대학원 이상	2	18.2
	없음	-	-
월평균소득	50만원 이하	5	45.5
	50~100만원	3	27.3
	100~200만원	3	27.3
	200~300만원	-	-
	기타	-	-
취약 계층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9	81.8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
	한부모 가정	1	9.1
	북한이탈주민	-	-
	장애인	1	9.1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
	기타	-	-
소계		11	100.0

*취약계층 유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요건 기준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집단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이상(3.1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단지의 장애인 텃밭 이용자(2.73점)와 복지관 텃밭 이용자(2.00)에 비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성격을 외향적이고 사람들과도 자주 교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정도 역시 A단지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9〉 텃밭 이용자 건강상태(노원구 B단지)

구분	주민 공동 텃밭	
	평균	표준편차
주관적 건강상태	3.18	1.25
외향적 성격 및 사람들과의 교류 수준	4.45	.93
평소 우울감 정도	1.82	.75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정도	1.91	.94

〈표4-10〉 텃밭 이용자 건강 관련 전문기관 상담 유무(노원구 B단지)

구분		주민 공동 텃밭	
		응답자수(명)	비율(%)
우울증으로 인한 전문가 상담 유무	있다	-	-
	없다	11	100.0
스트레스로 인한 전문가 상담 유무	있다	-	-
	없다	11	100.0

(2) 도시농업 행태

B단지의 텃밭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텃밭을 이용하는 목적은 주로 이웃과의 교류와 친목도모(36.4%)와 건강(18.2%), 봉사활동(18.2%), 생산 활동(18.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한 농작물은 자가소비(63.6%)하거나 아파트 행사에 활용(18.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텃밭은 아파트 이웃 또는 혼자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빈도는 거의 매일 이용(72.7%)이 높게 조사되었다. 텃밭 이용 시간대는 오전, 오후가 가장 많았으며 체류시간은 30~60분(72.7%), 길게는 3시간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4-11〉 텃밭 이용행태(노원구 B단지)

구분		주민 공동 텃밭	
		응답자수(명)	비율(%)
텃밭 이용기간	1년 미만	3	27.3
	1~2년 미만	2	18.2
	2~3년 미만	1	9.1
	3~4년 미만	1	9.1
	4~5년 미만	4	36.4
텃밭 이용목적	건강 증진	2	18.2
	이웃과의 교류와 친목도모	4	36.4
	사회 봉사활동	2	18.2
	가족과 여가활동	-	-
	자녀교육과 학습	-	-
	농작물 생산활동	2	18.2
	취미활동	1	9.1
생산 농작물 활용	기타	-	-
	자가 소비	7	63.6
	친인척 및 이웃과 나눔	1	9.1
	지역봉사 또는 학교기부	1	9.1
	아파트 행사 활용	2	18.2
텃밭 활동 동반 자 유형	기타	-	-
	혼자서	3	27.3
	동네 주민(아파트 이웃)	8	72.7
	가족	-	-
	친구나 애인(다른 지역 거주)	-	-
	관리사무소	-	-
텃밭 이용 빈도	복지관 관계자	-	-
	기타	-	-
	주말 또는 휴일	-	-
	주 1~2회	2	18.2
	주 3~5회	1	9.1
텃밭 이용시간대	거의 매일	8	72.7
	오전	4	36.4
	오후	6	54.5
텃밭 이용시 체 류시간	저녁	1	9.1
	30 ~ 60분	8	72.7
	90 ~ 120분	1	9.1
	150 ~ 180분	-	-
소계	210 ~ 240분	2	18.2
	소계	11	100.0

(3) 도시농업 이용 만족도 분석

B단지의 텃밭 공간과 프로그램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텃밭경관과 텃밭의 위치, 형태, 접근성, 크기, 시설 등 전반적으로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농사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 만족도(3.00점)는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12〉 텃밭 공간 및 프로그램 만족도(노원구 B단지)

구분		주민 공동 텃밭	
		평균	표준편차
텃밭 공간 및 프로그램 만족도	텃밭의 경관(경치, 아름다움)에 만족한다.	4.82	.41
	텃밭의 위치, 형태, 이동에 만족한다.	4.73	.47
	텃밭까지의 접근성(거주하는 동에서 텃밭까지 가는 거리)에 만족한다.	4.73	.47
	텃밭의 크기(공간)에 만족한다.	4.18	.87
	텃밭 수도, 장비 등 시설에 만족한다.	4.45	.52
	제공되는 씨앗, 모종, 비료 등에 만족한다.	4.45	.69
	농사교육, 행사 프로그램 등에 만족한다.	3.00	.00
평균		4.34	-

3. 분석의 종합

두 단지에서 도시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이용자의 특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이용자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한부모 가정, 탈북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A단지의 장애인 텃밭 이용자는 장년층 비중(9명, 60.0%)이 가장 높았고, 복지관 텃밭은 회년층(10명, 66.7%), B단지의 주민 공동 텃밭은 회년층(9명, 81.8%)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높다. 가족 구성

의 경우 1인 또는 2인 가구가 주를 이루고 대부분 독거노인과 부부 단위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장애인 텃밭을 제외하고는 여성 노인 이용자 비율이 높고 직업은 두 집단 모두 대부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월평균소득은 월 50만원 이하로 낮은 수준이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사람들과의 교류 수준, 우울감 및 스트레스 정도 등에 관한 질문 항목에서는 전반적으로 B단지가 A단지에 비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 A단지 장애인텃밭, 복지관 텃밭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는 장애인 텃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무릎, 허리 관절 문제와 당뇨, 혈압, 심장병, 관절, 심근경색, 뇌졸중, 고지혈증, 골다공증 등의 질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도시농업 행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지 내에서 도시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목적은 모든 이용자가 공통적으로 이웃과의 교류 및 친목도모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그 외에 취미활동, 생산 활동, 봉사활동 등으로 조사되었다. 생산한 농작물은 주로 자가소비하거나 이웃과 나눔, 지역봉사 또는 아파트 행사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텃밭 이용자는 지역봉사와 기부, 아파트 행사에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복지관 텃밭과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는 자가소비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용 빈도는 주말 또는 휴일과 주 1~2회, 거의 매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 공동 텃밭은 거의 매일 이용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텃밭의 이용은 오전과 오후 시간대가 많았으며 체류시간은 30~60분의 이용 비율이 가장 많고 길게는 2시간 이상 활동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도시농업 활동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세 집단 모두 텃밭의 경관과 텃밭까지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 수준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텃밭 이용자의 경우 텃밭 수도 및 장비 등과 제공되는 비료, 씨앗, 모종 등 시설에 관

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장애인 텃밭과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복지관 텃밭의 경우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에 의해 교육, 행사와 텃밭 시설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으나 텃밭의 규모와 위치, 형태에 관한 사항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텃밭과 주민 공동 텃밭은 주민조직이 운영·관리를 주도하는 만큼 농사교육과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애인 텃밭의 경우 신체적으로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확물 재배 및 관리를 위한 지원과 텃밭 내부 구조와 이동성, 시설물 형태 등에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텃밭 공간 및 프로그램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형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텃밭이 이웃주민과의 대화 및 교류에 도움을 준다.”와 “텃밭이 아파트 단합, 결속력, 신뢰감 형성 등 공동체 강화에 도움을 준다.”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A단지의 경우 이웃 단위의 사회적 관계 수준은 ‘제공되는 씨앗, 모종, 비료 등 만족도’, ‘텃밭 관련 교육행사 등 만족도’, 등이 도출되었다. 지역사회 단위의 사회적 관계 수준은 ‘텃밭 관련 교육행사 등 만족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 이웃을 넘어 지역사회 차원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텃밭 공간 및 시설뿐만 아니라 도시농사 교육 및 각종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2절 사회적 관계망 특성 분석

4장에서는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시키거나 기존 관계망을 강화 또는 확장시키는 관점에서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크게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측면에서 관계망의 규모와 형태, 연결정도, 접촉빈도 등을 파악하였고, 기능적인 면에서 관계망에 속한 이웃들이 서로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개인이 지각하는 관계의 만족도와 감정적인 교감 수준 등을 파악하였다.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심구조 분석을 통해 어떤 사람이 활동의 중심에 있고, 전체 네트워크 구조가 얼마나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집중화 정도를 파악하였다. 누가 가장 많이 직접적인 교류를 하는지, 정보 흐름의 중심에 있는지, 크고 작은 그룹의 매개 역할을 하는지 등 네트워크 구조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적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안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파악하고 그 사람에 대한 특징과 역할, 기능 등 구성원 내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둘째, 응집구조 분석을 통해 전체 네트워크 안에 형성된 크고 작은 그룹을 확인하였다.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룹이 몇 개의 단위로 나누어져 있는지와 각 그룹 내 밀도, 그룹 간의 밀도를 파악하였다. 그룹별 활동로 화동의 특징과 그룹끼리의 연결 또는 단절 여부도 확인하였다. 또한 도시농업 네트워크 내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정서적 유대 수준과 사회적 지원 여부를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이용자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근린 애착심과 관련하여 생활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지 별 결과 내용의 비교 고찰을 통해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차이와 공통적인 특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표4-13〉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특성 분석 내용

구분		분석 내용
중심 구조 분석	Degree Centrality (연결 중심성)	직접 연결된 노드가 많아 중심성이 높음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사람을 의미함
	Closeness Centrality (근접 중심성)	근접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가장 빨리 다른 노드에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음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함
	Between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	매개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정보 흐름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며 네트워크 전체 연결과 흐름에 영향을 미침
응집 구조 분석	Community (응집그룹)	네트워크 안에서 형성된 조밀한 관계를 그룹으로 모아줌 네트워크 안에 긴밀한 관계를 지닌 소규모 그룹(clusters)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와 각 그룹의 밀도를 확인함

자료: ㈜사이람의 NetMiner를 이용한 소셜네트워크 분석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 노원구 A단지

(1)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특성

노원구 A단지에는 단지 내 중앙에 위치한 복지관 옥상 텃밭과 단지 외곽에 위치한 장애인 텃밭 두 곳이 있다. 장애인 텃밭은 공원으로 조성하려던 부지를 SH공사에서 주민 공동체 활성화 명목으로 단지 내에서도 활동이 가장 취약한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여 조성한 것이다. 육체적 활동이 제한된 장애인들의 활동성을 제고하고 이웃 주민과의 화합하는 것이 당초 취지이다. 조성된 이후 운영·관리는 A단지 거주민으로 구성된 장애인 협회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A단지의 장애인 텃밭 이용자들의 경우 텃밭활동을 통해 자주 교류하는 이웃의 수가 평균 9.8명(표준편차 6.94명), 복지관 텃밭 이용자들은 평균 7.3명(4.15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웃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교류빈도의 경우 장애인 텃밭 이용자 집단은 ‘거의 매일’(10명, 66.7%), 복지관 텃밭 이용자 집단은 ‘주1~2회’(7명, 46.7%)가 가장 많았다. 복지관의 경우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주일에 한번 정기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용자 간 교류빈도가 다소 낮은 편이다.

〈표4-14〉 노원구 A단지 텃밭 이용자 이웃과의 교류빈도

구분	장애인 텃밭		복지관 옥상 텃밭	
	응답자수(명)	비율(%)	응답자수(명)	비율(%)
거의 하지 않음	-	-	-	-
주말 또는 휴일	1	6.7	-	-
주 1~2회	2	13	7	46.7
주 3~5회	2	13.3	3	20.0
거의 매일	10	66.7	5	33.3
소계	15	100.0	15	100.0

① 장애인 텃밭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 교류하는 이웃과의 관계망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 텃밭의 경우 집중된 노드(node)²⁰⁾의 수가 많고 넓게 퍼져있으며 강한 중심성을 갖는 핵심 노드와 크고 작은 노드를 중심으로 연결된 형태이다. 대체로 링크(link)의 연결 정도는 높은 편이고 정보공유가 원활이 일어나는 형태이다. Network Degree Centralization Index는 네트워크단위로서 집중화 정도를 나타낸다. 영향력이 얼마나 소수에게 집중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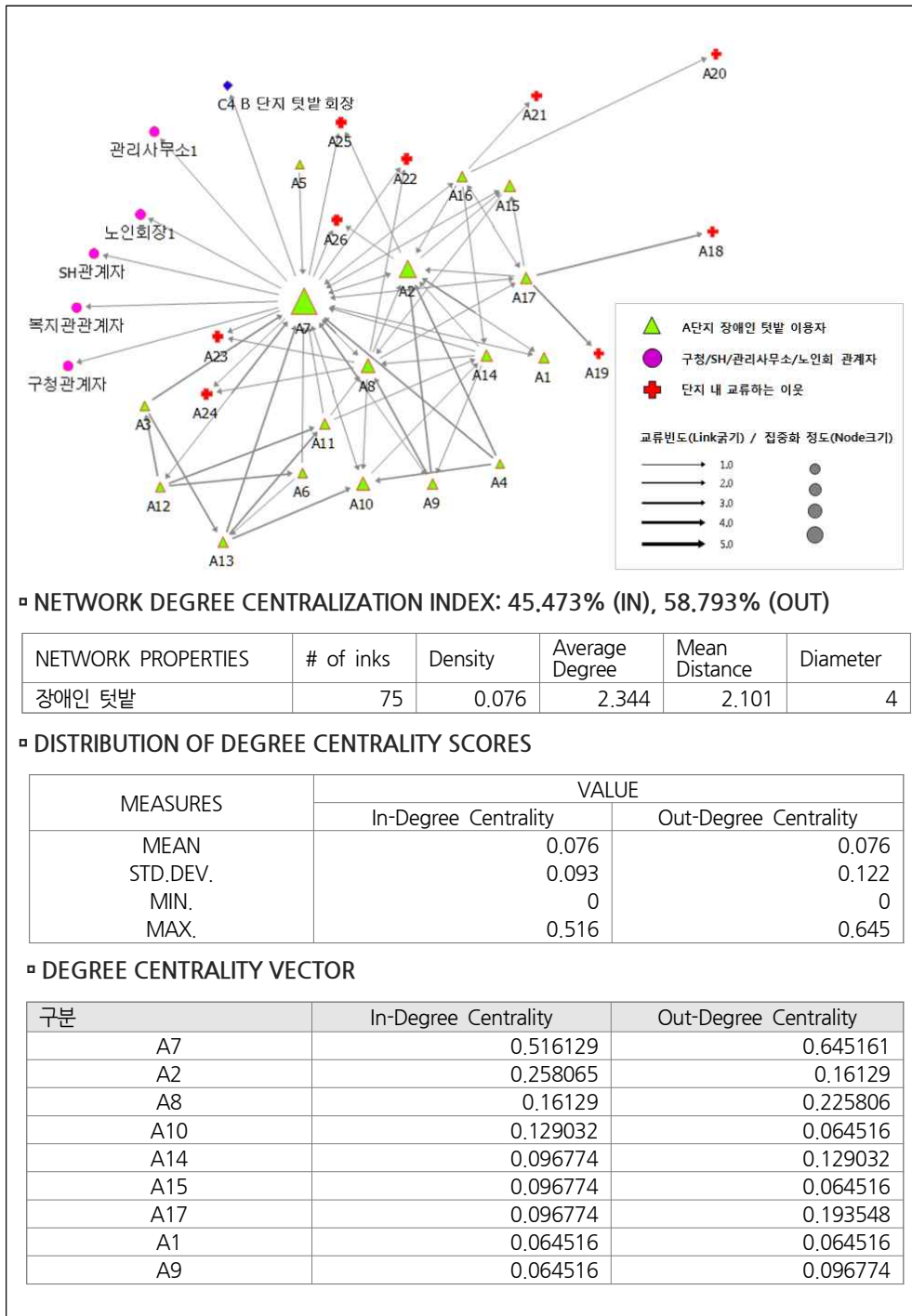
20) 노드(node)는 조사 대상자가 도시농업 활동을 할 때 교류하는 이웃으로 지목한 사람을 의미하고 링크(link)는 지목된 교류하는 대상과의 교류빈도를 가중치로 부여한 것이다.

있는가를 의미하며 값이 클수록 소수에 몰린다는 뜻이다. 그림4-1을 살펴보면 텃밭활동을 통해 자주 교류하는 대상으로 장애인 협회 소속이 아닌 사람을 지목한 경우는 봉사자와 일부 아파트 주민 지원자, 그 외에 구청, SH공사 관리사무소, 노인회 관계자이다. 아파트 주민의 경우 주요 행사에 필요시 협력하는 사람들을 지목하였다. 이 조차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1인을 중심으로 관계망이 퍼져있다.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 이웃과의 교류 범위가 단지 내 다양한 사람들로 확장된다기보다 장애인 협회에 소속된 사람들 간의 관계망이 더욱 긴밀한 경향을 나타낸다.²¹⁾ 하지만 텃밭이 조성 된지 3년 남짓한 시점이기 때문에 관계망이 향후 봉사자나 아파트 주민 지원자들 통해 다양한 대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텃밭활동이후에 그냥 더 자주만나고 분위기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무실에 임원이었지만 가족 같은 느낌 식구 같은 느낌, 그 정도로 많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 000 A단지 장애인 텃밭 이용자)

처음에 난 여기 와서 그렇게 친한 사람 없었어. 2002년에 와가지고, 서먹서먹하잖아. 그럼 대충 와서 놀다 가면은 친해지는 사람 있잖아. 텃밭하고 더 만나지. 자주 만나게 되지. (남, 000 A단지 장애인 텃밭 이용자)

21) 관계망 형성 범위에 관한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영향 요인은 제 5장 사회적 관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농업 속성 해석에서 밝힌다.



〈그림4-2〉 노원구 A단지 장애인 텃밭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망 중심 구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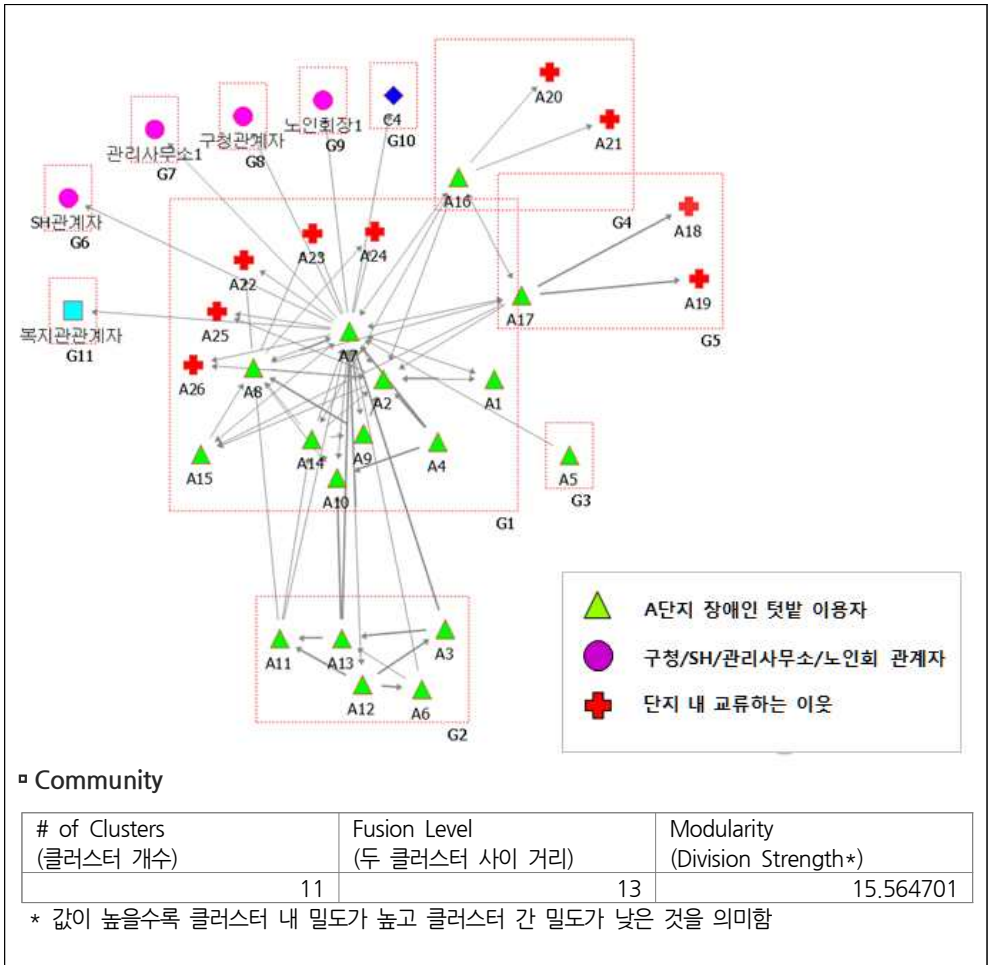
〈표4-15〉 노원구 A단지 장애인 텃밭 조사 대상자 특성

구분	성별	연령*	거주 기간	가족 구성	직업 유무	취약계층 유형	텃밭 외 활동(1달 1회 이상)	질병
A1	남	회년	15년-20년미만	4인	없음	장애인2급	장애인협회	당뇨, 통풍, 고혈압
A2	남	노년	20년이상	1인	있음	장애인6급	장애인협회	-
A3	여	노년	15년-20년미만	1인	없음	장애인6급	장애인협회	-
A4	여	회년	10-15년미만	2인	없음	장애인6급	장애인협회	-
A5	남	장년	15년-20년미만	2인	없음	장애인4급	장 애 인 협 회, 성당	-
A6	여	노년	15년-20년미만	2인	없음	장애인6급	장애인협회	-
A7	남	장년	20년이상	4인	없음	장애인5급	장애인협회	디스크, 고 혈압, 당뇨
A8	남	장년	10-15년미만	2인	없음	장애인6급	장애인협회	당뇨
A9	남	장년	20년이상	2인	없음	장애인4급	장 애 인 협 회, 교회	-
A10	남	장년	20년이상	4인	없음	장애인4급	장 애 인 협 회, 교회	-
A11	남	장년	20년이상	1인	없음	장애인6급	장애인협회	-
A12	여	장년	20년이상	3인	있음	장애인6급	장애인협회	-
A13	여	장년	20년이상	1인	없음	장애인4급	장애인협회	-
A14	여	노년	20년이상	2인	없음	장애인3급	장애인협회	-
A15	여	장년	20년이상	1인	있음	장애인3급	장애인협회	-
A16	남	장년	20년이상	3인	있음	봉사자	인근아파트 거주자	-
A17	여	장년	20년이상	3인	있음	봉사자	인근아파트 거주자	-

* 장년(45~64세), 노년(65~74세), 회년(75세 이상)

관계망 분석 결과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모두 A7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7은 장애인 그룹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이

가장 많고 정보의 흐름과 네트워크 전체의 연결성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지닌 사람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A2, A8, A10, A17은 근접 중심성이 높은 대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그림 4-2).



<그림4-3> 노원구 A단지 장애인 텃밭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망 응집구조 분석

위의 그림은 전체 네트워크 안에서 형성된 크고 작은 그룹을 나타낸 것이다(그림 4-3). 네트워크 안에 긴밀한 관계를 지닌 소규모 그룹(clusters)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와 각 그룹의 밀도를 확인한 결과 장애인 텃밭 그룹

은 그룹 내 크게 4개의 소그룹이 확인되었다. 강한 중심성을 갖는 A7을 중심으로 텃밭 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룹의 밀도 값은 15.564701으로 복지관 텃밭에 비해 그룹 내의 밀도가 높고 그룹 간 밀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 텃밭은 A7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크고 소규모의 커뮤니티가 또 다른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 내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 협회에 소속된 주민을 중심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망의 형성 보다 기존의 관계망이 강화되거나 확장되는 구조로 나타났다.

② 복지관 옥상 텃밭

복지관 텃밭의 경우 비록 규모와 운영 주체에 차이가 있으나, 영구임대주택에서도 일상에서 사회적 교류가 단절된 거주민을 밖으로 유도하고 최소한의 관계 맺음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시키는데 의미가 있다²²⁾. 복지관 옥상 텃밭의 경우 1인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로서 전체 구조적으로 약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교류의 범위가 극소수 단위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나 의견을 공유하는 주민이 적고 연결이 단절된 소규모의 관계망을 형성한다. 활동 과정에서 이웃보다 복지관 관계자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 관계자의 중심성이 높아 이용자 간의 관계망 수준은 다소 낮은 편이다(그림 4-4). 그러나 참여자 모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고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도 관심을 갖는 모습을 나타냈다. 비록 결속력을 높이고 관계망의 규모를 키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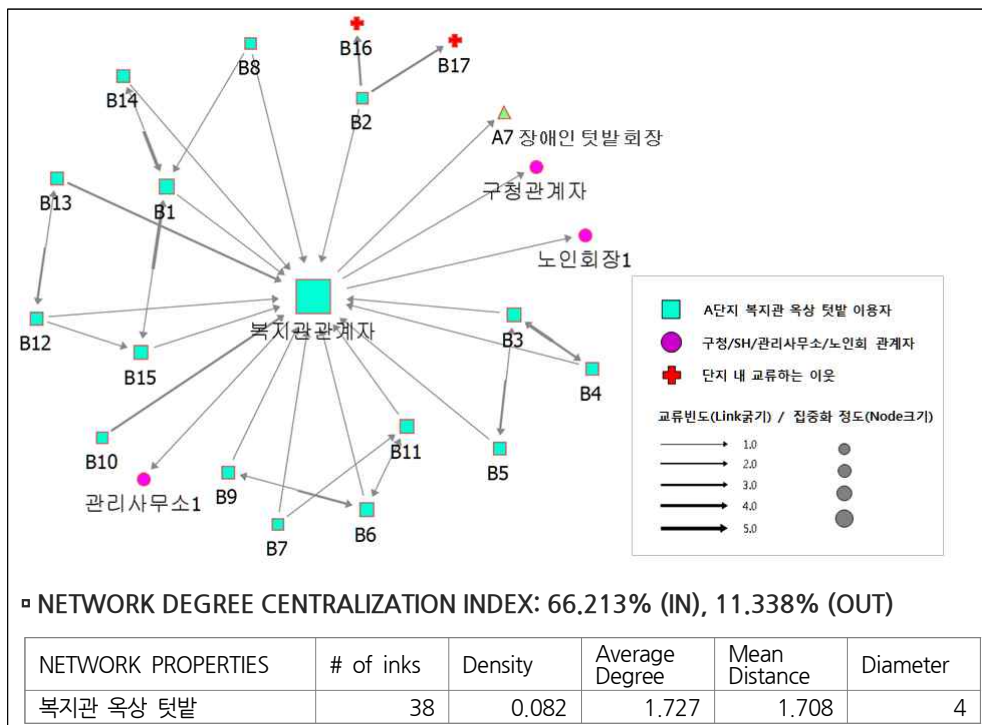
22) 본 연구는 지원 주체와 텃밭의 유형이 다르지만 특정 커뮤니티의 기반이 없이 외부 활동에 위촉되어 사회적 교류가 단절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 옥상 텃밭이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분석에 포함하였다.

텃밭은 작년부터 이용했다. 처음에 과장님의 권유로 하게 됐다.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서 하게 됐다. 몸이 아파서 집에서 계속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게 됐다. (여, 000 A단지 복지관 옥상텃밭 이용자)

텃밭을 작년부터 했다. 텃밭은 집에서 노인들 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하게 됐다. 집에 아저씨가 환자이기도 하고 밖에 나가기 위해서 텃밭을 하게 됐지. (여, 000 A단지 복지관 옥상텃밭 이용자)

텃밭활동 외에 활동하는 것은 없어. 그러면은 여기 활동 안하던 때는 계속 집에 있지. 텃밭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친근감이 들지. 거진 혼자라서 비슷해. 텃밭활동은 계속하고 싶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이다.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장소 가는 데가 없어. 거의 집에서만 보낸다. (여, 000 A단지 복지관 옥상텃밭 이용자)

오늘 오랜만에 같이 하는 사람들 보는 줄 알고 왔는데 아니네... 나는 텃밭 활동 외에 활동하는 것은 없어. 여기 활동 안하던 때는 계속 집에만 있고, 나는 집에 계속 가만히 있거나 티비만 본다. 밖에 잘 나가지 않는다.” (여, 000 A단지 복지관 옥상텃밭 이용자)



▣ DISTRIBUTION OF DEGREE CENTRALITY SCORES		
MEASURES	VALUE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MEAN	0.082	0.082
STD.DEV.	0.142	0.058
MIN.	0	0
MAX.	0.714	0.19

▣ DEGREE CENTRALITY VECTOR		
구분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복지관관계자	0.714286	0.190476
B1	0.142857	0.142857
B3	0.095238	0.142857
B6	0.095238	0.142857
B11	0.095238	0.095238
B15	0.095238	0.095238
B4	0.047619	0.095238

〈그림4-4〉 노원구 A단지 복지관 옥상 텃밭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망 중심 구조 분석

〈표4-16〉 노원구 A단지 복지관 옥상 텃밭 조사대상자 특성

구분	성별	연령 *	거주 기간	가족 구성	직업 유무	취약계층 유형	텃밭 외 활동(1달 1회이상)	질병
B1	여	장년	5년-10년미만	2인	없음	기초생활 수급자	-	-
B2	여	노년	5년-10년미만	2인	없음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정	당뇨, 고혈 압
B3	여	회년	20년이상	1인	없음	기초생활 수급자	공원, 교 회	다스, 관절 고혈압, 심장
B4	여	회년	10-15년미만	1인	없음	기초생활 수급자	-	고혈압
B5	여	회년	20년이상	1인	없음	기초생활 수급자	공원	관절
B6	여	노년	20년이상	1인	없음	기초생활 수급자	공원	심근경색, 관절염
B7	여	회년	20년이상	2인	없음	기초생활 수급자	-	심근경색, 고혈압
B8	여	회년	20년이상	1인	없음	기초생활 수급자	교회	골다공증
B9	여	회년	20년이상	1인	없음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정	고지혈증, 심부전증

								뇌경색
B10	여	회년	15년-20년미만	2인	없음	북한이탈 주민	공원	혈압
B11	여	노년	20년이상	1인	없음	기초생활 수급자	-	고혈압
B12	여	노년	20년이상	2인	없음	기초생활 수급자	-	관절염
B13	여	회년	20년이상	1인	없음	기초생활 수급자	-	관절
B14	여	회년	20년이상	2인	없음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정	-
B15	여	회년	20년이상	2인	없음	기초생활 수급자	교회	고 지 혈 증 , 고혈압

* 장년(45~64세), 노년(65~74세), 회년(75세 이상)

복지관 텃밭 이용자는 관계망 분석 결과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모두 복지관 관계자가 높게 나타났다. 복지관 관계자 외에는 중심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텃밭 프로그램에 참여 할 때에 교류하는 이웃의 수가 평균 7.3명(4.15명)이지만 실제 친밀감을 느끼고 텃밭 이외에 활동을 함께하거나 정보를 교류하는 대상은 1~2인에 한정되었다.

텃밭활동에서 과장님이 다 해놓기 때문에. 과장님이 힘든 일을 다해놓아서 우린 편해. 과장님이 너무 좋다. (여, 000 A단지 복지관 옥상텃밭 이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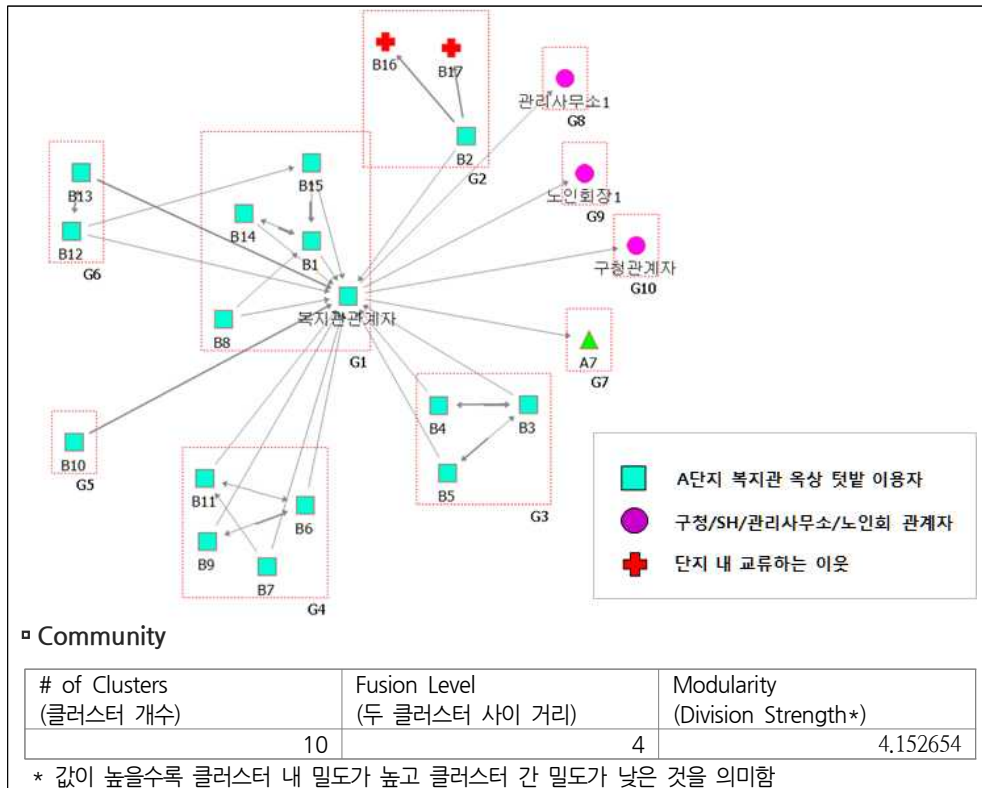
이웃사람들하고 교류가 많아지긴 했지. 텃밭활동하면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근데 이 중에서 친한 사람은 막상 없다. 중국에서 와서 여기 말을 잘 못하고 여기분들이 교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친해지기가 어렵지. 마음 열기도 힘든 것 같고... (여, 000 A단지 복지관 옥상텃밭 이용자)

텃밭 작업 할 때 도움 되는 사람은 없고 거기서 그냥 서로 각자 하는데 다하고 채소를 나누기도 한다. 텃밭 할 때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여, 000 A단지 복지관 옥상텃밭 이용자)

텃밭 할 때 10~11명인가 하는데, 삼년하면서 아는 사람이 생겼지, 작년에 새로 들어온 사람하고는 잘 친하지 않아 (여, 000 A단지 복지관 옥상텃밭 이용자)

나는 집에 계속 가만히 있거나 밖에 잘 안 나가지. 그리고 밥 먹으로 사회복지관

에도 안가. 그래서 생전 아는 사람이 없는데...여기는 사람들하고 만나려고 와. 다른 데 가는 데가 없다. 여기 말고는 거의 집에서만 보내지. (여, ooo A단지 복지관 옥상텃밭 이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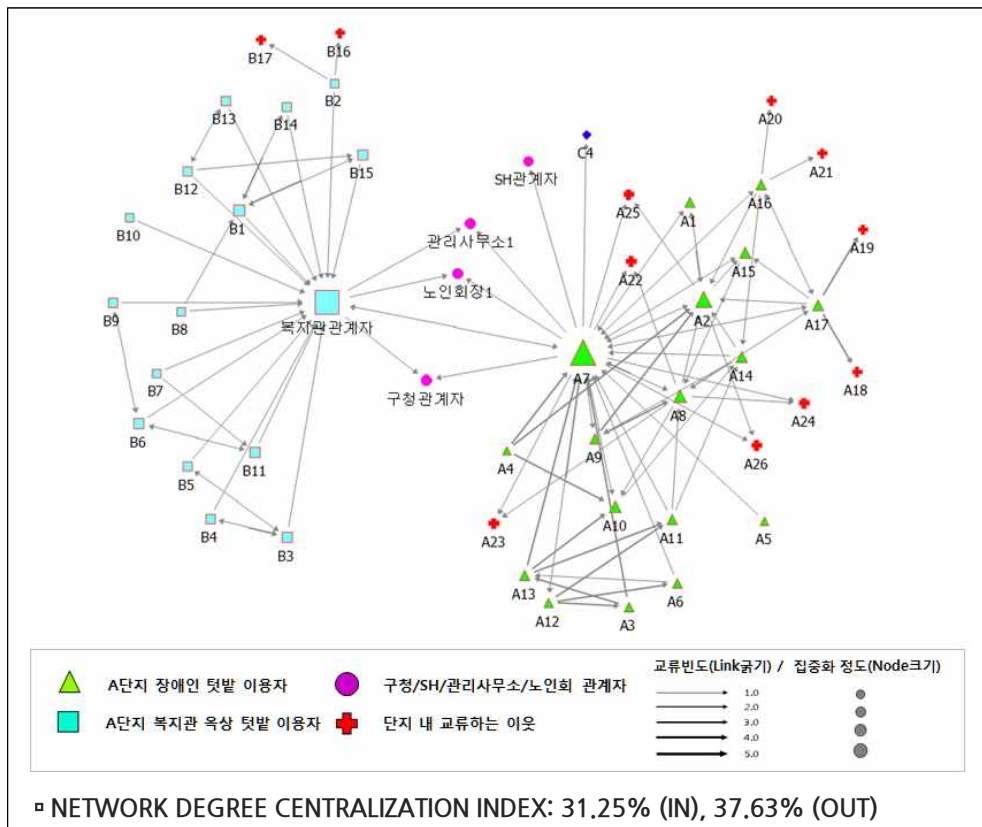


〈그림4-5〉 노원구 A단지 장애인 텃밭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망 응집구조 분석

소규모 그룹(clusters)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와 각 그룹의 밀도를 확인한 결과 복지관 텃밭은 크게 3개의 그룹 확인되었다(그림4-5). 그룹의 밀도 값은 4.152654으로 장애인 텃밭에 비해 그룹 내의 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소규모의 그룹이 형성되어 있지만 복지관 관계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그룹간의 연결성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뷰에 따르면 복지관 텃밭은 간병,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 외에는 외부 활동이 거의 없거나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활동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2) 핵심인물(key person)의 관계망과 영향력

A단지의 관계망 전체 구조를 종합해 보면 장애인 텃밭의 경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크고 작은 중심인물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전체 또는 부분의 그룹이 형성되면서 그 가운데 가장 큰 중심 역할을 하는 핵심 인물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4-6〉 노원구 A단지 전체 텃밭 이용자의 중심 구조와 영향력

여기서 핵심인물은 외부 활동가나 복지관의 관리자가 아닌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주민이다. 그가 대표가 되어 운영비 조달을 포함한 텃밭의 관리.

운영을 총괄²³⁾하고 있다. 핵심인물은 관리사무소, 노인회, 구청, SH공사 등 도시농업 활동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지원조직과 협력조직과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그리고 그 정보는 내부의 크고 작은 매개 중심 역할의 사람들을 통해 전달되고 의견이 공유되는 체계이다. 복지관의 경우 장애인 텃밭과 달리 핵심인물이 존재하나 복지관 관리자에게 역할과 영향력이 집중된 형태이다. 복지관 텃밭의 경우 활동의 제약이 많아 외부 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교류와 스트레스 해소, 치유 활동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복지관 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텃밭 활동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상시 지원하고 새로운 참여자를 모색하거나 기존 참여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핵심인물의 역할과 영향력은 다음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텃밭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사람이 “000” 텃밭회장이 다해, 우리한테 “뭐해야 돼” 하면 우린 오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활채어 때문에 이동이 어려운 것도 회장이 바닥을 바꿔서 편해 진거야. (여, 000 A단지 장애인 텃밭 이용자)

“000” 하고 같이 움직이는 활동을 씨앗을 사러간다거나 항상 거의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예요. (남, 000 A단지 장애인 텃밭 이용자)

“000” 이지. 다 거기서 활동을 하니깐. 뭐 한다고 나오고. 만나면 텃밭 얘기도 하고, 다른 얘기도. 토론도 하고 그렇지. (남, 000 A단지 장애인 텃밭 이용자)

과장님이 너무 좋다. 텃밭 계속 하고 싶다. 올 때마다 제일 좋은 건 나를 불러줬다는게 정말 감사하다. (여, 000 A단지 복지관 텃밭 이용자)

“텃밭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친근감이 들어 이용자들이 거진 혼자라서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 과장님이 같이 모여서 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줬어 개인적인 일은 여기 사람들하고 안하는데 그대로 텃밭 만나는 사람들 하고는 친근감이 든다. 같이 가서 음식해서 먹고 그랬었다.” (여, 000 A단지 복지관 옥상텃밭 이용자)

23) SH공사에서 텃밭 조성해 준 이후에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조달하고 구체적인 관리 방식을 정하여 활동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관한 세부 내용과 한계점은 제 5장 사회적 관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농업 속성 해석에서 밝힌다.

또한 SH에서 지원하는 A, B단지의 공동 프로그램인 배추 나눔 행사를 통해 약하지만 새로운 관계망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각 단지에서 한해 수확한 배추를 모아서 함께 김치를 담그고 단지 내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나누어 주는 공식 행사이다. 1년에 한번 타 단지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유일한 행사이다.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관계망을 확장시키기 위해 두 단지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하면서 동네 사람들 안 친한 사람들도 좀 친해지고, 그러는 거지. 더 많이 알게 되지. 그래도 단지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아직 잘 몰라. 서로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그런 거지. 인사 나눌 수 있는, 그 정도만 되어도 좋은데... (남, 000 A단지 장애인 텃밭 이용자)

다른 아파트 주민들과는 배추 나눌 때, 예를 들어서 하계동이라 하면 그 쪽에서 다 와요. 거기도 텃밭이 있어요. 거기 배추를 다 뽑아서 와요. 다 모여가지고 김장 배추 같이 하는 거지. 일년에 한 번씩만 만나는데 안면만 있는 정도고. 일부러 연락저거 하진 않고. (남, 000 A단지 장애인 텃밭 이용자)

(3) 도시농업을 통해 교류하는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 수준

텃밭활동을 통해 만나게 된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 수준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장애인 텃밭과 복지관 옥상텃밭 이용자 모두 텃밭을 통해 알게 된 이웃과 보통 이상의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근감을 느낀다.’, ‘공통점이 있다고 느낀다.’ 등의 인식 형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장애인 텃밭 이용자 집단이 복지관 텃밭 이용자 집단에 비해 사회적 관계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면이 없던 사람들이 모여 활동이 지속된 복지관 이용자와 달리 장애인 텃밭 이용자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관계의 수준이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 더욱 긴밀

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표4-17〉 노원구 A단지 텃밭활동을 통한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 수준

구분	장애인 텃밭		복지관 옥상 텃밭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친근감(친하고 가까운 느낌)을 느낀다.	4.00	.85	4.13	.52
나와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고 느낀다.	3.93	.59	4.00	.76
종종 집에 초대해 식사를 한다.	3.00	1.51	3.87	1.19
아파트 아닌 다른 곳에서도 함께 하는 활동(여행, 쇼핑, 영화 등)이 있다.	3.93	.88	2.07	.96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울적할 때 만나면 위로가 된다.	3.33	.72	3.87	.74
개인 문제(건강, 가족갈등, 걱정, 근심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3.53	.99	3.07	.96
평소 도움이 되는 정보나 지식을 알려준다.	3.60	1.18	4.00	.76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허드렛일 등 이것저것 도와준다.	3.47	.64	2.87	1.30
돈이나 물건이 필요할 때 최대한 마련해 준다.	3.33	1.11	2.07	.96
평균	3.57	-	3.33	-

응답자들은 대체로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와 지역(노원구)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고, 지역사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수준이 보통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장애인 텃밭 이용자의 경우 봉사활동 참여 (4.07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파트 자연환경(장애인 텃밭 3.87점, 복지관 텃밭 4.40점)에 대한 만족도와 정주의식(장애인 텃밭 4.07점, 복지관 텃밭 4.27점) 수준은 두 그룹 모두 높게 나타났다. 계속 거주하고 싶은 이유는 고령자이고 이미 10~20년 이상 거주하여 생활이 익숙하다는 점과 시설이 노후화 되었지만 주변 교통과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표4-18〉 노원구 A단지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수준

구분	장애인 텃밭		복지관 옥상 텃밭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우리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살기 좋다고 생각한다.	3.73	1.10	4.20	.77
우리 아파트 사람들은 서로 믿고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40	1.12	3.67	.82
아파트 문제(시설보수, 안전, 주차 등)에 적극 의견을 제시한다.	3.67	.90	3.60	1.12
아파트 안전 환경(사고, 폭력, 범죄예방)에 만족한다.	3.60	.91	3.73	.70
아파트 자연환경(꽃, 나무, 잔디밭 등)에 만족한다.	3.87	.74	4.40	.63
나는 계속 이곳에 살고 싶다.	4.07	1.03	4.27	.70
나는 노원구 지역문제(교통, 환경오염, 정책 등)에 관심이 높다.	3.80	1.21	3.73	.88
나는 노원구 봉사활동(이웃돕기 행사 등)에 참여한다.	4.07	.80	3.07	1.22
평균	3.78	-	3.83	-

2. 노원구 B단지

B단지 거주민들은 단지 내에 외곽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민 공동 텃밭을 이용하고 있다. 텃밭은 주민 봉사단이 가꾸는 공동텃밭과 경로당 텃밭, 분양 텃밭으로 구분된다. 분양 텃밭의 경우 선착순으로 토지를 2평 기준으로 4~6만원의 분양비를 받아 배분하고, 그 수익으로 아파트 전체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와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수익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정 커뮤니티가 점유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망의 형성이 기대되고, 최소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의 활동하기 때문에 기존에 안면이 있거나 관계의 깊이가 낮았던 사람들 간의 관계망이 강화되고 확장되는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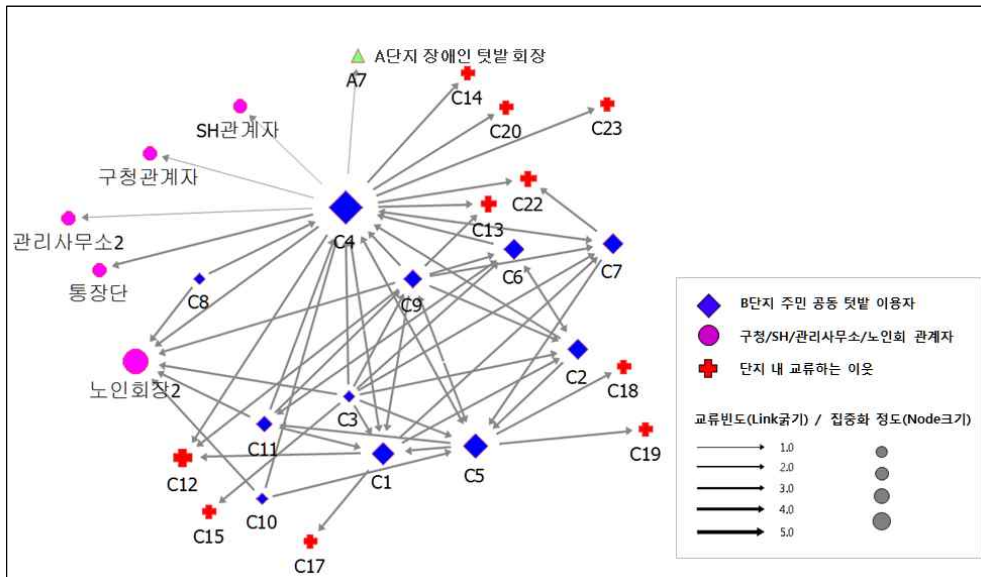
한편,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집단은 거의 매일 이웃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 교류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단지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지만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참여 의지가 높은 구성원들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4-19〉 노원구 B단지 텃밭 이용자 이웃과의 교류빈도

구분	주민 공동 텃밭	
	응답자수(명)	비율(%)
거의 하지 않음	-	-
주말 또는 휴일	-	-
주 1~2회	-	-
주 3~5회	-	-
거의 매일	11	100.0
소계	11	100.0

(1)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특성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 교류하는 이웃과의 관계망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단지의 경우 집중된 노드(node)의 수가 많고 넓게 퍼져있는 형태이다. 링크(link)의 연결 수준으로 보아 대체로 교류가 빈번하고 정보공유가 많이 일어나 구성원 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텃밭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이 새로운 참여를 유도하여 매개 중심의 역할을 하거나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신규 참여자의 연결성이 확보되는 구조를 나타낸다. 이들 링크의 연결수준은 낮지만 핵심인물을 중심으로 관계망을 시작하여 향후 연결성이 강화될 가능성을 지닌다.



▣ NETWORK DEGREE CENTRALIZATION INDEX: 30.621% (IN), 50.592% (OUT)

NETWORK PROPERTIES	# of inks	Density	Average Degree	Mean Distance	Diameter
주민 공동 텃밭	63	0.09	2.333	1.846	4

▣ DISTRIBUTION OF DEGREE CENTRALITY SCORES

MEASURES	VALUE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MEAN	0.09	0.09
STD.DEV.	0.088	0.142
MIN.	0	0
MAX.	0.385	0.577

▣ DEGREE CENTRALITY VECTOR

구분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C4	0.384615	0.576923
C5	0.230769	0.230769
노인회장2	0.230769	0
C1	0.192308	0.192308
C2	0.153846	0.115385
C6	0.153846	0.115385
C7	0.153846	0.115385
C9	0.115385	0.346154
C12	0.115385	0
C11	0.076923	0.192308

<그림4-7> 노원구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망 중심 구조 분석

〈표4-20〉 노원구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조사대상자 특성

구분	성별	연령*	거주 기간	가족 구성	직업 유무	취약계층 유형	텃밭 외 활동(1달1 회이상)	질병
C1	여	회년	20년이상	1인	없음	장애인4급	노인정, 교 회, 봉사	디스크, 심 장, 관절
C2	여	노년	20년이상	1인	없음	독거노인	노인정, 봉 사	고혈압, 관 절
C3	여	노년	20년이상	1인	있음	독거노인	노인정	관절
C4	남	노년	20년이상	2인	없음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정	-
C5	여	노년	20년이상	2인	없음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정	-
C6	여	노년	20년이상	1인	없음	한부모가정	교회, 센터	당뇨, 고지 혈증
C7	여	노년	20년이상	1인	있음	기초생활 수급자	교회	고혈압
C8	남	회년	20년이상	3인	없음	기초생활 수급자	집	심근경색
C9	여	노년	20년이상	2인	없음	기초생활 수급자	집	고혈압
C10	여	노년	20년이상	2인	없음	기초생활 수급자	집	-
C11	여	노년	20년이상	2인	없음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정	골 다 공 증, 고혈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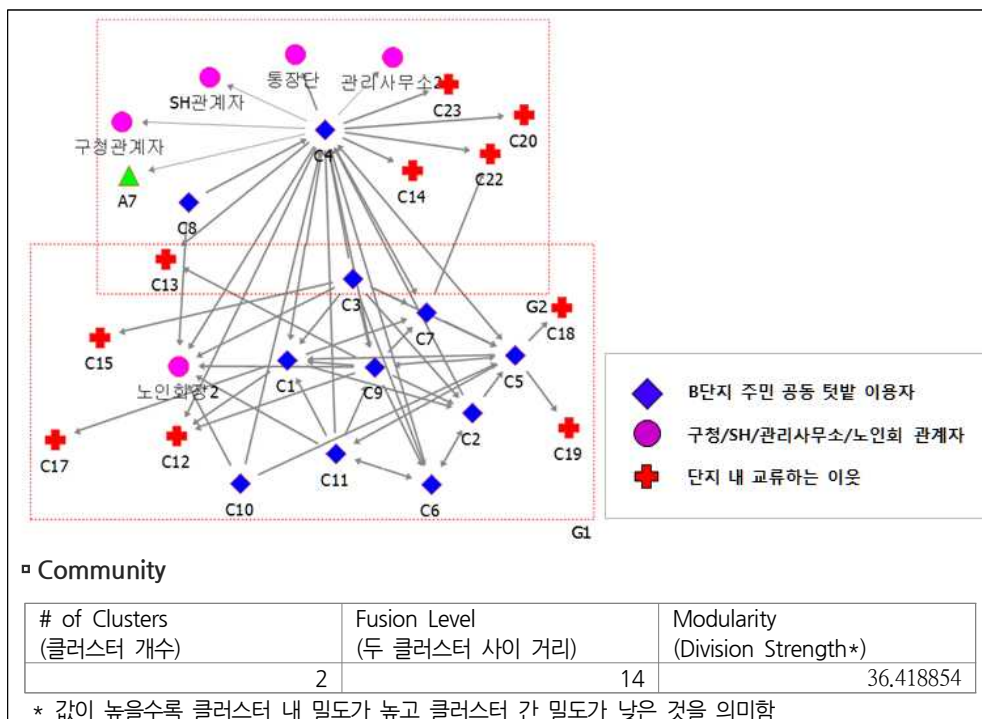
* 장년(45~64세), 노년(65~74세), 회년(75세 이상)

B단지 주민 공동 텃밭의 관계망 분석 결과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C4와 C1, C5, C7, 노인 회장이 높게 나타났다.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C4와 C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은 C4가 영향력이 높고 정보 전달과 네트워크 연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7). A단지 장애인 텃밭과 마찬가지로 내부 결속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주민 간 관계망이 더욱 확장되고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텃밭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더 친해졌어. 취미는 없지만 사람들 보는게 좋아.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여, 000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같은 아파트 주민들과 전보다 더 어울리게 되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5명 정도 (여, 000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이걸 하다보니깐 사람들하고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오후에 할까 의논도 하고 자주 보지. 같이 뭘 사러가기도 하고 주말에 가족들 오면 저기 차타고 나가서 씨앗이랑 모종 같은거 사오면 여기 같이 하는 사람하고 나누기도 하지. (여, 000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그림4-8> 노원구 A단지 장애인 텃밭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망 응집구조 분석

소규모 그룹(clusters)의 밀도를 확인한 결과 주민 공동 텃밭은 크게 2개의 소그룹이 확인되었다(그림4-8). 다른 텃밭에 비해 이용자 간 결속력이 높은 수준이다. 그룹의 밀도 값 역시 36.418854로 높게 나타났다. 텃밭 회장인 C4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안에서 이용자들 간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교류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2) 핵심인물(key person)의 관계망과 영향력

B단지 또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크고 작은 중심인물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그 가운데 가장 큰 중심 역할을 하는 핵심 인물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인물은 형성된 커뮤니티 안에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참여자가 커뮤니티에 소속되도록 연결해 주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A단지와 같이 핵심인물은 외부 활동가나 복지관의 관리자가 아닌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주민이다. 마찬가지로 운영비 조달을 포함한 텃밭의 관리·운영을 총괄²⁴⁾한다. 관리사무소, 노인회, 구청, SH공사 등 도시농업 활동 지원조직 및 협력조직과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핵심인물을 중심으로 대외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영향력이 집중된 형태이나 텃밭 커뮤니티 내에 결속력을 유지하는 크고 작은 인물들의 중심성 역시 강화되어 있는 형태이다. 특이한 것은 B단지의 경우 영향력이 높은 핵심인물이 이웃의 신뢰를 기반으로 관리의 권한이 강화되어 텃밭 시설과 환경을 조정하거나 확장하기도 하고, 단지 내외로 텃밭 공간의 폐쇄성을 낮추거나 주변 환경의 정비에도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핵심인물의 영향력이 텃밭 공간을 매개로 아파트 단지 내 사람, 조직, 환경에 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회장님이 다 알아서 잘 해주니까. 신경 안써도 다 알아서 해주셔. 농사도 지어놓으면 노인정서 다 나눠먹고, 남으면 또 다 나눠주고. 농사만 지어놓으면 당신은 안 갖다 먹고 다 나눠주고 해줘. 그 양반은 봉사 하는 거야, 한마디로. (여, 000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처음에 회장님이 저 쪽에 밭이 있다고 해서 하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거기 공터가 있었거든요. 그걸 회장님이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거지. (여, 000 B단지)

24) SH공사에서 텃밭 조성해 준 이후에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조달하고 구체적인 관리 방식을 정하여 활동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관한 세부 내용과 한계점은 제 5장 사회적 관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농업 속성 해석에서 밝힌다.

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회장님 때문에 단합도 잘되고 서로 잘 도와. 힘들면 회장님이 막 심어주고 뭐 이런 저런거 문제 생기면 다 해주시니까. (여, 000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교육은 제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다 가르쳐주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아주 좋아요. 종에 따라서 물을 많이 주는 게 있고, 적게 주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텃밭 활동 하면서 친절하게 해주시고 봉사활동도 잘 해주시고 하니까. 고맙고 그래요. 많이 도움을 받는 입장이니까. (남, 000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3) 도시농업을 통해 교류하는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 수준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집단은 텃밭활동을 통해 알게 된 이웃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단지의 이용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4-21〉 노원구 B단지 텃밭활동을 통한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 수준

구분	주민 공동 텃밭	
	평균	표준편차
친근감(친하고 가까운 느낌)을 느낀다.	4.36	.51
나와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고 느낀다.	3.91	.83
종종 집에 초대해 식사를 한다.	3.18	1.25
아파트 아닌 다른 곳에서도 함께 하는 활동(여행, 쇼핑, 영화 등)이 있다.	2.64	1.21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울적할 때 만나면 위로가 된다.	4.00	.63
개인 문제(건강, 가족갈등, 걱정, 근심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3.55	1.13
평소 도움이 되는 정보나 지식을 알려준다.	4.09	.70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허드렛일 등 이것저것 도와준다.	3.91	.54
돈이나 물건이 필요할 때 최대한 마련해 준다.	2.55	1.29
평균	4.16	-

B단지 텃밭 이용자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A단지 이용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살기 좋은 아파트(4.73점)로 생각하고 안전 환경(4.73점)과 자연환경(4.73)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웃주민과의 사회적 관계 수준(4.55점)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문제 의식(2.91점)과 봉사활동 참여(3.27점)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아 아파트 단지 내부 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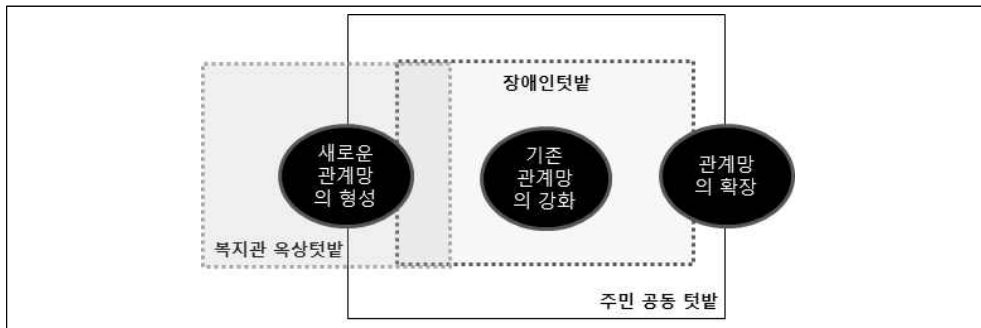
〈표4-22〉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수준(노원구 B단지)

구분	주민 공동 텃밭	
	평균	표준편차
우리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살기 좋다고 생각한다.	4.73	.47
우리 아파트 사람들은 서로 믿고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4.55	.52
아파트 문제(시설보수, 안전, 주차 등)에 적극 의견을 제시한다.	3.73	1.49
아파트 안전 환경(사고, 폭력, 범죄예방)에 만족한다.	4.64	.51
아파트 자연환경(꽃, 나무, 잔디밭 등)에 만족한다.	4.73	.47
나는 계속 이곳에 살고 싶다.	4.73	.47
나는 노원구 지역문제(교통, 환경오염, 정책 등)에 관심이 높다.	2.91	1.45
나는 노원구 봉사활동(이웃돕기 행사 등)에 참여한다.	3.27	1.42
평균	4.16	-

제 3절 소결

사회적 관계망은 교류와 정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의 활동력을 높이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갖는다.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주거지 내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하고 상호부조를 통해 어려움을 이웃과 나누는 원동력이 된다. 때문에 정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개인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개인의 건강문제와 사회적으로 위축된 심리상태, 부양가족 등의 문제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일상에서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최소 10년 이상의 긴 거주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약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은 꾸준한 옥외활동을 통해 이웃과 교류하면서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정보 교환과 협력, 나눔,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이 강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분석 결과 주민들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A단지의 장애인 텃밭과 B단지의 주민 공동 텃밭은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가 이용자 간 연결성이 높은 응집형의 구조를 형성하였다. 강한 중심성을 갖는 핵심인물에 의해 운영되지만 크고 작은 그룹이 형성되어 그 안에 또 다른 핵심인물들이 주민들 간의 교류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농업 활동 과정에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관계망이 더욱 긴밀해지거나 새로운 관계망이 형성되기도 한다. 반면 복지관 옥상 텃밭은 연결 중심성과 응집성이 복지관 관계자에게 모두 집중된 구조이다. 정보공유, 활동지원이 복지관 관리자에게 의존된 형태이고 이용자 간의 연결성이 약하다. 그러나 일상에서 사회적 교류가 극도로 단절된 거주민과 홀로 거주하면서 우울과 소외, 고립의 위험이 높은 거주민을 대상으로 옥외 활동을 유도하고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시키고 있다. 복지관 관계자의 독려에 의해 시작되었던 참여가 자발적인 활동으로 이어져 지속되고 있다는 점

도 주목할 내용이다. 모든 대상지에서 공통적으로 강한 중심성을 갖는 핵심 인물이 존재하였다. 도시농업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그룹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활동성이 약한 주민들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핵심 인물에 대한 신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처지에서 동질성을 갖고 그들의 의견을 현실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핵심인물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그는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활동의 질, 관계에 수준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개인 또는 그룹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조율하고 정보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단지 내 관리사무소, 동대표, 노인회 등 타 조직과 연결성을 갖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참여자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그림4-9〉 대상지별 사회적 관계망 범위

각 대상지의 관계망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그림4-10). 밀도(Density)²⁵⁾는 주민 공동 텃밭(0.09), 복지관 옥상 텃밭(0.082), 장애인 텃밭(0.076)의 순으로 주민 공동 텃밭에서 정보 교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확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링크의 개수(# of inks)는 장애인 텃밭(75)과 주민 공동 텃밭(63)이 복지관 옥상 텃밭(3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평균 연결도(Average Degree) 역시 장애인 텃밭(2.344)과 주민 공동 텃밭(2.333)

25) 이용자들이 서로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밀도 값은 0~1 범위의 값을 갖는다. 밀도가 높을수록 정보교류가 자주 일어나고 확산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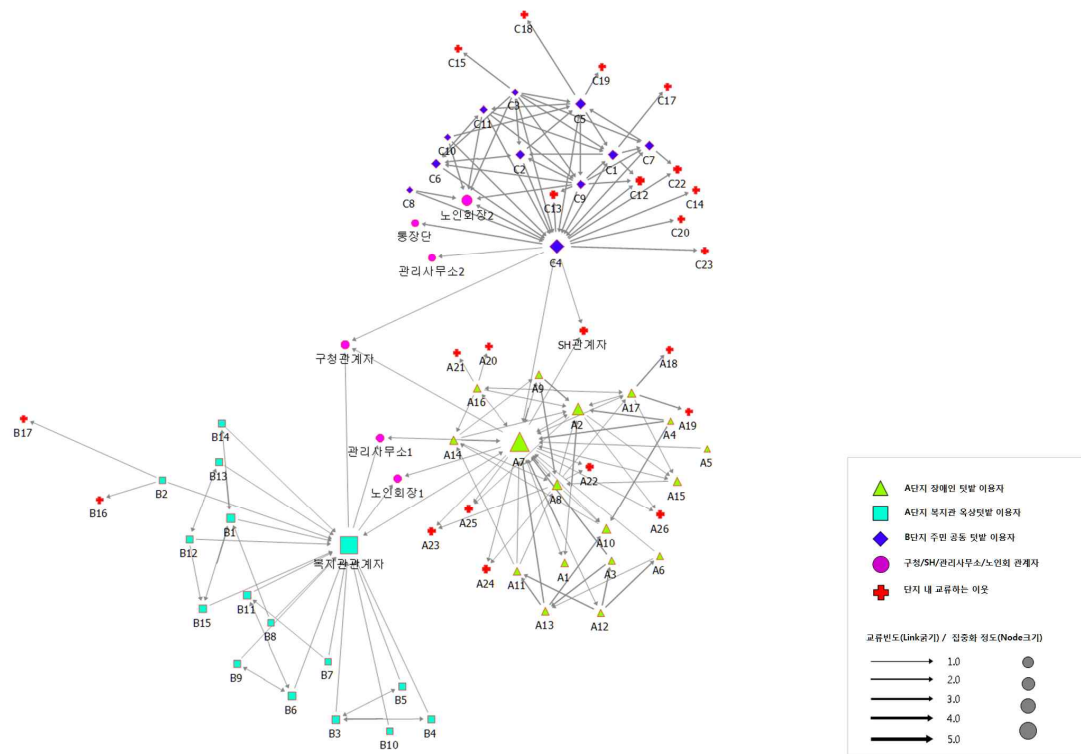
이 복지관 옥상 텃밭(1.727)에 비해 높다. 평균거리(Mean Distance)는 네트워크에서 두 노드가 갖는 평균적인 최단거리로 복지관 텃밭이(1.727) 가장 짧고, 거리(Diameter)²⁶⁾는 모든 텃밭이 공통된 수치를 나타냈다. 연결밀도(Network Degree Centralization Index)²⁷⁾는 Centralization Index(IN)²⁸⁾을 기준으로 복지관 옥상 텃밭(66.213)의 관계망이 소수에 집중된 형태이고, 장애인 텃밭(45.473)과 주민 공동 텃밭(30.621)의 관계망은 중심성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어 있다. 또한 전체 네트워크 안에 형성된 소규모 그룹(clusters)의 밀도를 확인한 결과 주민 공동 텃밭의 클러스터의 개수(# of Clusters)가 크게 2개의 그룹으로 결속력이 높고 모듈화(modularity) 정도²⁹⁾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취약계층의 도시농업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강화, 확장 측면에서 도시농업의 기여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비록 영구임대주택에서 도시농업 활동이 도입 초기단계이지만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시키고 기존의 관계망을 강화하여 결속력을 향상 시키는 측면에서 향후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농업의 역할과 방향을 짚어보는 것에 의의가 있다.

26) 거리(Diameter)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낮을수록 확산이 빠르다는 의미이다.

27) 연결밀도(Network Degree Centralization Index)는 집중화 정도를 나타내는 네트워크의 단위이다. 값이 높을수록 소수의 노드에 연결이 집중되어 소수가 독점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값이 낮으면 연결 정도가 여러 노드에 분산되었다는 의미이다.

28) 중심성 지수 Centralization Index(IN)과 Centralization Index(OUT)의 값이 크면 소수의 중심성(Centrality) 값은 매우 크고 그 외 노드들의 중심성 값은 매우 작아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9) 모듈화(modularity) 값은 높을수록 그룹 내 연결밀도가 높고 그룹 간 연결밀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NETWORK PROPERTIES	# of inks	Density	Average Degree	Mean Distance	Diameter	Network Degree Centralization Index(%)		Community		
						IN	OUT	# of Clusters	Fusion Level	Modularity
장애인 텃밭	75	0.076	2.344	2.101	4	45.473	58.793	11	13	15.564701
복지관 옥상 텃밭	38	0.082	1.727	1.708	4	66.213	11.338	10	4	4.152654
주민 공동 텃밭	63	0.09	2.333	1.846	4	30.621	50.592	2	14	36.418854
전체 네트워크	176	0.034	2.444	2.942	6	22.218	25.074	-	-	-

<그림4-10> 노원구 A와 B단지 사회적 관계망 구조 비교

제 5장 취약계층 사회적 관계망에 기여하는 도시 농업 활동의 역할

제 1절 사회적 접촉 및 공동 활동의 장 제공

1. 위치와 규모, 접근성 증진과 개방성 확보

도시농업 공간은 사회적 교류를 강화하는 장소임과 동시에 비이용자에게는 접근과 교류가 제한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지 내에서 도시농업 공간의 접근성과 개방성, 위치와 크기, 형태, 시설 수준 등은 사회적 관계망 형성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이다. 텃밭은 규모의 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이다. 참여의 대상을 특정 그룹에 한정하거나 수를 제한하는 것은 단지 내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요인이다. 때문에 단지 세대수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공간과 이용 인원이 한정되더라도 생산된 수확물이 단지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다양한 계절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어울리는 공공공간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 역시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는 소재의 바닥과 동선, 앉거나 허리를 펴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다양한 스케일의 텃밭 공간,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쉼터 등 취약계층의 조건에 맞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접근성의 경우 활동 빈도와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앞서 텃밭 이용 행태 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은 신체적으로 거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 1~2회 또는 거의 매일 일상적으로 텃밭에 방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 활용이 제한된 영구임대주택에서 대부분의 텃밭은 단지 외곽 유흥지와 건물 옥상 공간을 활용한다. 때문에 텃밭이 조성되는 위치적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하기 수월한 동선과 보행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방성은 비이용자의 도시농업 참여 욕구를 높이고 텃밭 공간이 단지 내에서 공공공간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시각적으로 개방되고 유지·관리가 잘 된 텃밭은 비이용자에게 공공성을 담보하는 질 좋은 녹색 경관과 전원 경관을 보여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1) A단지 장애인 텃밭

A단지 외곽에 위치한 텃밭은 장애인 그룹에 의해 운영·관리되고 있다. 이 용자 외에 새로운 주민과의 사회적 접촉과 참여를 유도하기에 다소 불리한 조건이다. 단지 외곽에 위치하고 장애인 협회 가건물 옆에 인접하여 일반 거주민들의 접근과 이용이 제한된 곳으로 인식된다. 텃밭의 다른 한쪽 면에는 철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 답답하고 폐쇄적인 느낌을 준다. 텃밭 주변으로 단지 외곽 순환로가 조성되어 있지만 수목과 높은 펜스로 둘러싸여 이동하는 주민들의 관찰이 제한된다. 접근성과 개방성 모두 낮아 주민들이 공공공간으로서 텃밭 경관을 즐기거나 함께 참여하기에 어려운 구조이다. 그러나 텃밭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어느 정도 개방성을 확보하여 잘 가꾸어진 텃밭을 외부에 드러내고자 하는 자부심을 나타냈다.

원하는게 외곽으로도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시설 설치,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볼 수도 있고, 그럼 좋을 것 같다. 바깥에서 다들 잘해줬다고 하니깐, 그런데 철조망의 경우 할머니들이 다 따가는 경우가 있어서 해두었어. (남, 000 A단지 장애인 텃밭 이용자)



〈그림5-1〉 노원구 A단지 장애인 텃밭과 복지관 옥상 텃밭의 물리적 현황

내부 시설은 장애인들이 활동하기에 열악하다. 앞서 만족도 분석 결과에서도 텃밭 수도 및 장비 시설 부문에 대한 만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거동이 어렵지만 텃밭 활동에 대한 의지가 높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활동 조건에 맞는 적절한 기반 시설을 갖추

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장애인 협회는 자체적으로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도록 바닥 면을 보수하여 이용하고 있었다. 기존 시설이 거동이 자유로운 사람에게 가능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참여 인원을 높이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다.

우리는 거동이 어려우니까 수도를 여기저기 연결해야 편한데, 호수를 제대로 끌고 가야하니까. 이동할 때 불편해. (남, 000 A단지 장애인 텃밭 이용자)

텃밭 안에는 휠체어 지나갈 수 있게 했어. 손은 자유로워서 바깥 면에 있는 채소를 관리할 수 있으니까...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와서 한 포기라도 와서 볼 수 있으라고 해서 한 거예요..(중략).. 일을 해도 휠체어를 타고 다리를 절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자리만 심고 뽑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게하고, 나머지는 좀 멀쩡한 사람들이 하지. (남, 000 A단지 장애인 텃밭 이용자)

장애가 심해가지고, 전동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내릴 수도 없고 그래요. 와서 구경하고, 보고, 마음은 있어도 장애 때문에 못 거드니까 미안하지... 그래도 못 거들어와. 서로 간에... (남, 000 A단지 장애인 텃밭 이용자)

텃밭에 가면 기분이 좋아. 파릇파릇 올라오는 걸 보면 내 기분도 그렇더라고. 나는 몸을 잘 구부리지 못하지만, 뭐 주워서 챙기는 거, 그런 거라도 내가 하니까 좋아. 그래서 오늘도 그거 했어요. (여, 000 A단지 장애인 텃밭 이용자)

텃밭의 규모는 현재 인원에서 적정하지만 더 많은 단지 주민들과 작물을 나누기 위해서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재배된 작물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아 주민들과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유지·관리를 위해 인력이 부족해 힘들다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봉사 인력 또는 전문지원조직을 연계하여 정착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난 괜찮은데, 일단은 우리가 고생을 하더라도, 텃밭을 좀 넓혔으면 좋겠는데, 나눠주기 위해서 조금 부족해. 나눠 줄 사람은 많은데 일 할 사람이 작지만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는 애긴데... 못 받은 사람은 불만스러워하니까... (남, 000 A단지 장애인 텃밭 이용자)

크기 크면 좋은데 우리는 힘이 들어. 이게 장애인다보니깐 할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어... 멀쩡한 사람도 있고 봉사자들도 있고 그래야지. 장애인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텃밭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힘들었던 거야. 작년에도 무척 힘들었고... 그래도 두 사람이 봉사자로 왔기 때문에 많이 편해졌지. (여, 000 A단지 장애인 텃밭 이용자)



〈그림5-2〉 노원구 A단지 장애인 텃밭 (2017년 3월 현장 촬영 사진)

(2) A단지 복지관 옥상 텃밭

A단지 복지관 텃밭은 단지 내 중심에 위치한다. 약 81㎡(25평)의 소규모 공간에 상자텃밭을 배치하여 독거노인과 기초수급자들의 건강 활동과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누구나 방문 가능하나 옥상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 주말에는 잠겨있어 출입이 불가능하다. 평소 복지관 직원이 관리를 하고 텃밭 이용자의 경우 일주일에 1~2번 정해진 날짜에 방문하여 치유 프로그램과 텃밭 가꾸기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협소하지만 상자텃밭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최대 10~20명 정도 이용 가능하며, 휴게공간과 교육공간을 만들어 이용자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복지관 옥상텃밭의 조성 취지는 다음과 같다.

옥상 활용해서 복지관 프로그램에 주민들 참여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시작했어요.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복지관 자체적으로 조성했고 2014년도 구청에서 1200만원 지원받아서 플랜트와 기반 시설을 보완하여 재조성 했지요. 원예치유 프로그램 운영 조건으로 지원해준 것이고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기관에 제안서를 제출 했죠. 여기 사시는 분들이 관리를 계속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거의 복지관 봉사자나 강사가 관리하고 가꾸고 있습니다. (남, 000 A단지 복지관 텃밭프로그램 담당자)



〈그림5-3〉 노원구 A단지 복지관 옥상 텃밭의 내부 평면도(자료: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그림5-4> 노원구 A단지 복지관 옥상 텃밭(2017년 3월 현장 촬영 사진)

복지관 옥상 텃밭 이용자들은 여성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병 가족이 있거나 외부 활동이 거의 없는 독거 여성노인들이 참여한다. 앞서 만족도 분석 결과에서 텃밭 경관과 접근성, 시설, 행사 프로그램 및 교육 등에 대

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강사를 통해 원예 치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김장 담그기, 바비큐파티, 수확물 나누기 행사 등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인터뷰 내용에서도 이용자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단지에서 조망이 가능하고 자연적인 텃밭 경관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지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씨앗, 모종, 장비 등에 대한 만족감과 관리가 수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함께하기에 다소 좁게 느껴지는 텃밭 규모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었다.

텃밭에 있을 때 기분 좋아. 누가 뭐 심었는지도 볼 수 있고. 공기도 좋고, 깨끗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보이고 그래서... (여, 000 A단지 복지관 옥상텃밭 이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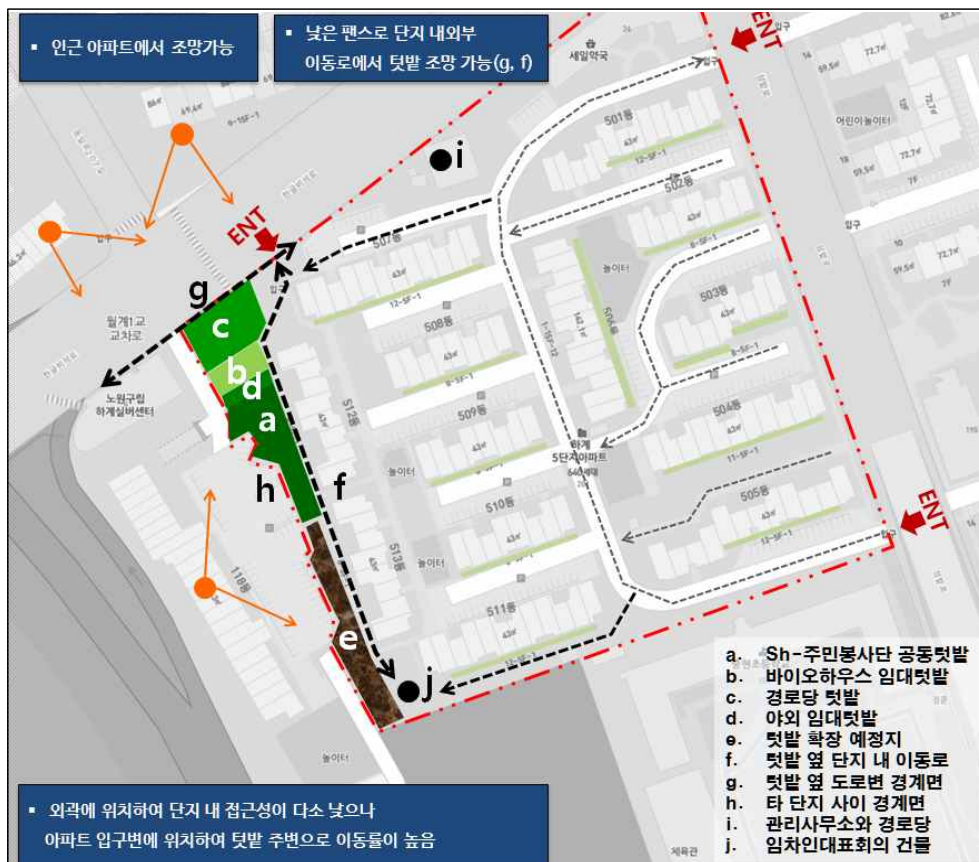
여기 텃밭 경치는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좋아. 좁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 장소가 그래서 크기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씨앗, 모종이랑 선생님들이 다 사오시니 나는 주는 대로 하면 되고, 여기 오면 사람들이랑 만나니까 심심하지 않아서 좋아. 근데 많이 심을 수 없지... (여, 000 A단지 복지관 옥상텃밭 이용자)

텃밭에 가면은 넓지는 않지만 좋아 보인다. 여러 친구들이랑 해서 좋고... 좁아서 답답하기는 한데 올라가면 기분이 재밌고 좋지. 텃밭에 갈 때 불편한건 없어.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만 조금 힘들지 괜찮지. 옥상 말고 더 크게 아파트 다른 장소에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옥상 텃밭은 그냥 괜찮은 정도의 크기고 작으니까 크게 불편한 것은 없지. (여, 000 A단지 복지관 옥상텃밭 이용자)

재미 때문에 하는 건데 자라는 작물을 보면서 재미를 느껴. 거기 공간이 작은데 이거하는데 힘들지는 않다. 자라는 거 보면 좋고 신기하지. 크기는 거기가 그만한데 어디다가 만들겠어. 놀릴 수도 없는데 그냥 하지. 거기다가 이름도 지었다. 000 텃밭 이런 식으로 지었지. 거기 시설과 장비는 다 좋고, 조금 하나씩 호미로 살짝 파면되는데 뭐. 거기 선생님들이 다 준비해주는데 불편한 거 없어. (여, 000 A단지 복지관 옥상텃밭 이용자)

(3)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손쉬운 접근성과 개방성은 비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단지의 이미지 개선에 영향을 준다.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역시 장애인 텃밭과 마찬가지로 단지 외곽에 조성되어 있다. 단지 내 거주 동에 따라 편의성에 차이가 있으나 단지 주출입구와 인접하여 이용자, 비이용자 모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 텃밭은 크게 네 구역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옥외 텃밭과 바이오 하우스 텃밭,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 줄 수확물을 생산하는 봉사단 텃밭, 경로당 텃밭으로 나뉘져 있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공간 확보를 위해 조경용지를 텃밭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림5-5〉 노원구 B단지 주민 공동 텃밭의 물리적 현황



<그림5-6> 노원구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2017년 3월 현장 촬영 사진)

또한 도로변의 경계 수목과 펜스를 정비하여 단지 출입구와 도로 보행로, 횡단보도와 주변을 오고가는 불특정 다수에게도 시각적으로 개방되도록 하였다. 텃밭 내부 출입은 이용자에게만 허용되나 낮은 펜스를 설치하여 비이용자와 타 단지 주민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방성과 접근

성을 고려한 환경 정비는 텃밭 회장과 주민 조직들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지금 텃밭에 큰길로 가는 길보면 원래는 펜스가 1m20이였지만 지금은 절반으로 줄였어. 울타리를. 사람들이 잘 보라고 구경도 하고 서울 시내 이런 것도 있고 하우스 안에 꽃이 있으니깐 사람들, 큰길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쳐다봐. 저게 굉장히 좋은 거야. 그래서 울타리 나무를 텃밭에서 부터 싹 잘랐어. 잘린 울타리에다가 실을 떼서 호박오이를 심었고... 사다리처럼 호박하고 오이가 넝쿨이 싹 올라가죠. 길가에서 보면 굉장히 멋있지. (남, 000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와서 주민들이 자라는 거 보면 뿌듯하고. 잘 자라면 예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면 나도 좋지. (여, 000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주변에서 다 보러 오고 저기 건너서 넘어서 오면 너무 멋지데. 이거 하면서 더 단지가 더 잘 좋게 보이고 좋은 마음으로 주민들도 참여하고, 어쨌든 좋고 다른 단지에서 샘이 날 정도니까. (여, 000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B단지의 텃밭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단지 내 문제가 되는 유휴공간을 재활용한 사례이다. 현재 텃밭 부지는 당시 단지 내 소운동장이 장기간 관리 미흡으로 인한 불모지로 자리 잡으면서 잡초 및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등 입주민 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곳이다. 매년 폐기물 처리 비용을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여 입주민 관리비 증가, 폐기물 무단투기 및 악취로 인한 입주민 민원 증가 등의 문제가 빈번했다. 단지 내 뿐만 아니라 주변이 고층 아파트로 둘러 쌓여있고 바로 인접한 도로 보행로로 부터 당초 불모지의 열악한 환경이 그대로 노출되어 아파트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소운동장과 화단 일부를 활용하여 텃밭으로 사용하고자 B단지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먼저 의결하고 SH공사에서 승인하여 현재 텃밭을 조성한 것이다. 잘 관리된 텃밭은 옥외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관리와 함께 거주지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심을 형성시킨다. 인터뷰에서는 텃밭 조성과 함께 단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던 목적과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주민들의 의지

가 나타났다. 텃밭과 아파트에 대한 외부 평가에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 텃밭은 공동 활동의 장소이자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벗어나 대외에 자랑거리가 되는 화합의 장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주변 아파트에서 텃밭 달라고 해고... “우리는 이 단지에 사는 분들에게 분양하고 수익금이 관리사무소에 임금이 되어서 다 같이 혜택을 봅니다.” 라고 하지. (여, 000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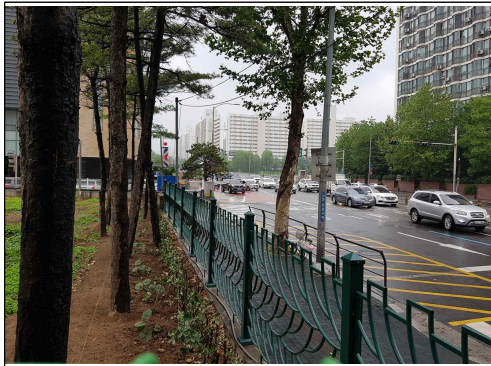
사람들이 “예쁘다. 예쁘다.” 하면 너무 좋고 오늘도 지나가는 사람이 멋지다고 자기 주말 농장하러 다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고 하면 우리는 아파트 단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하면 자기도 조금이라도 취미로 해보고 싶다고 해. 우리도 내년에 어떻게 하면 안되냐고 이런 얘기도 하고. (여, 000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텃밭 하고서 난 여기 사는데 더 애정이 좋아. 살기 좋아진거 같고, 사람들하고도 더 친근해진 것 같고...(여, 000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또한 텃밭공간을 중심으로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변 녹지와 시설을 재정비하고 담장, 펜스 등 관련 시설의 기능과 형태에도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여기 텃밭 주변에 막 잡초들 있는데 다 맥문동을 심었어. 사람들하고. 보기 좋았는데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좋잖아. 여기 사람들도 이 길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좋다고 하지. (남, 000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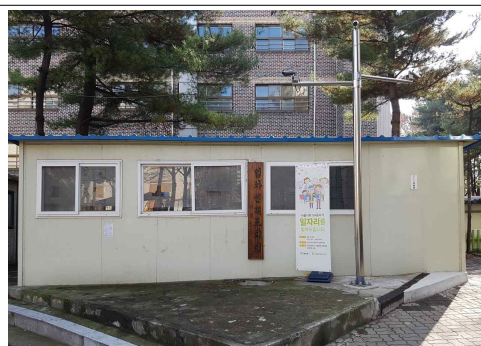




g. 텃밭 옆 도로변 경계면과 외부에서 바라 본 텃밭 경관



h. 타 단지 사이 경계면 외부에서 바라 본 텃밭 경관



i. 관리사무소와 경로당

j. 임차인 대표 회의 건물

<그림5-7> 노원구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주변과 관련 시설 (2017년 3월 현장 촬영 사진)

2.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 변화와 화합을 위한 장소

A단지의 한 거주민은 텃밭 인근에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 거주민들이 접근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텃밭의 경우 조성 당시 취지가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 대외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자긍심을 높이는 것에 있다고 하였다. 인터뷰 내용에서도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활동성을 높이고 동네 주민들과 화합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어린 시선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언급하였다. 텃밭 활동을 통해 “우리들도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 줘서 인정받고 사람들의 긍정적인 관심과 시선, 장애인 그룹 뿐 아니라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회, 부녀회 등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다른 지역 주민들과도 함께 활동하면서 화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맨 처음에는 텃밭이 아니라 공원으로 여기다 운동장을 만들자고 했던 것을 그게 아니다 여기에 운동장은 지속적이지 않다. 정서에 좋은 것, 장애인들이 뭔가 생명을 키움으로써 채소를 키움으로써 생명의 존엄성을 기르기 위한 활동을 주장해가 지고 텃밭을 만들어냈어요. 그래 시작한 것이 이제 3년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장애인들은 항상 움츠려 있잖아요, 사회에서 간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텃밭을 통해서 자기가 감추고 있는 육체는 불편하지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정상인들 앞에서 동네 주민들 앞에서 보여주고, 동네 주민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남, 000 A단지 장애인 텃밭 이용자)

그러나 장애인 협회로서 전담하고 있는 텃밭은 당초 취지와 같이 주민들과 화합하는 장소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곳의 도시농업 활동은 특정 단체가 공동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시선이 존재한다. 수확된 작물이 아파트 내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지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봉사의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인식이 낫다. 때문에 텃밭이용을 하는 장애인들은 당초 취지와 달리 활동 과정에서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해 오히려 갈

등이 표출되기도 한다.

아파트 주민들하고는 그다지 그저 그렇거든요. 주변에서 우리가 끼리끼리 모인다는 시선이 있다네요. (여, 000 A단지 장애인텃밭 이용자)

그거는 우리가 지금 앞에 풀 뜯고 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한다는 거야... 하거나면 느낌은 좋지 풀뽑 아주면서 깔끔하게 보이니깐, 여기서도 남들한테 안좋은 소리 안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 장애인들 저기에서 뭐를 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 일을 많이 하려는데..(중략).. 텃밭을 해서 고추를 키우든 배추를 심든 다 나눠 주거든 노력 봉사를 하는데 안좋은 소리를 듣는거지 (남, 000 A단지 장애인텃밭 이용자)

주면 좋아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니깐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는 꼭 줘야 할 사람한테 주는데 못 받는 사람이 뭐라 하는게 있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어. (남, 000 A단지 장애인텃밭 이용자)

단지 주민들은 여기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줄 때 만 관심은 있고, 안줄 때는 관심 없어. 그래도 관심이 있든 없든 해야 될 것이니깐 하는 거고요. (여, 000 A단지 장애인텃밭 이용자)

그런데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이 단지 내에서 주민들하고 별로 만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말들이 워낙 많으니깐, 요만한 얘기를 들으면 부풀려서 다른 곳에 가서 얘기를 해서... (남, 000 A단지 장애인텃밭 이용자)

근데 단지 안에서 주민들이 우리의 고생하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지들이 다 해놓고 나서 반가워하지도 않고, 내 생각에 그걸 좀 도와주면서 하면은 서로 불만이 없을텐데... 뭐 자기네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마음으로 수고한다는 말이라도 했으면... (여, 000 A단지 장애인텃밭 이용자)

A단지 장애인 텃밭의 경우 복지관 텃밭과 B단지 주민 공동 텃밭과 다르게 단지 내 주민들과의 갈등이 다수 표출되었다. 당초 장애인 그룹만이 아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으로 시작하였지만 정착 과정에서 주민 간 교류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협의체 마련과 프로그램이 부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텃밭의 크기가 한정되기 때문에 생산물은 다수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지 못하고 장애인들만의 혜택이라는 갈등이 커지면서 차가운

시선을 주고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결과 장애인 그룹 내부의 결속력은 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텃밭을 가꾸니까 우리는 더 만나지. 자주 만나게 되지. 그런데 이상해. 장애인 협회 가입 안 된 사람들은 안 오더라고. 와도 되는데. 열려있는데. 우리가 방송 다 하지 주민들도 오라고.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왜. (여, 000 A단지 장애인텃밭 이용자)

텃밭 활동 전에 원래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지만 별로 같이 활동을 안했어요. 이 전에도 매일은 안 만나도 가끔 만나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래도 같이하는 건 없었어요. 텃밭 때문에 더 자주 만나는 거지. 뭐 심을지 얼마나 심을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지. (남, 000 A단지 장애인텃밭 이용자)

반면 B단지 장애인 텃밭은 주민들이 함께 모이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텃밭하면서 사람들하고 서로 더 자주 만나고 얘기도 하게 되는데 농사가 얼마나 잘됐냐. 내 텃밭은 어떻고 너는 어떻고 그잖아요. 나는 사람들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말 하는게 좋아. 그런 걸 좋아하니까 또. (여, 000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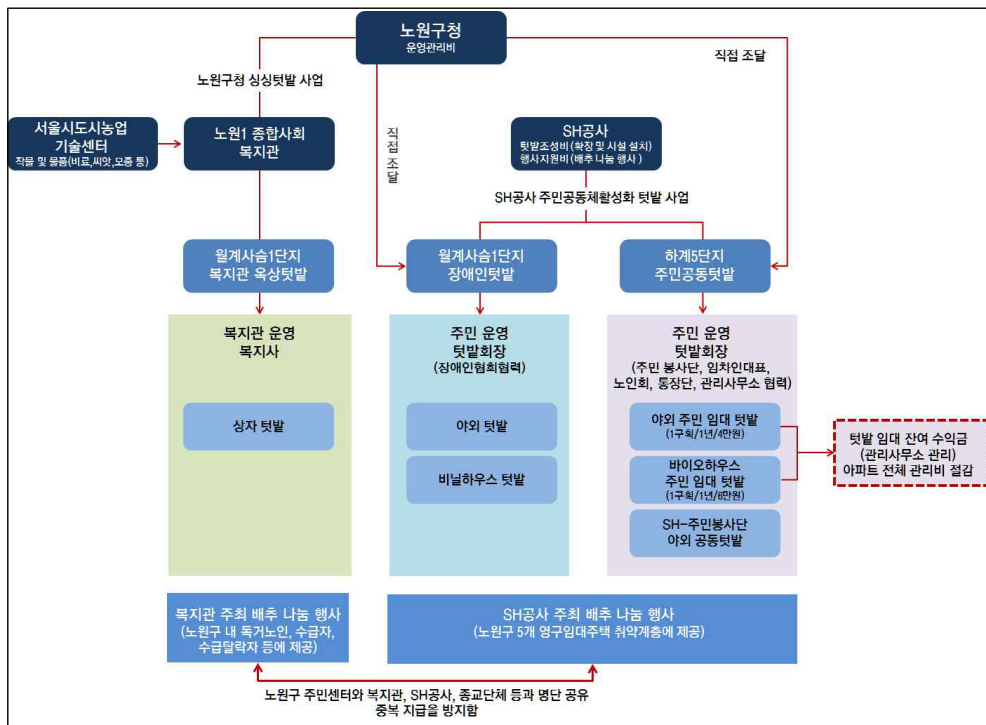
텃밭하면서 만나서 안녕하면서 어휴 건강하시죠? 하고 밭에 가서 서로 얘기도 하고. (여, 000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다 좋아요, 그냥 텃밭하고 같이 밥도 먹고, 맨날 같이 모이고, 하루에 한번은 얼굴 보고, 얘기하고, 서로 사정 다 알고. (여, 000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주민들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텃밭 안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서 남으면 나눠 먹고 그런게 좋죠. 다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남, 000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제 2절 협력관계 형성과 조직화

영구임대주택에서 도시농업을 통해 단지 내 이웃 간 신뢰 형성은 물론 공동체 활성화, 자긍심 증진 및 지역 사회에 대한 애착 형성 등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체계적인 운영·관리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영구임대주택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더라도 거주민 간 불신, 소외 문제와 침체된 주민자치조직, 갈등 문제 등으로 인해 자발적인 활동 유지와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가용 부지를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조건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 것은 물론 어떻게 활동을 지속시키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시농업 활동의 조직 체계와 운영 방식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5-8〉 노원구 A단지와 B단지 전체 도시농업 활동 운영·관리 체계

대상지 전체의 운영·관리 체계를 분석한 결과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조직 간의 연결성이 강화된 사례와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재로 갈등이 발생하고 조직간 협력체계가 와해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A단지의 장애인 텃밭과 B단지의 주민 공동 텃밭은 공통적으로 SH공사 지원으로 시작하여 주민들의 주도하에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각각 장애인 그룹과 주민자치조직으로 다른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 SH공사 측은 텃밭 조성이 완료된 이후 현재까지 대외 행사 지원과 활동 협의에 관여한다. SH공사 측은 업무의 범위를 조성 단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운영비 조달과 관리는 주민 자체적으로 노원 구청 사업 공모나 봉사 단체 협력을 통해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방침은 주민 스스로 공동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틀을 만들어 주기 위한 목적이다. 공사 측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사업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과 주민 주도하에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에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토로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가 텃밭 사업으로 조성 당시부터 A단지는 단지에 거주하는 장애인 협회에서 전담 관리하는 것으로 지정하였고, B단지는 아파트 단지 내 조직들 간 협의를 통하여 운영체계를 만들어 나도록 하였다.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은 구청에서 아마 받았을 거예요. 사업공모를 통해서 받았거나...구청에서 사업공모 돈 받는 것도 주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안 되서 예러 사항이 있으니 공사에서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 시작은 저희가 준비해주는데 그 이후에는 주민 자체적으로 해야지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농업용품이든 돈이든 뭐든 사업공모나 봉사단체로부터 알아서 컨택해서 지원 받고 저희측은 배추나눔 행사를 지원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 000 SH공사 관리자)

1. 주민의 자발적 운영·관리 지원

(1) 노원구 A단지 장애인 텃밭

A단지 내에 조성된 텃밭 두 곳은 관리주체와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거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취약계층의 활동성을 높이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자는 공통된 목적이 있다. A단지 복지관 옥상 텃밭의 경우 노원구청으로 운영비를 조달 받아 복지관에서 전담 운영하고 있다. 노원구 싱싱텃밭 사업 가이드에 따라 독거노인 또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상자텃밭을 제공하고 원예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구청의 정기적인 관리·평가를 받아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다소 목적성이 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하지만 교류활동이 거의 단절된 독거노인과 탈북자,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이끌어낸다. 장애인 텃밭의 경우 텃밭 회장이 주축이 되어 주민 주도로 관리되고 노원구청과 일부 봉사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조달받아 유지되고 있다. 생산물을 개인이 취하는 것이 아닌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비하거나 배추 담그기 행사 등을 통해 주변 어려운 이웃과 생산 작물을 나누는 형식이다. 당초 봉사·나눔의 취지로 농작물을 단지 내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장애인협회의 전담관리 체계로 일반 거주민의 참여가 저조하고 거듭되는 인력 부족과 지원금 마련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일을 하고 점심도 우리 돈으로 사먹어야 하고 SH공사나 구청에서 지원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씨앗 거름만 지원해주고 노동해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니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씨앗 값 이라던가 좀만 더 보태주고하면 간식도 사먹고 하는게 그런게 전혀 없고 하물며, 몇 명 주변사람들은 장애인사무실에 엄청난 후원금이 들어올 텐데 하면서 그

돈 갖고 실컷 먹으면서 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일을 하고도 욕먹어서 불만이야.. (남, 000 A단지 장애인 텃밭 이용자)

〈표5-1〉 노원구 A단지 도시농업 운영·관리 실태

구분	노원구 A단지	
	장애인 텃밭	복지관 옥상 텃밭
접근제한유무	이용자	누구나 가능
이용(신청)대상	장애인 이외에 단지 거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	단지 거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
주이용자	장애인	여성 노인
신청방식(모집방법)	-	홍보 현수막, 전단지 배포 모집
경작기간	4월~11월	4월~11월
텃밭 임대수익	-	-
농작물 활용	봉사 나눔	개인소비 및 이웃 나눔
조성주체	SH	복지관
관리주체	주민협의체 텃밭회장, 장애인협회	복지관
지원사항	퇴비, 비료, 농기구, 각종모종	퇴비, 비료, 농기구, 각종 모종
운영비 조달방식	구청, 봉사단체	구청, 복지관, 서울시농업기술센터
관련 교육 제공 여부	텃밭리더 교육 있음, 텃밭 이용자 교육 없음	원예치유 전문강사 교육
행사 이벤트 및 봉사활동	배추담그기행사 수급자, 독거노인 등 배추나눔활동	배추담그기행사 수급자, 독거노인 등 배추나눔활동

(2) 노원구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B단지의 경우 당초 단지 조직들이 협의하여 SH공사와 여러 논의를 거쳐 텃밭 배분과 운영체계를 갖추어 나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봉사·나눔 목적의 공동텃밭과 주민 분양텃밭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4~6만원의 분양 수입금을 아파트 전체 관리비를 절감하는데 활용한다. 텃밭 분양 선정자는 관리사무소에 텃밭 활용에 대한 계약체결 및 이용대금을 납부하고 텃밭 이용대금은 매년 관리사무소 측에서 정산하여 아파트 전체 공동 관리비를 절감하는데 지출한다. 텃밭 임대를 위해 매년 분양자를 모집하고 노인회, 임차인대

표, 주민봉사단, 통장단 등 아파트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사무소와 함께 수익금 관리와 각종 시설 및 물품제공과 단지 내 행사를 지원한다. 아울러 일정부분 이상의 수확물 획득 시 노인정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기부하고 SH노원센터에서는 이용 대금 활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수익금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관리 방식을 갖추고 있다.

〈표5-2〉 노원구 B단지 도시농업 운영·관리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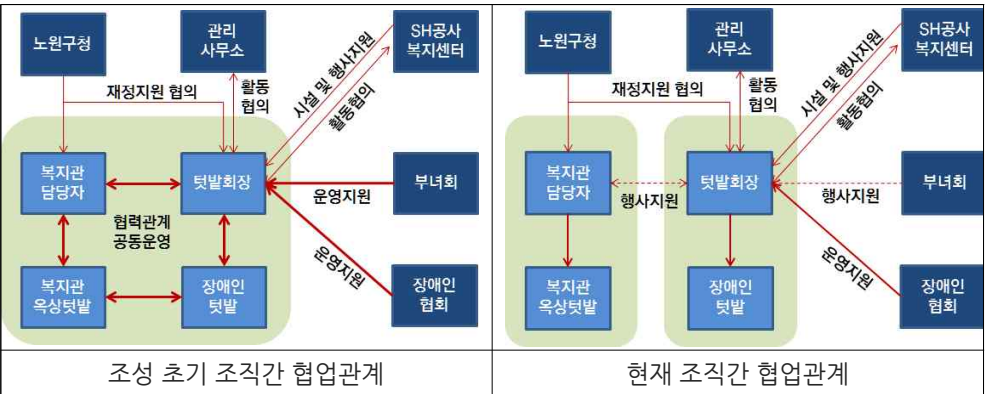
구분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접근제한유무	이용자
이용(신청)대상	단지 거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
주이용자	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신청방식(모집방법)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게시물 공지 선착순 모집
경작기간	4월~11월
텃밭 임대수익	바이오하우스 2평 6만원, 야외텃밭 2평 4만원
농작물 활용	개인소비 및 봉사 나눔
조성주체	SH
관리주체	텃밭회장, 주민봉사단, 임차인대표, 노인회, 통장단 등 주민 협의체 구성
지원사항	퇴비, 비료, 농기구, 각종 모종
운영비 조달방식	구청, 텃밭 분양비
관련 교육 제공 여부	텃밭리더 교육 있음, 텃밭 이용자 교육 없음
행사 이벤트 및 봉사활동	배추담그기행사, 수급자, 독거노인 등 배추 나눔 활동

2. 단지 내 조직 간 결속력 강화

(1) 노원구 A단지 장애인 텃밭

운영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A단지의 경우 당초 복지관, 부녀회, 장애인 협회 등과의 협력관계가 와해되고 현재 조직이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텃밭을 전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협회에 대한

거주민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1,372 세대에게 약 100평 남짓한 규모에서 수확한 농작물은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온다는 긍정적인 인식보다 특정 단체에게 공용용지가 소비되고 있다는 인식이 큰 것이다. 실제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운영 주체인 장애인 협회 측과 단지 주민들 간의 갈등이 텃밭 유지·관리 및 행사 인력 수급의 제한으로 이어지고 의욕이 상실된 장애인 측의 불만이 조성 주체 측인 SH공사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는 조짐이 확인되었다.



〈그림5-9〉 노원구 A단지 도시농업 활동 운영 체계의 변화

〈표5-3〉 노원구 A단지 도시농업 활동 관련 조직 간의 협력체계 변화

구분	당초	현재	
지원조직	노원구청, SH공사, 관리사무소	노원구청, SH공사, 관리사무소, 부녀회, 복지관	
협력조직	복지관, 장애인협회, 텃밭회장, 부녀회	복지관	장애인협회, 텃밭회장
운영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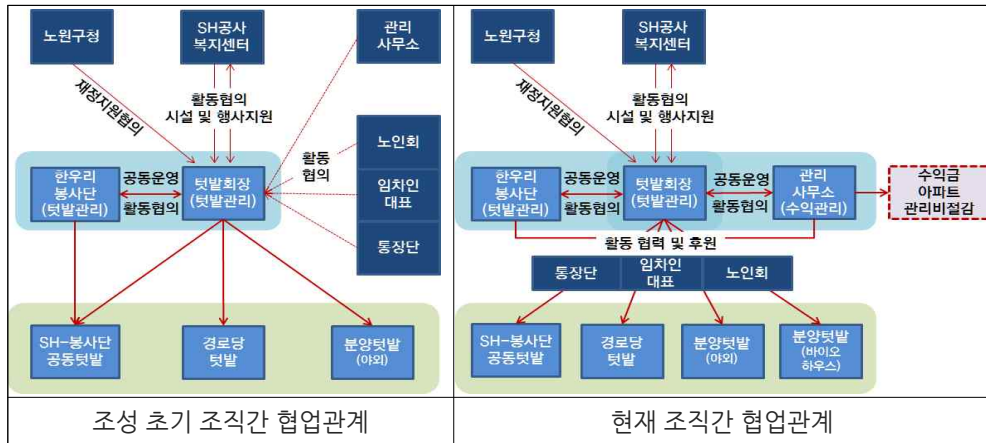
우리는 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제일 사회적 약자들이 여기에 왔어요. 사회적 약자란 뭐냐 구성원이. 장애인 아니면 독거노인이예요. 그래서 sh공사는 그 구성원들을 위해서 뭔가 복지시설이나 이런 걸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가 나. sh공사도 그런 목적을 가지기로 했으면 우리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불편한 장애인이지만 사회에서도 뭔가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걸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외부에 항상 우리를 엑스트라 정도로 생각하고 후원자로 한다는 거는...그러니까 내가 화나는 거가 우리 장애인들은 밭을 갈지만 우린 순수하게 나눔에 소통을 생각하는데, 복지관이나 센터 같은데서는 우리를 제외하고 계속 내세우려고 하는거야... (남성, 000, A단지 장애인협회 텃밭 이용자)

이러한 현상은 도시농업 활동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체계적인 운영관리 노하우의 부재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성 직후 관리·운영의 주체가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전담되기 때문에 특별한 가이드나 중간 지원 조직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에 한계가 있다. 장애인 텃밭의 경우 장애인 협회에서 전담하였지만 협소한 공간에서 제한된 인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정과 생산된 작물이 거주민 모두의 이익으로 제공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할 만한 전략을 세우기에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의 특성상 단순히 운영비를 조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원 인력을 수급하고 특정 단체가 점유하는 공간이 아닌 공공성이 유지되는 공간으로 변화할 체계적인 운영방식과 전략이 필요하다.

(2) 노원구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B단지는 일반의 타 아파트 단지와 마찬가지로 당초 단지 내 조직(관리사무소, 노인회, 임차인대표, 통장단 등)이 각기 다른 기능을 전담하고 있었다. 특별히 갈등 관계에 놓여있지 않았지만 딱히 조직의 화합이 유도될 만한 강한 계기도 없었다. 아파트 단지 시설 노후화로 환경 개선 필요성이 야기되면서 주민 주도로 불모지였던 땅에 텃밭이 조성되었고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주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상황에서 공통의 관심사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5-10〉 노원구 B단지 도시농업 활동 운영 체계의 변화

〈표5-4〉 노원구 B단지 도시농업 활동 관련 조직 간의 협력체계 변화

구분	당초	현재
지원조직	노원구청, SH공사, 관리사무소	노원구청, SH공사
협력조직	노인회, 임차인대표, 통장단 등 단지 내 조직	주민봉사단, 텃밭회장, 노인회, 임차인대표, 통장단, 관리사무소 등 단지 내 조직
운영조직	주민봉사단, 텃밭회장	

특히 민감할 수 있는 운영비 조달 문제와 텃밭 분양에 따른 수익 관리 및 지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관리사무소 및 임차인대표를 중심으로 흩어져있던 단지 내 조직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결속되기 시작하였다.

이것 때문에 좋아 졌어. 왜냐면 1인당 4만원인데 어떻게 쓸지. 그걸 동대표회에서 이제, 4만원을 받아서 어떻게 쓰여질 건가 의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도 손대서는 안되고, 관리사무소에서 임금을 시키자. 공금을 제대로 써야지 제대로 못쓰면 공금 횡령이니깐 이걸로 관리비 삭감해주자 했어. 어떤 사람은 수고하니깐 절반만 쓰고 절반은 일하는데 점심 값등 하자 했지만 그렇게 안 좋은거야 그래서, 절대 안되는거야. 그런데 공금은 절대 손 안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못하게 했어, 여기는 판공비가 없어. 수익을 관리사무소에서 집 보수해주는거? 잡수익을 잡을까 보수 수익으로 잡을까? (남, 000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제 3절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공동 이익과 나눔의 가치 형성

1. 생명 돌봄의 공간, 건강한 먹거리와 공동의 건강 증진

도시농업활동은 반복적인 옥외활동을 유도한다. 텃밭 공간은 생명을 가꾸는 장소로서 가까운 곳에서 자주 이용되는 활동 동기(activity motivation)가 강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용행태 분석에 따르면 수시로 텃밭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 평균 2~3회 가량 방문해 1시간 이상 텃밭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동 동기는 생명을 돌본다는 책임감과 의무감 그리고 텃밭 공간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들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실제로 텃밭 공간에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텃밭은 심미적으로 이용자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었다.

들여다보면 깨끗한데서 그렇게 싹이 터서 나오는거 보면 예쁘고 좋지! 우울했다가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기분이 좋지! 새파란 것도 들여다보고 만져보고 그러면. (여성, 000 A단지 복지관 옥상텃밭 이용자)

어젠 요만했던 게(작았던 게) 오늘 이만큼 컸구나~ 또 고추가 하나씩 쪼그맣게 열리면 그것도 예쁘고 그런거지. (여성, 000 A단지 복지관 옥상텃밭 이용자)

가서 자라는 거 보면 좋지. 하루하루가 다르니까. , 파랗고 하니까 마음에 안정이 되죠. 그 정도일 뿐이지 다른건 아니야. (남, 000 A단지 장애인협회 이용자)

그걸 바라보면 편안한 마음이지, 기분이 안좋다가 그 가만히 보면 예쁘다 좋아지지, 동대표 회장이 자다 일어나 보면 맨날 텃밭에 가 봐야 겠다 하고 나가보면, 어찌 추운데 그리 먼저 나가시냐고 물어본대요. (여, 000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사실 도시 생활에서 이런 텃밭있다는 게 좋잖아요. 아릅답구요.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남, 000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또한 도시농업은 신선한 농산물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취약 계층에게 신체적·정서적 만족감은 물론 일상 소비를 대체하여 앵겔지수를

낮추는 경제적 기능을 하고 있다. 수확된 작물을 가족, 이웃과 나누고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행위는 협동 촉진과 서로 돕는 가치관의 형성시킨다. 더 나아가 공동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큰 의미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러주는 유일한 사람들이 이곳에 있고 평소 간병가족, 건강상의 이유로 집안에만 머무르다가도 텃밭 활동만은 참여한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하였다. 활동을 통해 수확한 농작물을 이웃과 나누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알아간다.

텃밭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친해졌어. 다 똑같이 나눠서 가져간다. 재미있고. 내가 가꾸면서 작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 기분 좋아. 건강해지는거 같고, 나눠먹기도 하는게 재미있어서 좋다. 다 나눠 먹는다.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여성, 000 A단지 복지관 옥상텃밭 이용자)

채소 먹는 생활에 도움 되지. 무공해이기 때문이다. 동네 노인들이 모여서 이야기 하니깐 좋다.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반갑고 좋으니까 묻치는 것 같아. (여성, 000 A단지 복지관 옥상텃밭 이용자)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는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나눠서 먹는다. 내가 가꾼 좋은거 먹을 수 있고 내 취미생활이다. 상추도 똑같이 나눠서 가진다. 식구가 다들 별로 없으니까 많이 먹지 않아서 이웃들하고 조금씩 나눠가진다. 텃밭은 재미이다. 재미 때문에 하는 거다. 자라는 작물을 보면서 재미를 느낀다. 거기 공간이 작는데 뭘 어떻게 하겠냐 공간이 그런데. 이거하는데 힘들지는 않다. 자라는거 보면은 좋고 신기하다.” (여성, 000 A단지 복지관 옥상텃밭 이용자)

무엇보다 개인의 건강증진 측면에서도 유용한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치매예방, 스트레스 해소, 신체 운동 등의 이유로 이용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유일한 바깥활동으로 건강한 느낌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직접 가꾸고 재배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신체적으로 힘들지만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고 스스로 길러낸 작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긍정적이다.

텃밭은 3년 정도 됐다. 계속했어. 처음에 노인양반들 치매 걸릴까봐 과장님 권유로 하게 됐지.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벌레잡고, 이런 활동이 좋다. 신체적으로 힘들기는 하지만 이 활동이 힘들지는 않다. 스트레스 우울할 때 텃밭하면 재밌어서 좋다. 가서 2시간 정도 일하니깐 힘든 건 없다. 이거 하면서 바깥활동도 많이 하게 된다.” (여성, 000 A단지 복지관 옥상텃밭 이용자)

건강을 위해서. 다리가 아프고 하니까, 활동을 잘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할 거 아니야. 내가 텃밭 가서 일을 못해요. (몸을) 구부러지는 걸 못하니까. 그래도 뭐 줌는거, 가져다 주는거, 고건 조금씩 하니까. 오늘도 그래서 나왔지.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내가 도와줘야하는데, 되려 내가 도움을 받으니까. 그냥 이런 텃밭 같은 곳은 의족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남, 000 A단지 장애인텃밭 이용자)

건강의 변화가 있지. 나는 구부러지는 거 못하는데, 더 활동을 많이 하니까. 좋아. 내 나이에, 내 나이가 아니여도 치매온 사람이 많거든? 근데 나는 아직 없어. 가만 보니까 우울증은 가끔 오는 거 같아. 우리 집사람이 병원에 한 번 가제, 근데 내가 싫어서 안갔어. 이거하면서 욕 하는것도 좀 없어진거 같고 좋아 (남, 000 A단지 장애인텃밭 이용자)

텃밭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왜냐면 농약을 안쳐놔, 우리가 해서 먹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피땀흘려서 먹는거니까. (남, 000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여가활동도 좋지만은 가만히 있는거 보다는 운동도 되고, 여러가지로 좋잖아요. 취미활동도 되고. 또 이게 사먹는 거 보다는 직접 길러서 먹으니까 유기농 식품을 먹을 수 있고, 좋잖아요. (여, 000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2. 공동학습, 나눔의 장소

공동의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학습하면서 발전된다. 도시농업 활동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공동작업과 자원 교환, 배움, 소통의 공간으로서 네트워크 형성의 핵심 활동이 된다. 특히 활동반경이 좁고 관계망이 약한 취약계층에게는 반복적인 옥외 활동이 꾸준한 대면 접촉의 기회로 이어져 관계 형성의 계기를 마련한다.

그게 어떤 차원이냐 하면, 나눔이죠. 나누어서 장애인하고 일반 저기하고. 혼자 생활하는 거 보다 나눔이지. 김장해서 나눠주는 거가. 나눠먹는 거니까 보람도 있고. 가을에는 전부다 김장하려고 심어요, 배추. 그러다가 부족하면 더 사고 그래서 다 같이 해먹지. (남, 000 A단지 장애인텃밭 이용자)

저거로는 주민들과 나누기에 조금 부족해, 보니까. 누구나 다 주는게 아니고, 여기사도 주려주는 거거든. 상황이 넉넉하고, 처자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독거노인, 저런 사람들은 도와주는데. 일부러 선별해서 주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못 받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남, 000 A단지 장애인 텃밭 이용자)

그렇지. 단합도 좋고, 있으면 서로 나눠먹으니까 정이 오가지. 한 주먹이라도 서로 나눠야지. 혼자면 먹으면 좀 그렇잖아. 텃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안 하는 사람 좀 주면 같이 먹고 그러는거지. (여, 000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으로는 각 아파트 단지 내 영향력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체 리더 교육을 SH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다. 도시농업의 경우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바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전문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저는 구청에 봄에 2번씩 교육 받으려가요. 구청 강당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농사 짓는거 하고는 별개예요. 가꾸는 방법이라던가, 어떤 종류를 심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는 걸 얘기해 줘야하는데 강사가 뭘 알아요? (남, 000 A단지 장애인 텃밭 이용자)

이런데 와서 저희가 가서 하는 것 보다 여기 와서 실제로 어떻게 심으시면 물려주고 심거나 거름을 주는 등 방법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런 상식이 없잖아요. 경험과 실전이 전문성이 있어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건 하늘과 땅차이고, 저희 어르신 선배님들은 농사를 짓고 여기서 아는 체를 많이해 왜 그걸 그렇게 심냐고, 농사를 짓지도 않고 지금 댁에서 서울 올라오는지 몇 년 됐는지 물어보면 45년 됐다고 하고 그 곳 시골에서 몇 년 사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지금 서울 토지도 얼마나 많이 바뀌고 씨앗도 엄청나게 바뀌고 외국종도 많은데 어떻게 토종 씨앗이 되냐 이것이지, 45년 동안 바뀐 것이 무지 많은데 농사짓는 방법이 얼마나 다른데, 그렇게 묻지 45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토지와 기후 씨앗 등도 얼마나 많이 바뀌어서 어떻게 나한테서 그렇게 묻냐 이러지. (남, 000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3. 협동축진, 서로 돕는 가치관 형성

공통 프로그램으로 매년 가을 배추나눔행사가 개최된다. 수확량에 따라 부족할 경우 SH공사로 부터 추가 지원을 받아 진행한다. 약 50여명이 자발적 참여해서 배추를 담그고 이웃 독거노인에 나눠주는 행사이다. 선착순으로 참여하고 수급자와 수급자탈락자 약 50명, 사례관리대상자와 반찬대기자 약 53명에게 우선 지급된다. 최대한 지급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 종교단체, 복지관, 동주민 센터 등과 명단을 공유해서 확인한다. A단지의 경우 과거에는 복지관 옥상텃밭과 단지 외곽 텃밭을 복지관, 장애인협회, 부녀회가 적극 협업하여 마을지향사업으로 함께 운영하였는데 현재는 SH공사에서 시민단체와 연계 관리하고 평소 장애인협의회에서 별도로 전담 관리하면서 행사시에만 복지관 직원이 지원한다. 다만 SH공사에서 행사를 주체하면서 B단지와 공동행사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텃밭관련해서는 배추담그기 행사 외에 공식행사 없고 다른 계절에는 단지 자체 내에서 나눔행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행사는 취약계층에게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인터뷰 대상자의 대다수가 대체적으로 텃밭을 가꾸는데 몸이 불편하기도 하고 하지만 텃밭 가꾸는 데에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들도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인정받길 원한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가을에 김장 담그기 행사 참가하지. 텃밭해서 나온 배추로 김장 담궜는데. 기분이 좋고... 키운 배추고 김장 먹으니까 좋고... 그리고 나눠서도 좋고. 김장하면서 1단지 사람 알게 된 사람은 많다. 행사하면서 알게 된 사람도 있고. 텃밭하면서 우리 삼촌 사 사이가 더 좋아졌다. (여성, 000 A단지 복지관 옥상텃밭 이용자)

마음이 뿌듯하죠~ 뭐 이렇게 더욱더 취약계층들이 봉사하니깐 김치나누기 등 정말 뿌듯해요 이거를 그래도 직장생활하면서 돈 번 사람들 골고루 나눠준다고 해서

준게 아니라 그래도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제가 질병에 걸려서 잘나갔다가 땅바닥에 떨어져보니깐 그 속을 알겠더라고요. (남, 000 B단지 주민 공동 텃밭 이용자)

개인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단체적으로 하게되면 수확을 하면, 여러 사람 나눠주고. 장애인들이라던가 홀로 계신 분들이라던가 군데군데 있어요. 우리가 먹는 건 아니고, 복지관 같은 데. 노인정 같은 데 갔다가 나눠주고 그래요. (남, 000 A단지 장애인텃밭 이용자)



〈그림5-11〉 A단지 장애인 텃밭 배추 나눔 행사 (2016년 11월 현장 촬영 사진)



〈그림5-12〉 A단지 복지관 옥상텃밭 배추 담그기 행사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사진)

제 4절 소결

도시농업의 핵심인 ‘나눔’과 ‘협동’ 그리고 그것의 원동력이 되는 ‘먹거리의 생산’은 사회적으로 위축된 취약계층에게 강한 활동 동기를 부여한다. 협소한 공간에서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함께 활동하는 사람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땅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떤 비료를 쓰고, 작물을 키우고 가꿀 것인지 서로 공유하고 학습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긴밀하게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어울리고 배우고 나누고 협력하는 과정은 서로 간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형성시키고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된다. 본 장에서는 앞서 4장에서 분석된 취약계층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과 관련하여 관계망 형성에 기여하는 도시농업의 역할에 관해 분석하였다. 첫째,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도시농업은 사회적 접촉과 공동 활동의 장을 제공한다. 공간의 위치와 규모, 접근성과 개방성은 비이용자의 참여 욕구에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작물 재배와 적절한 경관 관리는 단지 내 공공공간으로써 비이용자들에게 전원경관을 보여주고 심미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활동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자긍심을 주고 영구임대주택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한다. 그래서 물적 시설 및 환경의 조성 관리 수준이 중요하다. 둘째, 운영·관리적 측면에서 협력관계 형성과 조직화에 기여한다. 도시농업 활동에 대한 이해와 지식, 운영·관리 체계가 어떻게 갖추어 지는가에 따라 단지 내 개별 조직 간의 결속력이 강화되거나 와해되기도 한다. 셋째, 활동적 측면에서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 및 공동이익과 나눔의 가치를 형성 시킨다. 취약계층에게 먹거리 생산 기능은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건강한 먹거리 생산은 신체적·정서적 만족감과 일상 소비를 대체하여 앵겔지수를 낮추는 경제적 기능을 한다. 특히 수확된 작물을 가족, 이웃과 나누고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행위는 협동 촉진과 서로 돕는 가치관의 형성, 더 나아가 공동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 6장 결 론

제 1절 요약 및 시사점

연구의 대상인 영구임대주택은 장애인 등 신체부자유자의 비율이 높고 치매, 정신지체, 알코올 중독 등 만성질환자가 거주한다. 지속된 빈곤, 일탈과 반사회적 행위, 개인의 건강 및 동반자 간병 등에 의해 외부활동 제한되는 집단이다. 대부분 1~2인의 가구 비율이 높은 저소득 고령자이므로 이웃관계를 통해 서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일상 속에서 구성원들 간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소모임의 공간을 조성하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이 아닌 강한 활동 동기부여(activity motivation)가 가능하고 공동의 기반 형성과 협동 촉진, 개인의 건강 만족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적 기능의 공간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텃밭 공간을 매개로 형성되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농업의 속성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이 가장 취약한 장애인의 경우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망의 형성이 아닌 그룹 내부의 관계망이 강화되고 관계의 질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들은 도시농업 활동을 계기로 개인의 건강 만족 뿐 아니라 단지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바꾸고 주민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단체가 공용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시선과 그들이 도시농업을 통해 봉사하고 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는 노력이 주민들에게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취지와 다르게 주민들과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텃밭 유지·관리 및 봉사

인력의 수급이 제한되고 부정적 시선에 의한 의욕 상실로 활동이 다소 위축되었다. 일부 주민과 봉사자들과의 새로운 관계망이 형성되지만 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고 오히려 그룹 내부의 결속이 높아지는 경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텃밭활동을 통해 장애인도 누군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고 개인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둘째, 복지관 옥상 텃밭의 경우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망이 관리자 1인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이다. 관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주민들 간 1~2인의 약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독거노인과 초기 치매노인, 간병 가족에 의해 외부활동이 제약된 거주민 등 취약계층 중에서도 외부 활동이 거의 없고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약하지만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고립과 소외의 위험성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옥외활동과 교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용자들은 텃밭 활동이 일상에서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활동이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처음 복지관 관계자에 의해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용자들이 도시농업 활동을 경험한 이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복지관 교육 과정에 따라 운영되어 주민들이 활동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 중에서도 75세 이상 회년의 이용자 비율이 높고 건강상태나 잦은 외부 활동이 어려운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관의 지원이 오히려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물리적으로는 옥상 공간에 위치하여 개방성과 접근성이 낮아 비이용자의 자연스러운 참여 욕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셋째, B단지 주민 공동 텃밭은 특정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거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용을 지불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활동

의지가 높은 사람들 간 새로운 관계망 형성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신규 참여자들은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핵심인물을 통해 커뮤니티에 소속되고 일부 크고 작은 중심성을 지닌 사람들을 통해 관계망이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텃밭과 같이 특수 계층이 점유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내 다양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계망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특징적인 것은 텃밭 활동을 매개로 개인의 관계망 뿐 아니라 단지 내 조직 간의 관계망도 긴밀히 연결되었다는 점이다. 노인회, 임차인대표, 통장단, 관리사무소 등 개별 조직들이 텃밭공간이 조성된 계기로 협력관계를 형성하였다. 텃밭의 배분 방식, 분양 및 관리 기준, 수익의 활용 등 도시농업 활동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결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텃밭 공간이 비교적 시각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외부인의 접근성이 수월하여 비이용자의 적극적인 호기심(active curiosity)을 유발하고 참여 욕구를 높이는데 유리한 조건이다. 무엇보다 텃밭 공간에 의해 영구임대주택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외로 개선되면서 주민들의 아파트 환경 정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외부에서 텃밭을 더 잘 관찰 할 수 있도록 펜스를 낮춰 시각적으로 개방성을 확보하거나 주변 시설을 정비하고 활용되지 않은 땅에 식물을 심어 미관을 살리는 등 환경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농업이 거주지에 대한 장소 애착과 자긍심에 따른 근린주구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체 대상지의 공통된 특징은 핵심인물(key person)의 역할과 영향력이다. 이용자들이 처음 활동에 참여거나 활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지목한 사람이다. 이용자들이 활동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주민 간의 원활한 관계가 형성되도록 중간자 역할을 한다. 복지관 옥상 텃밭은 복지관 담당자가 핵심인물의 역할을 담당하고 복지관 자체 매뉴얼에 따라 전문성 있게 텃밭 활동을 관리하고 있다. 장애인 텃밭과 주민 공동 텃밭은 신뢰를

받고 있는 한 주민이 핵심이 되어 이웃과 단지 조직과 협력하여 활동을 이끌어간다. 대내외 협력, 운영비 조달, 행사 주관 등 텃밭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맺고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한다. 정보 공유의 핵심으로써 외부로부터 얻은 정보를 내부에 전달하고 의견을 조율한다. 텃밭 네트워크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시키거나 새로운 결속력을 만들어 내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에서 핵심인물은 ‘텃밭회장’으로 지칭된다. 여기서 ‘텃밭회장’은 도시농업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명명하고 있는 ‘텃밭지기’와 유사하다. 텃밭지기³⁰⁾란 도시농업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텃밭 가꾸기의 보급과 의미를 확대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며, 공공텃밭 경작을 비롯해 크고 작은 행사의 자원봉사를 통해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구성원들이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의 ‘텃밭회장’은 이들에 비해 전문성이 다소 낮다. 이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전문성을 갖추면 그 지식이 단지 내 활동 주민들과 공유되고 그 과정에서 공동 학습과 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도시농업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서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과 관리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각 커뮤니티의 성격에 맞는 비전을 세우고 디자인을 설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단지 내에서 공공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이용자-비이용자 간 갈등을 완화하고 참여를 유도할 전략이 필요하다. 텃밭의 위치와 규모, 접근성과 개방성을 고려한 조성 계획과 생산 활동을 통한 공동이익 창출-봉사-환원의 순환 구조를 갖춘 운영·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다. 특히 참여의 대상을 특정 그룹에 한정하거나 수를 제한하는 것은 단지 내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요인이기 때문에 규모 산정 및 운영 주체

30) 내용출처: <http://blog.naver.com/wbh1201/220912233091>,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나 도시농업 실무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칭되는 용어이다.

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된 수확물이 단지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다양한 계절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어울리는 공공공간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바닥과 동선, 다양한 스케일의 텃밭 공간,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쉼터 등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 조건에 맞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방성은 비이용자의 도시농업 참여 욕구를 높이고 텃밭 공간이 단지 내에서 공공공간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텃밭 경계면의 시설과 조성되는 위치적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이 수월한 동선과 적절한 보행 환경을 갖추는 것 역시 중요하다.

무엇보다 조성 후 적응 및 초기 정착을 위한 전문조직(ex. 노원구 도시농업네트워크)의 지원과 교육, 효율적인 운영·관리 노하우를 전수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이용자·비이용자 간 갈등 완화를 위해 도입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 협의체와 공동 규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식을 스스로 갖추기 어려울 경우 전문 지원 조직과 연계한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 주민들 스스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작물 재배와 관리 방법, 효율적인 토지 활용과 기술, 운영비 조달 및 관련 조직과 협력하는 방식, 수확물의 공유와 수익금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용자·비이용자 간 오해와 갈등 완화를 위해 텃밭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확제, 모종·퇴비·채소 나누기, 품평회 등 다양한 행사를 시도하고 봉사와 협력의 장소로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관계망 활성화를 위해 주민 내에서 핵심인물을 발굴하고 ‘텃밭지기’와 같은 전문성을 갖춘 교육 지원과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여 그의 영향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정착된 이후에는 학계, 시민단체, 행정 등으로 정보 교류의 장을 확대하여 내적 관계망 뿐 아니라 외적 관계망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

는 가이드가 필요하다.

제 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도시농업 활동이 취약계층의 교류 증진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공간계획과 운영·관리 방향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활동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수준과 영향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도시농업의 활용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실증 분석을 위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도시농업의 활성화 단계가 아닌 초기 정착 단계에서 충분한 표본수의 확보와 활성화 수준이 높은 적정 대상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현재의 실태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운영주체, 방식, 규모 등이 다르지만 영구임대주택과 취약계층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지닌 두 개 단지 내 세 곳의 대상지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대표성을 띄는 결과로 평가를 단정하기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텃밭 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확산 가능성 측면에서 특수 계층을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기회와 제약 요인 등을 현 시점에서 짚어보는데 의미가 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영구임대주택에서 이루어지는 도시농업의 활동 유형을 공간의 특징과 이용 계층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영구임대주택의 다양한 텃밭 유형과 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다양한 스케일에서 보다 정량적으로 접

근성, 적정 규모와 위치, 시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유형을 더욱 세밀하게 분류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중에서도 정신 또는 신체 장애인, 노인 중에서 독거노인, 여성 노인, 치매노인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지원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도시농업 활동이 취약계층에게 유익한 건강 복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농업의 속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텃밭 규모, 시설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 유지관리 체계, 활동의 질에 대한 인식 수준 등과 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수준,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와의 관계를 밝혀내는 융합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에서 도시농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 활동에 대한 이용자 비이용자 간 인식 차이가 무엇이며 그들 간 갈등 요인과 완화를 위해 어떠한 접근이 요구되는지에 근본적인 원인과 실태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인용문헌

- 김민선, 정윤남, 김세용(2015) 공동주택 단지 내 텃밭 운영 현황 고찰 및 시사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1(3):143-154.
- 김세용 (2014) 공동주택단지 내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세훈, 김정열, 모선희, 설동훈, 김미곤, 신정호, 송정은, 석소연(2005).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아름(2015) 주민 참여형 주거지재생 사업과 고령거주자의 근린활동 및 사회적관계망과의 영향관계 연구:서울시 정비 예정구역 해제지역(연남동,북가좌동)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옥, 김주영(2016) 영구임대아파트와 판자촌의 공간구조와 자살률 비교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7(1):135-146
- 김용진(2012) 도시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근린환경요소 : 자립적 생활능력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용학(2007) 사회연결망이론. 박영사.
- 김용학, 김영진(2016) 사회 연결망 분석. 박영사
- 김이선(2015) 설계 반영된 아파트 텃밭의 실태 분석,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연, 김윤수, 이연숙(2013) 공동체 텃밭의 효과 측정을 위한 항목 유형화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13(5):23-30.
- 김태곤외(2014) 도시농업의 치유기능 확산과 도농상생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희태(2015) 유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幼兒教育學論集 19(4): 197-221.
- 노희경(2012) 도시텃밭의 공동체 활성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세준(2014) 공동주택단지 도시농업의 설계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진, 조성일, 장숙량(2011)사회적 관계망의 긍정적, 부정적 기능이 성별주관적 건강에 미치는영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28(4):39-40.
- 박영란, 박경순(2013) 한국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복지: 연구의 동향과 향후 과제. 노인복지연구 60: 325.
- 박영란, 박경순, 정은화(2014) 사회적지지와 사회적 부정성이 농촌노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정신보건과사회사업42(2):151-177.
- 박윤희(2016) 노년기 사회관계망의 구조와 기능이 노인의 사회활동 욕구에 미치는 영향. 동서정신과학 19(1):119.
- 박은지, 이연숙(2011) 도시 내 주민 참여형 커뮤니티 가든 계획의 초기단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주거학회 1: 135-140.
- 박인권, 이민주(2014) 도시농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서울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텃밭’ 조성 사례, 국토연구 80: 101-116.
- 박태호, 이인성(2012) 도시텃밭 운영 프로그램이 참여자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경학회지 40(5): 119-128.
- 배점모(2015) 사회적지지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자치행정학보29(4):49-70.
- 서보경(2014) 서울시 공공임대아파트 커뮤니티의 사회적 결속력에 관한 연구: 단지내 커뮤니티 활동과 주거문화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5(2): 45-54.
- 손용훈, 임정연(2014) 청룡산 텃밭공원의 이용실태와 이용 주체간 의식 차이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0(2): 71-80.

- 신선정(2008) 사회적 취약계층의 여가·관광 의미와 제약요인. 대한관광경영학회 2008년 제 31차 정기학술발표대회 學術研究發表 論文集 2: 845-861.
- 오미영(2014)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고등학교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인근, 오영삼, 김영일(2009) 여성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건강증
- 오제남(2015)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및 공간 특성을 고려한 도시농업 복합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환경학회지 22(3): 357-368.
- 오주석, 김세용(2014) 공동주택단지 내 도시농업 도입 및 계획방안 연구: 계획지표 도출 및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5(5): 47-66.
- 오현주(2015)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 주민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 마을의 공간적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미숙(2010) 도시 거주 노인의 만성질환과 우울증세의 상관성 및 사회관계망의 효과에 대한 연구.보건과 사회과학27:5-30.
- 이보람(2015) 사회적 유대감의 다차원적 요인구조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양주, 오강임(2015) 도시텃밭은 파복의 지름길. 경기연구원.
- 이연숙, 윤가영, 장재우, 안창현(2013) 노인의 사회적건강 측면에서 본 주택 유형별 사회적 관계성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22(5):258-266.
- 이영아(2016) 도시재생과 가난한사람들. 국토연구원.
- 이원숙(1995) 사회적망과 사회적지지 이론. 홍익제.
- 이준섭(2012)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연구. 법제처
- 이유리(2013) 도시농업(2009~2013).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월간 건축도시정책동향 9(10): 35-49.
- 이정숙, 이인수(2005) 노년기 건강관리 행동과 사회 경제 요인이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7: 231
- 이정희(2006) 사회적관계망이 중증 여성장애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이주연, 이영주, 이동호(2005) 농촌관광개발 이해 당사자 분석 방법론: 사회연결망분석 사례연구. 농촌계획 11(3): 29-42.
- 이준섭, 이진국(2012)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연구.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 이차희, 손용훈(2014) 도시텃밭 운영 주체별 운영방식의 차이에 따른 공동체 형성 효과. 한국농촌계획학회지20(1):63-76.
- 임소영, 강민아, 조성일(2013) 한국 노인의 사회관계망 유형과 건강상태의 관계: 남녀집단별 분석.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9: 281-308.
- 임은실, 이경자(2003) 저소득 재가 노인의 신체적 기능, 우울 및 사회적지지가 삶의질에 미치는 영향. 노인간호학회지5(1):38-49.
- 임주호, 이경환, 윤인숙, 윤은주(2012) 신도시 내 도시농업 도입에 대한 거주자 지불의사 금액 추정: 분당,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LHI Journal 3(4): 315-322.
- 장숙희, 김창숙, 김미란(2008) 노인의 사회적지지가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영향. 동서간호학연구지14(2):39-46.
- 장연진(2001)도시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정남식, 이용학, 강은지, 김용근(2016) 청소년 문제행동 완화를 위한 도시농업 체험활동의 효과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3(3): 271-283.
- 정유진, 이세규(2015)도시의 물리적·사회적환경이노인의건강에미치는영향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 27(2):75-94.
- 주혜선, 장유진, 박전호(2015)도시농업프로그램이 가족의 유대감과 친밀감 형성 및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지18(6):473-479.
- 진행위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4(1): 113-136.
- 최병덕(2009) 아파트 단지 내 텃밭 조성의 효익에 관한 연구: 용인동백지구 D아파트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영, 정윤남, 김세용(2014)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조례 항목별 중요도와 참여 만족도 및 지속가능성의 관계 분석: 서울시 도시농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15(6):173-188.
- 최은진, 유승현, 손창균, 오영인, 여지영(2012)건강증진서비스이용에대한개인의사회적자본의영향력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조경학회(2013)국토해양부 승인 조경설계기준. 국토해양부.
- 한주령, 장동민 (2014)도시농업의 이론, 패러다임 및 유형분석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한국도시설계학회지15(6):33-46.
- 허선영(2003)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생활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주녕, 권혁현(2014) 도시농업 참여 실태와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서울시민-공영주말텃밭사례. 서울 도시연구15(4):53-64.
- Agustina I and Beilin R(2012) Community gardens: space for interactions and adaptations. Procedia Soc BehavSci 36:439-448.
- Antonucci, T. C. (1985) Social Support: Theoretical Advances, Recent Findings and Pressing Issues.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21-37.
- Berkman, L. F., & Glass, T. (2000) Social integration,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and health. In L. F. Berkman & I. Kawachi (Eds.), Social epidemiology (pp. 137-17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loom, Joan R.(1990) The relationship of social support and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30(5): 635-637.
- Bowler D(2010) The importance of nature for health: is there a specific benefit of contact with green space? In Systematic review - collaboration for environmental evidence. Bangor; UK: Collaboration for Environmental Evidence 40: 57.
- Chronic renal disease.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7): 227- 247.
- Coley R. L., Kuo F. E., Sullivan, W. C. (1998) Where does community grow? The social context created by nature in urban public housing. Environmental Behavior 29: 468-494
- Cohen, S. (2004)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59: 676-684.
- Donna, Armstrong(2000) A survey of community gardens in upstate New York: Implications for health promo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Health&Place 6: 319-327.
- Elyzabeth Gaumer and Ahuva Jacobowitz(2014) Building Ties: The Social Networks of Affordable-Housing Residents. Cityscape: A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16(3): 47-68.
- Ennis, G. and West, D. (2010). Exploring the potential of social network analysis in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practice and research. Australian Social Work, 63 (4): 404-417.
- Flachs, Andrew(2010) Food for Thought: The Social Impact of Community Gardens in the Greater Cleveland Area, Electronic Green Journal 1(30): 1-9.
- Gallo, F. (1982)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networks on the health of the elderly. Social Work

- in Health Care 8(2): 65–74.
- Germain, C., Gitterman, A. (1996) *The Life Model of Social Work Practice: Advances in Theory & Practice*. Columbia University Press.
- Hou, J., Johnson, J. M., & Lawson, L. J. (2013) *Greening cities growing communities*(Oh, K. Transla.), Seoul; Landscape Architecture Korea(Original work published 2009)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Reading, Mass: Addison–Wesley.
- Imas Agustinaa and Ruth Beilina Wilson(2012) Community Gardens: Space for Interactions and Adaptations.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36: 439–448.
- Jonathan ‘Yotti’ Kingsley, Mardie Townsend, Claire Henderson-Wilson(2009) Cultivating health and wellbeing: members’ perceptions of the health benefits of a Port Melbourne community garden. *Leisure studies : the journal of the Leisure Studies Association* 28(2): 207–219.
- Kaźmierczak, A. (2012) The contribution of local parks to neighbourhood social tie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09: 31–44.
- Kaplan, R. M., Saccuzzo, D. S. (1993) *Psychological testing: Principles, applications, and issues* (3rd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Kawachi, I. and Berkman, L. (2001) Social tie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Urban Health* 78(3): 458–467.
- Keating, N., Swindle, J., Foster, D. (2005) The role of capital in aging well. *Social Capital in Action Thematic Policy Studies*: 24–51.
- Kef, S., Hox, J. J., Habekothé, H. T. (2000) Social networks of visually impaired and blind adolescents. Structure and effect on well-being. *Social Networks* 22(1): 73–91.
- Kemperman, A. and Timmermans, H. (2014) Green spaces in the direct living environment and social contacts of the aging population.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29: 44–54.
- Mitchell, R., and Popham, F. (2008) Effect of exposure to natural environment on health inequalities: An observational population study. *The Lancet*. 372(9650): 1655–1660.
- Morgan, D. L. (1989) Adjusting to Widowhood: Do Social Networks Really Make It Easier?. *The Gerontologist* 29(1): 101–107.
- Ohmer ML, Meadowcroft P, Freed K and Lewis E(2009) Community garden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individual, social and community benefits of a community conservation program. *J Community Pract* 17:377–399.
- Ohly H, Wigglesworth R, Bethel A, Husk K, Lovell R and Garside R(2014) What are the health and well-being impacts of community gardening for adults and children: a mixed method systematic review protocol. Lovell et al. *Environmental Evidence* 3:20
- Pretty, G., Bishop, B., Fisher, A. T., & Sonn, C. (2007)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nd its relevance to well-being and everyday life in Australia. *Australian Community Psychologist* 19(2): 6–25.
- Randolph T. Hester(2010) *Design for Ecological Democracy*. MIT Press.
- Rook, K. S. (1984) The negative side of social interaction: Impa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5): 1097–1108.이영아
- Rounds, K. A., & Israel, B. A. (1985)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Living with
- Seeman, T. (1996). Social ties and health: The benefits of social integration. *Annals of Epidemiology*, 6(5), 442–451.

- Smith, K. P., Christakis, N. A. (2008) Social Networks and Health. *Annual Review of Sociology* 34: 405–429.
- Thompson, C. A., Roe, J., Aspinall, P., and Mitchell, R. (2012) More green space is linked to less in deprived communities: evidence from salivary cortisol pattern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05: 221–229.
- Umberson, D., Montez, J. K. (2010)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A Flashpoint for Health Polic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1(S) S54–S66.
- Wasserman, S. and Faust, K.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NY.
- Wellman, B. (1981) *Network Analysis. From Method and Metaphor to Theory and Substance*. Working Paper Series 1B, Structural Analysis Program, University of Toronto.

〈부록1〉 도시농업 활동과 사회적 관계망 관련 조사 내용

『도시농업활동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관한 연구』

텃밭 이용행태

1. 텃밭을 몇 년도에 이용하셨습니다? (이용한 년도 모두 체크)
 ① 2012년 ② 2013년 ③ 2014년 ④ 2015년 ⑤ 2016년 ⑥ 기타_____
2. 현재 어디에서 텃밭 활동을 하십니까?
 ② 분양밭은 야외텃밭(4만) ③ 분양밭은 온실 하우스텃밭(6만) ③ 노인회텃밭
 ④ Sh공사-봉사단텃밭 ⑤ 기타_____
3. 텃밭활동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4. 텃밭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세요)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4순위_____
 ① 개인 건강증진 ② 이웃과의 교류 및 친목도모 ③ 사회 봉사활동
 ④ 가족과 여가활동 ⑤ 자녀교육 및 학습 ⑥ 채소 수확해서 생활비를 낮춤 |
 ⑦ 취미활동 ⑧ 기타_____
5. 생산된 농작물을 주로 어디에 활용하십니까?
 ① 자가소비(내가 쓴다.) ② 친인척·가족과 나눔 ③ 아파트 내 친한 이웃과 나눔
 ④ 지역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 ⑤ 기타_____
6. 텃밭을 주로 누구와 함께 이용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혼자서 ② 동네 주민(아파트 이웃) ③ 가족
 ④ 친구나 애인(다른 지역에 거주) ⑤ 복지관 관계자 ⑥ 기타_____
7. 텃밭활동이 생활 경제적(수익)으로 도움되십니까?
 ① 그렇다. 이유는? ② 아니다. 이유는?
8. 귀하는 텃밭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① 거의 매일 ② 주 3~5번 ③ 주 1~2번 ④ 주말, 휴일 ⑤ 기타
9. 텃밭을 이용하는 시간대와 평균적으로 머무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이용 시간대:_____시 ② 머무는 시간:_____시간_____분

텃밭 활동 만족도

10. 텃밭 활동에 만족하십니까?

텃밭 이용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 족	보통 이다	만족	매우 만족
1	텃밭의 경관(경치, 아름다움지)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텃밭의 위치, 형태, 이동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텃밭까지의 접근성(거주하는 동에서 텃밭까지 가는데 거리)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분양받은 텃밭의 크기(공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텃밭 분양 가격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텃밭 수도, 장비 등 시설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제공되는 씨앗, 모종, 비료 등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농사교육, 행사, 프로그램 등에 만족한다.(없으면 원하시는지?)	①	②	③	④	⑤
9	건강한 녹색(채소섭취) 식생활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텃밭이 이웃주민과의 대화 및 교류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텃밭이 아파트 단합, 결속력, 신뢰감 형성 등 공동체 강화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추가적으로 텃밭 활동 하는데 불편한 점(문제점) 또는 바뀌어야 할 부분(개선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_____

텃밭활동을 할 때 교류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

12. 텃밭활동 할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사람번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13. 텃밭 가꾸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문제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사람

사람번호	도움 받는 내용

14. 내가 텃밭에 갈 때 같이 가거나 채소 심고 가꾸는 것을 돕는 사람

(한 명에 천한 사람 여러 명이 함께 텃밭을 재배하는 경우를 확인)

번호(복수가능): _____

15. 텃밭을 가꿀 때 재배, 관리방법, 채소정보 등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

번호(복수가능): _____

16. 텃밭에서 수확한 작물을 함께 나누고 교환하는 사람

번호(복수가능): _____

17. 텃밭에 심을 씨앗이나 비료, 모종, 장비 등을 함께 사러가거나 나눠서 쓰는 사람

번호(복수가능): _____

18. 텃밭관련 교육이나 기술을 함께 배우러 다니는 사람

번호(복수가능): _____

19. 가을철 배추 담그기 행사(봉사나눔행사)에 참여하십니까?

① 그렇다면, 참여이유와 어떠한 기분을 느끼는지요? _____ ② 아니다

20. 배추 담그기 행사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① 같은 아파트 주민: 이름 _____ ② 다른 아파트 주민 이름 _____

③ 기타: 이름 _____ (주민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인지 봉사원? 등 묻기)

거주 단지와 지역에 대한 인식

21.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와 지역에 대한 인식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예측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살기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아파트 사람들은 서로 믿고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아파트문제(시설보수·안전·주차 등)에 적극의견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아파트 안전환경(사고, 폭력, 범죄 예방)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아파트 자연환경(꽃, 나무, 잔디밭 등)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노원구 지역문제(교통·환경오염·정책 등)에 관심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노원구 지역 봉사활동(이웃돕기 행사 등)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계속 이곳에 살고 싶다 (이유는? _____)	①	②	③	④	⑤

개인의 정보

- 연 령 대: _____
- 성 별: ① 남 ② 여
- 종교가 있습니까? ① 있다, 교회에 다닌다. ② 있지만 교회에는 안다닌다. ③ 없다
- 직업이 있습니까?
 ① 있다. _____ ② 없다. _____
 ③ 기타 사회적 지위 확인 _____
- 가족구성: ① 혼자 ② 2인 ③ 3인 ④ 4인 ⑤ 5인 이상
 함께 사는 사람 _____
- 개인 월 평균소득
 ① 50만원 이하 ② 50~100만원 ③ 100~200만원 ④ 200~300만원
 ⑤ 기타 _____만원 이상
- 평소 본인 성격이 바깥 활동량이 많고 사람들과 자주 대화 교류 합니까?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내가 평소에 느끼는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좋지않다 ② 좋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 해당사항: (여러 개 표시 가능)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③ 한부모 가정 ④ 독거노인 ⑤ 탈북자
 ⑥ 장애인(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⑧ 기타 _____
- 교육: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⑤ 대학원 이상 ⑥ 없음
- 현재 질병이 있습니까?
 ① 있다면, 질병 명: _____, ② 없다
-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스트레스문제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평소에 우울감에 시달리십니까?
 ① 매우그렇지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우울증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텃밭활동을 할 때에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람의 목록

☐ 텃밭활동을 할 때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람의 수(전체 수) 대략 총 _____ 명 ☐ 전체 인원 중 생각나는 사람 표에 작성, 칸이 모자르면 여백 또는 뒷면에 추가 작성하기

☐ 척도 ① 매우좋지않다(1점) ② 좋지않다(2점) ③ 보통이다(3점) ④ 좋은편이다(4점) ⑤ 매우좋다(5점)

사람 번호	이름	같은 아파트 이웃이라면	같은 아파트 이웃이 아니라면		알고 지낸 기간은 ?	얼마나 자주만나거나 연락할까?	텃밭활동을 시작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나요?	텃밭 외에 함께하는 활동 또는 모임이 있습니까?	관계만족도 (얼마나 사이가 좋다고 느끼는지)	관계의 수준	
			어떤 관계	만나는 이유(대화 내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_____	①다른 동네 사람 ②복지관관계자 ③봉사단관계자 ④관리사무소관계자 ⑤HH공사관계자 ⑥구청관계자 ⑦기타, 누구?	텃밭가 꾸기점 보교류, 텃밭운 영 및 건의사 향 문의 등	_____	①거의 매일 ②일주일 3~5번 ③일주일 1~2번 ④주말, 휴일만 ⑤만나지 않는다. ⑥기타라면 얼마나?	①그렇다. ②아니라면, 어떤 렇게 알게 사람인지?	① 천목모임(계모임, 동창회, 노인회 등 어떤 모임?) ② 주민대표, 봉사단, 장애인협회 등 등정, 단체 모임 ③ 복지관 또는 지역 센터 모임 (복지관 이름과 참여 프로그램) ④ 봉사활동모임(어떤 봉사활동?) ⑤ 교육/학습모임(어떤 교육 인지) ⑥ 여가/레저 모임 (축제, 이벤트 여행 등 어떤 모임 인지 묻기) ⑦ 운동모임(어떤 운동모임 인지) ⑧ 종교모임 ⑨ 기타, 무슨모임?	5점 만점에 몇 점? 차이가 나도록 질문하기	1. <u> </u> 2. <u> </u> 3. <u> </u> 4. <u> </u> 5. <u> </u> 6. <u> </u> 7. <u> </u> 8. <u> </u> 9. <u> </u> 1. <u> </u> 2. <u> </u> 3. <u> </u> 4. <u> </u> 5. <u> </u> 6. <u> </u> 7. <u> </u> 8. <u> </u> 9. <u> </u> 1. <u> </u> 2. <u> </u> 3. <u> </u> 4. <u> </u> 5. <u> </u> 6. <u> </u> 7. <u> </u> 8. <u> </u> 9. <u> </u> 1. <u> </u> 2. <u> </u> 3. <u> </u> 4. <u> </u> 5. <u> </u> 6. <u> </u> 7. <u> </u> 8. <u> </u> 9. <u> </u> 1. <u> </u> 2. <u> </u> 3. <u> </u> 4. <u> </u> 5. <u> </u> 6. <u> </u> 7. <u> </u> 8. <u> </u> 9. <u> </u> 1. <u> </u> 2. <u> </u> 3. <u> </u> 4. <u> </u> 5. <u> </u> 6. <u> </u> 7. <u> </u> 8. <u> </u> 9. <u> </u> 1. <u> </u> 2. <u> </u> 3. <u> </u> 4. <u> </u> 5. <u> </u> 6. <u> </u> 7. <u> </u> 8. <u> </u> 9. <u> </u> 1. <u> </u> 2. <u> </u> 3. <u> </u> 4. <u> </u> 5. <u> </u> 6. <u> </u> 7. <u> </u> 8. <u> </u> 9. <u> </u> 1. <u> </u> 2. <u> </u> 3. <u> </u> 4. <u> </u> 5. <u> </u> 6. <u> </u> 7. <u> </u> 8. <u> </u> 9. <u> </u> 1. <u> </u> 2. <u> </u> 3. <u> </u> 4. <u> </u> 5. <u> </u> 6. <u> </u> 7. <u> </u> 8. <u> </u> 9. <u> </u> 1. <u> </u> 2. <u> </u> 3. <u> </u> 4. <u> </u> 5. <u> </u> 6. <u> </u> 7. <u> </u> 8. <u> </u> 9. <u> </u>	
2		_____			_____					1. <u> </u> 2. <u> </u> 3. <u> </u> 4. <u> </u> 5. <u> </u> 6. <u> </u> 7. <u> </u> 8. <u> </u> 9. <u> </u>	
3		_____			_____					1. <u> </u> 2. <u> </u> 3. <u> </u> 4. <u> </u> 5. <u> </u> 6. <u> </u> 7. <u> </u> 8. <u> </u> 9. <u> </u>	
4										1. <u> </u> 2. <u> </u> 3. <u> </u> 4. <u> </u> 5. <u> </u> 6. <u> </u> 7. <u> </u> 8. <u> </u> 9. <u> </u>	
5										1. <u> </u> 2. <u> </u> 3. <u> </u> 4. <u> </u> 5. <u> </u> 6. <u> </u> 7. <u> </u> 8. <u> </u> 9. <u> </u>	
6										1. <u> </u> 2. <u> </u> 3. <u> </u> 4. <u> </u> 5. <u> </u> 6. <u> </u> 7. <u> </u> 8. <u> </u> 9. <u> </u>	
7										1. <u> </u> 2. <u> </u> 3. <u> </u> 4. <u> </u> 5. <u> </u> 6. <u> </u> 7. <u> </u> 8. <u> </u> 9. <u> </u>	
8										1. <u> </u> 2. <u> </u> 3. <u> </u> 4. <u> </u> 5. <u> </u> 6. <u> </u> 7. <u> </u> 8. <u> </u> 9. <u> </u>	
9										1. <u> </u> 2. <u> </u> 3. <u> </u> 4. <u> </u> 5. <u> </u> 6. <u> </u> 7. <u> </u> 8. <u> </u> 9. <u> </u>	
10										1. <u> </u> 2. <u> </u> 3. <u> </u> 4. <u> </u> 5. <u> </u> 6. <u> </u> 7. <u> </u> 8. <u> </u> 9. <u> </u>	

〈부록2〉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및 기념품 수령확인서

『도시농업활동과 사회적관계망 형성에 관한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합니다.

본인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설문에 참여를 완료하여 기념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름	성별	주민번호앞자리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없는 경우 집전화번호)	주 소 (등은 필수 기재)	서 명
			- -	등 호	
			- -	등 호	
			- -	등 호	
			- -	등 호	
			- -	등 호	
			- -	등 호	
			- -	등 호	
			- -	등 호	
			- -	등 호	
			- -	등 호	

Abstract

A Research on the Formulation of Social Network of the Vulnerable Group through Community Garden

– For the vegetable garden users living in permanent rental housing –

Ph.D. Dissertation

Jung-Eon Lim

Advised by Prof. Jung-Sang Sung

July 2017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Landscape Architecture Major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Urban areas in modern days have s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vulnerable group such as senior citizens and low-income class due to income polarization and a sudden change of demographic. With a weak social security net, it comes with social conflict and exclusion, which deteriorates health and quality of life. This paper studied the permanent rental housing where a substantial number of vulnerable group residing in, including recipients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people with disability, and senior people living alone. The residents of such housing show little

willingness to go out for outdoor activities, for such reasons as health problem, poverty, isolation, and distrust. Its low connectivity and isolated structure even exacerbate the social network of the residents. This led to a high level of depression and suicide that have emerged as a social issue. Thus, it may be worth considering how to transform a closed and isolated environment into an open and reciprocal one. The new environment is asked to stimulate activity motivation, form a collective bond, facilitate collaboration, and positively influence on individual's health, instead of just arranging a small event or merely improving the environment.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focused on community garden which can contribute to creating enhanced interaction within the vulnerable group and establishing social networ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n empirical examination on how community garden affects the vulnerable group so as to increase their interaction and encourage socializing with each oth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provide evidence to the government's community garden policy for the vulnerable group, and its effective physical spacial planning and management.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vulnerable people living in permanent rental housing. This includes the types of the vulnerable group who participate in community garden, why and how often they engage in the community gardening activity, and their health conditions. Second, the social network of the vulnerable group participating in community garden was analyzed. The study identified how often they interact with how many people, and how satisfied they are with the social network. Then,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the level of individual's interaction, the overall structure of their social network, and its influence were examined.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as visually illustrated in terms of the size of social network by each type of the vulnerable group, and levels of relationship, interaction and concentration among

community garden users. Third, this study described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garden that are particularly effective in establishing social network for the vulnerable group. Interview-based data was used to explore the possible roles community garden could play, including (a) providing a venue for socializing and community activity, (b) establishing collaborative relationship, (c) producing healthy agricultural produce, and (d) creating the value of collective benefits and sharing.

The residents of permanent rental housing are mostly comprised of those with limited physical capability such as people with disability and senior citizens, and of patients of chronic diseases including dementia, mentally handicapped, and alcoholics. It was found that prolonged poverty, deviant and anti-social behavior, health problem, and the necessity of care prevented them from engaging in outdoor activities. The fact that low-income seniors living alone or two-people senior households took up especially high proportions of the total resident, it deemed important to induce collaboration from neighbours more than from family members. In particular, the group of people with disability who has least capability of engaging in outdoor activities have taken part in vegetable gardening on the outskirts of the permanent rental housing. Their 3-year-long gardening was found to be effective in increasing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outdoor activitie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It was also realized that their social network became cohesive thanks to a dense interaction among those with disability. The study also found that people with disability formed new networks with the housing staffs, other residents and volunteers, but with less density and low frequency of interaction. However, the users of vegetable garden did recognize that community gardening was important for them to build a bond within the group, improve health condition, change discriminatory preconceptions towards the people with disability living in the rental housing, and maintain sound

relationships with other residents. They also attached significance to the fact that community gardening helped them have enhanced self-esteem, confidence, and social support that they can be of help to others.

In case of the group of female seniors, who include early stage dementia patients and those with limited activities for the need to be assisted by carers, community garden has been made at the welfare centre rooftop. These residents had no previous outdoor activities nor interaction with other people at all, but community garden provided them with an opportunity to form a new social relationship. Although their new relationship was established with just one welfare staff and the network was weak in size and density, this group recognized community gardening as the only source to release stress. They responded positively to the interactive process of exchanging information and the vegetable produce with neighbors. Importantly, this study noted the voluntary participation in community garden by the residents who initially were passive to take part in the activity, which can be interpreted as the possibility of future network extension. Meanwhile, the vegetable gardens jointly available to all residents gave rise to mixed user groups. Those who used this type of vegetable garden were found to have closely-connected relationships with other resident groups as well as other individuals. Each group of the permanent rental housing such as senior organization, lessee representatives, housing representatives, administration office established collaborative ties after the community gardening activity. The bond among groups was tightened through a series of discussions on the distribution of the vegetable garden, standards for the sale and management of the garden, and the gardening income usage. Interactions with different residents formed new social networks, and the growing interaction even enlarged the size of the overall networks. High interconnectedness among the garden users (level and frequency of interactions) would mean an even more intense bondage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public image of permanent rental housing got improved with the gardening, leading to the residents' increased attention on housing environmental improvement.

Lastly, this study identified the crucial roles and influences of key person of the permanent rental housing in facilitating community garden. Key person refers to the one with centrality in the social network, corresponding to whom most of the garden users pointed as important. The role of key person includes leading the maintenance of the gardens, cultivation, and holding a number of small events. Support for the garden users to exchange necessary information and remain collaborative was another role of the key person. In terms of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vegetable gardens, the location and openness of gardens were found to be essential in expanding the social network. In other words, the more visually open and the better accessible the gardens are, the more active curiosity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were induced from non-users.

For the vulnerable group, community gardening would mean interaction, collaboration, mutual aid as well as remaining healthy as a way of housing welfare, whereas it would serve as a leisure activity, education, and experience for the general public. So, the main goal of community garden could be to formulate social network. In line with this, the study analyzed how the vulnerable group residing in permanent rental housing established social network through community garden, the level of their social network,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t also explored how community garden can be used to practically contribute to improving quality of life and health condition of the vulnerable group. It can be said that community garden has the potential to serve as a representative urban greens to better not just the quality of social network but also people's health.

Keywords : social and economic vulnerable group, welfare, living environment, vegetable garden, community garden, social integration, establishing community, cohesion, community space, regional capacity building, social health

Student Number : 2011-31230